



11

1988

문학예술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88. 11호

(루게 493)



◆◆◆◆◆◆◆◆◆◆ 차 례 ◆◆◆◆◆◆◆◆◆◆

작가들은 현실체험을 깊이 하자.....	4
력사의 자욱우에	6
평양교외 한 관리위원장의 이야기	7
끝없는 세월속에 이어진 길.....	8
당을 따르는 전사의 노래	8
총서 《불멸의 력사》는 우리 문학이 거둔 귀중한 재보	9
앞길을 밝혀주시는 분.....	13
삶의 태양, 위대한 령도자에 대한 숭고한 서사적 화폭.....	14
압록강의 영원한 흐름처럼	19
그 신념 영원히 변치 말자.....	22
숙영차는 어디까지 왔는가.....	23
조국에 대한 노래.....	31
창작적 주견과 대담성	32
백두의 꽃시절	33
고향-조국을 두고.....	34
축복받은 꽃송이	36
뜨거운 불앞에서	39
국경도시의 밤	40
미 소	40
메아리	41
병사를 사랑하라.....	45

뜨거운 지심	46
새 땅의 새 열매	48
행복과 보람을 두고	49
청춘의 내 고향	50
무엇인가 청춘의 사랑이란	51
교원의 모습	51
정 든 고 장	52
귀향	53
막 장 길 (외 1 편)	66
내 잠시 생각에 잠겼는데	66
멀지 않아요	67
작가의 문체	68
소중한 마음	72
소 원	73
속담풀이	74
형상 수단과 수법의 활용에 대한 작가의 개성적 특성 문제	75
독자편지	78
대양만리 한끝에 가있어도	79
탄전의 저녁	79
새 계절	80

작가들은 현실체험을 깊이 하자

오늘 우리 나라는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의 원대한 구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의 기치밑에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지금 현실은 전국 영웅대회에서 발기한 전투적 호소따라 또다시 벌리는 충성의 200 일전투로 들끓고있으며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혁신과 비약이 일어나고 온 사회에 충성의 열정과 전투적 기백이 차넘치고있다.

우리 문학은 이 혁명적 현실에 보조를 맞추어야 하며 나날이 늘어나는 근로자들의 문화정서적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문학이 이러한 현실적 요구에 맞게 자기의 본분을 다하자면 모든 작가들이 그 어느때보다도 현실체험을 깊이있게 하여야 한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생활을 진지하게 체험하고 열렬히 사랑하는 작가, 예술인들만이 시대를 대표하며 력사발전을 추동하는 명작을 창작할 수 있습니다.》

현실은 창작의 무궁무진한 원천이며 사상단련의 용광로이다. 작가들이 현실속에 들어가 근로자들과 함께 일하면서 창작하여야 정치적 식견과 창작적 시야를 넓힐수 있으며 노동자, 농민을 주인공으로 하는 사상예술적으로 우수한 작품들을 창작할수 있다.

작가들이 현실체험을 깊이 하여야 하는것은 무엇보다먼저 우리 당이 요구하고 현실이 요구하는 문학작품들을 창작하기 위해서이다.

문학이 시대와 혁명 앞에 지닌 자기의 숭고한 사명을 다하자면 당의 요구, 현실의 요구를 잘 반영하여야 한다.

당의 요구, 현실의 요구를 잘 반영하여야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직한 우리 시대 인간들의 전형적인 성격과 그들의 지향과 념원을 깊이있고 생동하게 형상할수 있다.

당의 요구, 현실의 요구를 잘 반영하자면 작가들이 약동하는 현실과 함께 숨쉬며 시대의 맥박을 느껴야 한다.

온 나라가 또다시 200 일전투로 들끓고있는 우리의 현실에는 매 순간마다 사람들의 가슴을 무한히 격동시키는 무수한 위훈담이 꽃피고있으며 날마다 충성으로 빛나는 새로운 시대적 성격들이 자라나고있다,

우리 작가들은 이 장엄한 현실속에 들어가야 3대혁명의 기치를 높이 들고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인민들의 생활을 뜨겁게 느낄수 있으며 당의 요구

와 현실의 요구에 맞게 주체형의 새 인간들의 사상정신적 면모를 훌륭히 형상할수 있다.

그런데 지금 적지 않은 작가들은 현실에 나가지 않고 책상머리에서 글을 쓰고있다. 아무리 재간있고 관록있는 작가라 하더라도 현실을 떠나서는 생활을 진실하게 형상한 참다운 문학작품을 창작할수 없다.

생활을 깊이있게 체험하지 못한 작가가 쓴 작품은 손끝의 재간은 알리지만 생활을 긍정하는 뜨거운 심장의 박동은 느낄수 없다.

들끓는 현실이야말로 우리 작가들에게 생활도, 열정도, 재능도 다 안겨주는 비옥한 토양이고 창작의 무궁무진한 원천이다.

그런것만큼 모든 작가들은 현실체험을 위한 사업을 제도화하고 목적의식적으로, 계획적으로 조직진행하여야 하며 지난날 항일유격대원들이 그러했던것처럼 배낭을 메고 현실속에 들어가 노동자, 농민들과 생사고락을 같이 하면서 생활을 깊이 체험하고 생산현장에서 작품을 창작하는 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작가들이 현실체험을 깊이 하여야 하는것은 다음으로 문학작품의 진실성을 보장하며 끊임없는 창작적 양양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이다.

우리 문학이 시대적 전형을 형상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수천수만의 혁신적 인간들을 키워내는데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사상예술적으로 완벽하고 우리 시대 인간들의 본질적 특성이 깊이있게 체현된 불멸의 인간전형, 감동없이 읽을수 없고 충격없이 감수할수 없는 산 인간의 형상을 진실하게 창조하여야 한다.

작가들은 우리 시대 인간들에게서 발휘되는 사상정신적 특성들을 밝혀내고 그들이 이룩한 불멸의 위훈들이 어떤 인간적 아름다움과 정신적 위대성으로부터 산생되었는가 하는것을 인간학적으로 깊이있게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파헤쳐야 한다.

생활의 진실은 언제나 현실생활속에 있다.

현실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생활을 진지하게 체험한 작가에게만 생활은 진실을 말한다.

따라서 작가들은 생활의 진실을 발견하고 사회적으로 의의있는 문제를 제기한 사상예술성이 높고 철학적 깊이가 있는 문학작품을 창작하기 위하여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생활을 뜨겁게 느끼고 체험하여야 한다.

작가들의 불타는 열정과 왕성한 창작적 의욕은 현실속에서만 생겨난다.

작가들에게 있어서 현실체험을 진지하고 성실하게 잘하는것은 문학작품창작에서 끊임없는 양양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된다.

작가들이 현실체험을 잘할 때만이 사상에술성이 높은 문학작품을 창작할수 있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시인들과 작곡가들은 전선과 후방에서 생활을 체험하면서 뜨거운 열정을 안고 불타는 심장으로 가사를 쓰고 곡을 지었기때문에 가요 《전호숙의 나의 노래》, 《샘물터에서》, 《아무도 몰라》와 같은 인민의 사랑을 받는 명곡을 창작할수 있었다.

그러한 실례는 장편소설 《새봄》, 중편소설 《병사의 고향》 등 여러 작품들에서도 찾아볼수 있다.

장편소설 《새봄》의 작가는 다년간 농촌에서 생활하면서 해방직후 우리 나라 농촌의 복잡한 사회정치정세와 치열한 계급투쟁이 벌어지는 준엄한 현실을 진실하게 반영하여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걸작을 창작하게 되었다.

중편소설 《병사의 고향》와 작가는 수년간 탄부들과 함께 지하마작장에서 생활하면서 더 많은 석탄생산으로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충성다하려는 그들의 높은 정신세계를 심장으로 뜨겁게 느끼었기때문에 우리 시대 인간들에게서 나서자란곳만이 고향이 아니라 당이 부르는 혁명조소에서 청춘의 심장을 바쳐 보람있게 살 때 바로 그곳이 병사들의 고향이라는 생활의 새로운 철학을 발견해낼수 있었다.

작가들속에는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생활을 진지하게 체험하지 않고 책상머리에 앉아서 탁상문학을 하는 그릇된 경향이 있어서는 안된다.

벽찬 현실을 떠나 순수 탁상문학을 해서는 아무리 재간을 부려도 창작적 재능이 꽃필수 없으며 그러한 작가에게는 때이르게 창작적 로쇠가 와 심장이 식어지고 열정이 메달라서 환상이 나래치지 못한다.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생활을 체험하고 작품을 창작하는것은 혁명적인 창작기풍이며 항일유격대식사업기풍이다.

작가들은 사상에술성이 높은 혁명적 문학작품을 창작하기 위하여 현실체험을 성실하고 깊이있게 잘하여야 한다.

현실체험을 잘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우리 작가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우리 당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그에 기초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을 꾸준히 인내성있게 체험하여야 한다.

우리 당 정책은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의 지향과의사를 반영하고있다. 따라서 현실체험은 반드시 당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한 기초우에서 진행하여야 한다.

당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한 작가만이 기적과 혁신으로 들끓는 벽찬 현실속에서 새롭고 의의있는 생활소재와 종자를 골라잡을수 있으며 그것을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에 맞게 사상에술적으로 훌륭히 형상해낼수 있다.

당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지 못하면 현실속에서 본질적인것과 비본질적인것을 옳게 가려볼수 없으며 작품창작에서 시대와 현실발전의 합법칙성을 정확히 밝힐수 없다. 아무리 현실체험을 많이 한다고 하여도 당정책을 잘 알지 못하면 생활을 높은 정책적 안목으로 분석하고 일반화하여 옳게 형상해낼수 없다.

현실체험을 잘하기 위하여서는 또한 유람식으로 하지 말고 깊이있게 하여야 하며 정상화하여야 한다.

부단히 전진하며 발전하는것이 오늘의 우리 현실이다.

작가들이 발전하는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근로자들의 생활을 체험하지 않고서는 우리 시대 인간들의 불타는 사상정신세계를 옳게 감득할수 없다.

어떤 작가들은 현실체험을 수박겉핥기식으로, 바람이나 쏘이는 식으로 하는 현상을 극복하지 못하고있으며 현실체험을 이렇게 하여가지고서는 자신을 단련할수도 없다.

사실 이것은 유람이지 현실체험은 아니다.

현실체험은 말그대로 현실생활에 대한 깊이있는 체험이다.

현실체험을 깊이있게 하기 위하여서는 작가들이 벽찬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늘 군중과 같이 살고 일하며 하나의 숨결로 호흡하여야 한다.

현실체험을 잘하기 위하여서는 현실체험을 정상화해야 한다.

현실체험은 한두번하고 끝내는 일시적인것이 아니라 작가들이 일생을 두고 해야 할 일이기때문에 감빠니아적으로가 아니라 목적의식적으로 계획화하고 제도화하여야 한다.

작가들의 현실체험은 단순히 작품창작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자신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기 위한 더없이 좋은 기회인것만큼 자신들의 혁명적 수양을 쌓기 위하여서도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작가들이 현실체험을 실속있게 하는것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우리 문학작품의 사상에술적 수준을 한계단 높이는데서 결정적 의의를 가지는 더없이 중요한 문제이다.

우리 작가들은 다시한번 벌리는 충성의 200 일 전투로 들끓는 자랑찬 생활속에 뛰어들어 벽찬 현실을 깊이있게 체험함으로써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 위업수행에 적극 이바지하는 시대를 대표하며 력사 발전을 추동하는 사상에술성이 높은 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하여야 할것이다.

력사의 자욱우에

한찬보

초가집을 나서시여

우리 수령님

먼길 떠나신 그날의 자욱

여기 있어라

조국을 광복하고

개선하신 수령님

못잊을 그날의 자욱도

여기에 있어라

떠나시며 바라보신

토성랑의 움막집들

돌아오시며 보실 때에도

가난에 쪼든 오막살이집들

수난의 그 모습이

마음에 걸리시여

몸소 건국의 첫 삽도

에서 뜨신것 아니었던가

그늘진 그 모습들에

한껏 밝은빛 주시려

몸소 더전을 잡아주시고

이름도 락원거리라 지어주시더니

오늘은 또 그 거리에 이어

흰구름 감도는 하늘가에

화려한 새 집들을 세워주시는구나

그이께서 탄생하신 고향집은

수수하고 키낮은 초가집이건만

우리 인민에겐

층층 높은 집을 안겨주시니

그 은정 고마워

수천의 창문들 저리도 눈부시고

그 햇빛 따사로워

공원의 꽃들은 이리도

아름답게 피는것 아닌가

아, 력사의 자욱우에 일떠선

광복거리여, 너는

인민을 위한 수령님 사랑

날마다 달마다 층층이 고여

그리도 높이 하늘가에 솟는것이여라

평양교외 한 관리위원장의 이야기

권강일

박꽃처럼 하얀 구름 떠흐르는
좋은 날은 아니랍니다
머리위에 노상 해가 웃는
즐거운 한낮은 더욱 아니랍니다

아버이수령님
수십번도 нама
우리 농장 오신 날, 오신 시간은
언제나 이른새벽, 늦은 저녁녘

지새도록 비바람 몰아쳐간 새벽이면
푸릿한 벌끝에서 마주오시며
곡식들이 무사하니 마음놓인다고...

송구하여 어찌할바 모르는 저를
오히려 달래시며 환히 웃으시며
산보삼아 나왔으니 녀려말라고...

강냉이숲에 우중충 어둠이 깃드는
그날도 날저문 늦은 저녁녘
현지지도 먼길에서 돌아오시던 그이
발머리 큰길가에 차를 세우시고
우리들을 손저어부르시였어요

포전마다 시원히 적실
발관수의 물길도 정해주시고
밤늦어 떠나실 때
뜨겁게 안겨오던 후미등 불빛...

아, 그날도 얼마나 먼길 가셨으랴
무서리 철이르게 내린다고,
태풍예보 방송에서 들었는가고
가까운 벌은 가까워 터발처럼 여기시며
한밤중에 몰으시고 새벽참에 나오시고

먼 벌은 멀어서 품을 놓아가시니
아, 그래서 이 땅은
그늘진곳 따로없이
풍년작황 한빛으로 설레이는가

하나로 물결치는 온 나라 벌은
아버이의 한평생의 사랑이예요
짬도 없이 휴식도 없이
하루하루 날과 날을 가득히 채워
끝고루 비쳐주시는 해빛이예요

이 가을도 하늘 높고
해빛 눈부시니
불타는 마음 간절한 소원
이 좋은 날에 모시고싶어요

참으로 산보삼아 나오시여
평양 가까운 이 벌에서
온 나라 풍년벌을 다 바라보시게
이 땅의 기쁨을 다 안으시게

끝없는 세월속에 이어진 길

손광주

그날 그 저녁
집집의 프락도
웃으시며 밝으시고

노을을 밝으시며
터밭의 줄당콩순도
허물없이 바로세워주시고

어버이수령님
별들이 내리는 그날 그밤
소문없이 떠나가신 길우에
목메여 서보던 그날처럼
언제나 내 마음 따라서는 길이어

백학이 훨훨나는
논두렁길 같이 걸어보시며
농사군의 힘든 일 헤아려주실 때
눈시울 후터워지던 그날도 있어,

보내주신 사랑의 기계에 얼굴 비비며
소조원들을 반가이 맞아들이며
분수식판개망이 꽃피난 발머리에서
고마움에 젖어 바라보던 길
평양으로 이어져간 마을 앞길에
언제나 서보는 이 마음이어

꿈결에도 그리워 내 다시 서면

끝간데없이 설레이는 풍요한 대지여
나날이 꽃피는 저 마을길은
한마을의 동구밖에서 끝이나도
수령님 걸어오신 사랑의 그 길은
천리만리로 아득히 뻗어있구나

비오면
비물 흐르는 차창을 닦으시며
눈오면
눈발속을 기꺼이 바라보시며
어버이수령님 언제나 찾아오시는
길이어
너의 기슭은 어디나

저기 노을이 비껴간 이 땅 한끝까지
자옥자옥 소문도 없이
사랑으로 이어오신 그 길우에
수수천년 바라던 소원이 꽃피
온 나라와 어깨결고 나가는 그 한길로
내가 실려 온 마을이 실려 가는 길

아, 영원한 세월
사랑속에 이어지는 수령님 그 자옥자옥으로
길이어 !
행복한 래일에도
네가 이 땅에 뻗어있구나

가사

당을 따르는 전사의 노래

김석래

그 누가 즐거울 때 웃을줄 모르랴
시련의 파도 헤치며 신념의 노래 부르리
뿔고 가리라 불길속 천리라도
전사의 위훈만이 웃음을 퍼우네

그 누가 지켜볼 때 나서지 않으랴
캄캄한 어둠 헤칠 때 진심을 노래부르리

한목숨 아끼라 결사의 언덕에서
전사의 한생은 조국과 함께 있네

그 누가 하루길에 동행자 못되랴
2 천리 2 만리길에 의리의 노래부르리
끝까지 가리라 우리 당을 따라서
전사가 가는 길에 신심은 넘쳐라

총서 《불멸의 력사》는 우리 문학이 거둔 귀중한 재보

김흥섭

4. 15 문학창작단의 작가들은 항일혁명투쟁시기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를 체계적으로 형상한 총서 《불멸의 력사》 창작을 완성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력사상 처음으로 수령형상리론을 밝히시고 주체적인 소설창작리론을 가르쳐주시심으로써 총서 《불멸의 력사》의 창작적 지침을 마련하여주시였을뿐만아니라 총서창작사업을 조직지도하여주시였다.

참으로 항일혁명투쟁의 력사적 로정을 다 포괄한 총서 《불멸의 력사》 전 15 권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다.

장편소설권으로 항일혁명투쟁시기를 전면적으로 반영한 총서작품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를 예술적으로 부각한 기념비적 걸작들이며 그의 완성은 유구한 우리 나라 문학사에서 일대 경사이고 주체문학의 사상예술적 높이를 과시하는것으로써 가장 귀중한 문학작품의 하나로 된다.

총서 《불멸의 력사》의 장편소설들이 우리 문학의 귀중한 재보로 되는것은 첫째로 그것이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과 항일혁명투쟁사를 예술적으로 반영하여 시대와 인민 앞에 보여주고 후대들에게 력사적으로 길이 전하여주는 기념비적 대작들이기때문이다.

총서작품들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형상을 중심에 모신 대서사시적 화폭이며 그이의 위대성을 기본형상과제로 제기하고 밝힌 혁명적 대작의 묶음이며 수령님의 항일혁명투쟁사를 전면적으로 수록한 력사문헌과 같은 의의를 가지는것이다.

조선혁명의 참다운 시원을 열어놓고 그 깊은 력사적 뿌리를 마련하시였으며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구원한 항일혁명투쟁은 경애하는 수령님이시야말로 민족의 태양이시며 전설적 영웅이시며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인민의 수령이시라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간고한 지하투쟁과 피어린 무장투쟁으로 이어진 항일혁명투쟁사의 로정에는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이 찬연한 빛을 뿌리고 있다.

그러므로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의 오랜 력사를 체계적으로 대서사시적 화폭에 전개하여 형상한 작품은 거기에 담겨있는 가치있는 내용으로 하여 참으로 귀중한 재보로 되는것이다.

총서작품들은 항일혁명투쟁사우에 새겨진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을 체계적으로 전면적으로 반영하고있다.

총서작품들이 우리 문학의 귀중한 재보로 되는것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과 불멸의 혁명력사를 예술적으로 확인하고 대를 두고 그것을 전할수 있게 되었을뿐만아니라 그를 인간학적 요구에 맞게 높은 수준에서 형상하고있기때문이다.

총서작품들에 관통되고있는 중요한 형상적 특성은 모든 형상 수단과 수법, 형상요소와 구성요소들을 다 동원하여 경애하는 수령님의 형상을 집중적으로 묘사하고있는것이다.

인간관계의 중심에는 어느 작품이나 사령관동지께서 계시며 사건과 감정조직, 일화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형상요소들이 경애하는 수령님의 형상창조에 집중되고있다. 이로부터 사령관동지의 위대한 품모가 력사와 생활자체처럼 다양하고 심오하게 묘사되였다.

총서작품들에 묘사되고있는 항일혁명투사들은 가장 아름답고 고상한 자주적 인간의 전형으로서 우리 소설문학이 창조한 혁신적 성격들이다. 총서의 서사시적 화폭속에 전개되고있는 항일혁명투사의 성격형상들은 주체혁명위업의 자랑스런 력사를 확증하고있으며 오늘의 세대뿐만아니라 대를 두고 혁명교양의 본보기로 삼아야 할 전형들이다.

항일혁명투사의 전형들은 혁명적 수령관의 전통과 그 발전력사를 생동하게 보여주고있다.

장편소설들인 《고난의 행군》, 《준엄한 전구》, 《두만강지구》 등에 모셔진 김정숙동지, 장편소설 《대지는 푸르다》의 현옥, 차광수, 장편소설 《압록강》의 권영벽, 최현, 장편소설 《준엄한 전구》의 오중훈의 형상들은 혁명적 수령관의 전통을 마련하는데 이바지한 전형이면서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을 심오히 밝히고있는 충신들이다.

장편소설 《백두산 기슭》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민족의 구성이시며 한없이 자애로운 장군님의 위대한 품을 찾아 눈덮인 밀림과 진펄을 헤치고 굽주림과 일제의 총검을 무릅쓰고 사령부로 모여드는 충성의 별들의 형상이 감격적으로 그려져있다. 리경준, 최선금, 장기령, 윤철녀, 한남실 등의 형상은 경애하는 사령관동지를 태양으로 우러러모시고 충성의 한길에서 끝까지 싸우려는 불굴의 신념이 날

은 성격들이다. 이 신념의 기초에는 장군님의 위대성에 대한 역사적인 체험과 신조가 놓여있다. 이렇게 형성된 사상감정은 꺾을수도 없으며 뿌리깊은것으로서 항일혁명투사들의 전형적성격의 중요한 징표인것이다.

총서작품들에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인간군상들이 묘사되고있다. 소설들은 이들의 성격을 통해서도 사령관동지의 위대성을 확인하고 부각하고있다.

장편소설 《혁명의 려명》의 리갑무로인, 장편소설 《대지는 푸르다》의 변태익, 장편소설 《압록강》의 박인진, 장편소설 《준엄한 전구》의 최인관의 형상들은 원형에 기초하고있는 예술적 전형으로서 산전수전 다 겪은 오랜 력사의 체험자로 일반화되어있다. 그러기에 이들은 력사적 진실성과 폭을 가지고 사령관동지의 위대성을 더 높이 칭송하고있다.

이와 같이 총서작품들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형상을 중심에 높이 모시고 모든 사건이나 일화들뿐 아니라 특히 인물성격을 통하여 그이의 혁명가적 풍모와 인간세계의 위대함을 형상하고있다.

참으로 《불멸의 력사》는 수령형상이 본질에 있어서 그의 위대성의 형상화에 있다는것을 본보기로 훌륭히 보여주고있다.

수천년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한 경애하는 수령님을 문학예술의 여러 형태들에 모시고싶어하는것은 시대와 인민의 한결같은 소망이다.

단편소설이 아닌 장편소설은 끝없는 전개력의 우월성으로 하여 대서사시적 화폭우에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을 잘 형상할수 있다.

그러므로 대장편소설권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형상을 전면적으로 체계적으로 훌륭히 형상하고있는 총서작품들은 시대의 지향과 인민대중의 요구에 충분히 대답을 준것으로써 큰 문학적 재보로 되는것이다.

나가서 오늘 우리 시대 사람들뿐아니라 미래에 살게 될 후대들까지도 이 장편소설권을 보면서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을 깊이 인식하고 충성으로 영원히 우러러모시게 되었으니 총서작품들은 대를 두고 전하여야 할 주체문학의 귀중한 재보이다.

총서 《불멸의 력사》가 우리 문학의 귀중한 재보로 되는것은 둘째로 그것이 높은 사상예술성을 가진 새로운 형식의 혁명적 대작인것으로 하여 주체적 문학예술의 대전성기를 더욱 빛나게 함으로써 우리 문학발전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고있기때문이다.

《불멸의 력사》는 높은 사상예술성으로 하여 우리 문학 특히 소설문학의 사상예술적 수준을 더욱 높이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총서작품들은 인류사상사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것을 항일혁명투쟁의 준엄한 현실속에서 발전풍부화시키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력사를 진실하게 반영하고 있는것으로 하여 참으로 높은 사상성을 과시하고있다.

《불멸의 력사》에서 처음으로 개척되고 빛나는 성과를 이룩한 새로운 소설형식인 총서형식은 그의 높은 사상예술성을 담보하여주고있으며 소설문학 발전에서 획기적 사변으로 되였다.

높은 사상예술성은 내용과 형식의 완벽한 결합의 산물이며 심오한 내용에 알맞는 새로운 형식의 조화에 의하여 보장된다.

위대한 수령의 위대한 력사를 전면적으로 형상하기 위하여서는 그의 내용에 맞는 새로운 소설형식이 요구되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마련하여주신 총서형식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직전개하신 항일혁명투쟁을 매 단계별로 한 작품씩 반영하면서도 그것을 전일적인 체계속에 통일적으로 재현하고있는것으로 하여 하나의 새로운 소설형식으로 되는것이다.

새로운 소설형식인 총서형식에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을 형상한것으로 하여 그 작품들이 문학적 재보가 될수 있는 높이에서 사상예술적으로 훌륭히 창작될수 있었다.

소설사는 지금까지 이렇듯 커다란 폭과 깊이에 있어서 거대한 서사시적 화폭을 전하지 못하고있다.

혁명투쟁사 가운데서 가장 풍부하고 간고한 경애하는 수령님의 항일혁명투쟁사는 응당 가장 넓은 폭과 깊이가 보장될수 있는 규모여야 한다.

그런 규모와 화폭은 오직 총서형식만이 줄수 있으며 《불멸의 력사》는 그것을 높은 사상예술적 경지에서 해결하였다.

총서형식에 위대한 력사를 담은것으로 하여 항일혁명투쟁의 전력사적 과정에 있었던 의의있는 력사적 사건과 정치적 사변, 중요한 로선과 방침, 회의와 전투 등의 본질적 과정이 전면적이고도 체계적으로 재현될수 있었고 경애하는 수령님의 형상과 수령님의 령도사가 대화폭속에 빛나게 부각되었으며 수령님의 절대적 지위와 결정적 역할이 심오하게 형상될수 있었다.

총서 《불멸의 력사》는 력사문헌적 성격을 가진 소설창작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여 가치있는 창작경험을 축적하였으며 그 본보기가 될수 있는 사상예술적 성과를 이룩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력사소설의 창작력사는 오래다고 할수 있으나 력사문헌적 성격을 띤 소설창작은

해방후 위대한 수령님과 그이의 혁명적 가정을 형상하는 작품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수령형상론과 총서형식의 특성을 가르쳐주시기전까지는 역사문헌적 성격의 소설의 정연한 모습을 가지고 창작되지 못하였다.

총서 《불멸의 역사》는 역사적 의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문헌적 성격을 지니고있는 훌륭한 장편 소설들이다.

총서작품들은 거기에 반영되는 시기에 있었던 의의있는 역사적 사건과 사실들을 본질적 각도에서 진실하게 묘사하고 그 의의를 전면적으로 밝힘으로써 진정으로 역사문헌적 의의를 가지게 되었다.

총서작품의 역사문헌적 성격은 그의 창작목적과 사명을 더 훌륭히 수행할수 있게 하여 대작의 내용의 진리성과 심오성을 더욱 강화시켜준다.

총서작품들은 항일혁명투쟁시기의 역사를 단순히 복사하고있는것이 아니라 역사적 사건이나 사실의 본질을 깊이 그림으로써 근로자들로 하여금 그것을 정확하고 심오하게 인식하게 하며 준엄한 투쟁속에서 이루어진 혁명전통의 재부가 얼마나 고귀한것인가를 알게 하고 그의 경험과 교훈, 의의를 충분히 밝혀내고있다.

총서작품들이 다 그러하지만 장편소설 《백두산기슭》도 실재한 역사적 사실에 충실하면서 그 시기에 있었던 중요한 역사적 사건을 놓치지 않고 묘사하고있으며 그 본질과 의의를 전면적으로 밝히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미혼진에서 조선인민혁명군 군정간부회의를 여시고 남포도회의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방도를 제시하시는것과 부대를 재편성하시는 장면, 마안산에서 앓고있는 아동단원들에게 자신의 외투를 덮여주시고 강반석어머님께서 주신 돈 20 원으로 아이들의 옷을 해입히시는 장면, 푸르히 전투와 동강회의에서 조국광복회를 창건하시는 장면 등 대작에 그려진 사건들은 다 역사적사실에 기초하고있으며 그의 바탕에 깔려있는 생활을 분석적으로 묘사하면서 그 본질과 정치적, 군사적, 역사적 의의를 폭넓게 밝히고있다.

소설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100 여명의 《민생단》 협의자들에게 정치적 생명을 안겨주시는 장면을 단순히 사실의 생동한 전달에 그친것이 아니라 그 결과 혁명대오가 어떻게 강화되었으며 그들이 어떻게 끝까지 정치적 생명과 혁명적 지조를 지쳐 영웅적으로 투쟁하였는가를 보여줌으로써 역사적 사실의 본질과 의의를 깊이 밝히고있다.

총서작품들은 역사문헌적 성격을 보여주고있으면서도 장편소설의 미학적 요구를 심오히 구현하여

높은 형상수준을 보장하고있다. 그리하여 진정으로 역사문헌적 장편소설로 되고있으며 우리 소설문학을 더욱 발전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하고있다.

총서작품들은 역사적 사건자체를 이야기줄거리로 하거나 그것을 기초로 하여 줄거리를 조직하거나를 막론하고 사건조직과 감정조직을 일치시키고 감정조직을 기본으로 하여 구성을 짜고있다.

이로부터 항일혁명투쟁의 대서사시적인 역사적 화폭을 보여주면서도 품위높은 소설작품이 창작되었다. 총서작품의 높은 예술적 수준을 파시하는 진정한 구성미는 여기에 있다.

장편소설 《준엄한 전구》는 역사적 사건의 발전로정을 따라가면서 이야기줄거리를 조직하면서도 거기에 사랑과 충성의 감정선을 밀접히 결합시키고 감정조직을 기본으로 구성을 짜고있다.

오중훈은 대부대선회작전의 개막을 알리는 룡파송전투에서 전사했으나 그의 감정선은 작품의 절정인 홍기하전투까지도 줄기차게 흐르고있다. 오중훈이 남겨놓은 수첩이나 제강, 통줄임이나 찻쌀, 기관총 등의 기물을 보는 사람들의 사상감정을 진하게 묘사하고 생활의 갈피마다 스며있는 그에 대한 감정을 찾아 그리였다.

사실 총서작품들은 사령관동지와 항일투사들의 심오하고 풍부한 사상감정의 발전과정을 중심으로 보여주고있는 거창한 정서적 화폭이다.

우에서 본 총서작품들의 일반적이며 공통적인 형상적 특성과 사상예술적 성과들은 《불멸의 역사》중의 매 장편소설의 특성과 창작적 개성을 도외시하는것이 결코 아니다.

총서작품중의 매 장편소설들은 하나의 총서로서의 구성체계속에 위치하고있으면서도 독자적으로 완성된 작품으로서 특색과 개성이 뚜렷한 대작들이다.

여기서 매 작품들의 특색은 개성적인 종자와 각이한 혁명단계의 생활내용, 작가의 창작적 개성 등에 의하여 조건지어지고있다.

그 특색을 양상과 문체의 측면에서만 보아도 총서작품들은 다 영웅서사시적이며 숭고한 양상이다.

그러나 장편소설 《준엄한 전구》는 그와 함께 서정적이며 낭만적인 색깔이 강하며 장편소설 《고난의 행군》은 보다 심각하고 철학적이며 장편소설 《근거지의 봄》은 뜨겁고도 정서적인 사상감정이 숭고하고 영웅적인 색조와 결합되어있다.

총서작품마다 언어문체에서도 창작적 개성이 빛나고있다. 총서작품들은 수령 형상소설인것만큼 일반적으로 다른 주제의 소설들과는 다른 문체상 특성을 가지고있다.

총서작품들의 언어문장은 보편적으로 정확하고 깨끗하며 숭고하고 간결하다.

총서작품들의 언어문체가 이와 같은 일반적 특성에 기초하고있으면서도 작품마다 또한 개성적이다.

장편소설 《준엄한 전구》에서 전사한 오중훈 현대장을 묻는 장면의 한 세부를 보면 다음과 같다.

《그이께서는 외투자락을 펼쳐드리고 오중훈의 몸무에 조심스럽게 덮어주시었다. 발치로부터 허리와 가슴으로 천천히 덮어올라가시던 그이께서는 머리는 덮지 못하시고 손을 멈추시었다. 그러시고는 다시 한무릎 세우고 앉으시여 표정없는 오중훈의 얼굴을 하염없이 들여다보고계셨다. 둘러싼 지휘관들이 모두 고개를 옆으로 꺾었다. 너대원들속에서 흐흑 흐느끼는 소리가 일어났다. 사령관동지께서는 언제까지나 움직이지 않으실듯 오중훈의 머리맡에 앉아계셨다.》

어휘들이 구체적이고 감각적인것으로 선택되었으며 비유도 없고 분석도 없다. 대상의 본질을 심오히 보여주는 소박하나 생동하고 정서적인 어휘로 문장을 길게 짜지 않고 단순하게 조직하고있다.

참으로 작가의 정서적인 개성적 문체와 장편소설 《준엄한 전구》의 서정적인 양상의 특성을 살리는 정서화된 문장이다.

그리하여 사령관동지와 대원들의 행동은 가슴속에 소용돌이치는 감정의 발현으로 그려졌다.

총서작품마다 양상과 문체를 비롯하여 특색이 있기때문에 항일대전의 전설적 령장이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형상이 각이한 색깔의 아름답고 고상한 서사시적 화폭속에 전면적으로 그려질수 있었으며 높은 사상에술성을 보장할수 있었다.

총서작품들의 높은 사상에술성은 작가들의 풍부한 기량의 반영이며 거기에는 세련된 기교가 빛나고있다.

방대한 인간군상과 영웅서사시적 대화폭의 조화, 거대한 역사적 사건과 일화, 세부 등의 유기적 결합, 인물성격의 개성적 탐구와 성격장성과정의 설득력있는 추구, 깊이있고 분석적인 언어구사, 개성적이고 독창적인 형상수법의 리용 등에서 총서작품들의 높은 기교가 빛나고있다.

총서작품들은 우리 문학발전에서 특기되어야 할 사상에술성이 높은 기념비적 대작인것으로 하여 주체적 문학예술의 대전성기를 열어놓고 빛내이게 하는데 크게 이바지한 재보이다.

총서 《불멸의 력사》가 우리 문학의 귀중한 재보로 되는것은 셋째로 그것이 근로자들속에서 혁명적 수령관을 세워주며 그들을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시킬수 있게 하는 힘있는 교양수단으로 되기때문이다.

문학작품의 가치는 중요하게 그의 사회혁명적 기능과 사명의 수행능력에 달려있다. 인민대중에 대한 사상교양과 미학정서적 교양정도는 그 작품들의 문학적 재보로서의 가치를 규정하는 중요한 척도로 된다.

총서작품들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주체혁명위업을 개척하시고 령도하신 영광스러운 력사를 진실하게 반영함으로써 혁명투쟁에서 수령의 절대적 지위와 결정적 역할로 근로자들을 힘있게 교양하며 사령관동지를 끝없는 충실성으로 모심으로써 혁명적 수령관의 전통을 마련하는데 이바지한 항일혁명투사들의 형상을 통하여 사람들속에서 혁명적 수령관을 철저히 세우게 하여준다.

이 소설들은 긴 력사적 시기와 넓은 생활화폭으로 사람들에게 혁명적 수령관을 력사적으로 체험시키듯이 교양을 준다.

총서 《불멸의 력사》는 우리 혁명의 주체의 력사적 뿌리를 전면적으로 형상하고있는것으로 하여 혁명전통교양의 강력한 수단으로 된다.

총서작품에는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에 담겨있는 끝없이 귀중한 사상정신적 재부와 혁명투쟁의 고귀한 업적과 경험이 풍부히 담겨있다.

그러므로 이 대작들은 커다란 감화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혁명전통으로 무장시킬뿐아니라 혁명투쟁의 경험과 방법까지도 다양하게 구체적으로 가르치고있는 혁명전통교양의 백과전서라고 말할수 있다.

일반적으로 문학작품을 생활의 교과서라고 하지만 총서작품은 참으로 위대하고 혁명적인 생활의 교과서이며 아름답고 고상한 생활의 교양자이다.

소설들에 풍부히 묘사된 항일혁명투사들의 생활은 진실로 아름답고 깨끗한 생활의 귀감이다.

인류문학사는 아직까지 사람들을 혁명적인 생활로 교양하며 진실한 생활로 이끌어주는 이렇듯 훌륭한 생활의 교과서, 교양자를 알지 못하고있다.

총서 《불멸의 력사》가 우리 문학의 귀중한 재보로 되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그것이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수령형상론과 소설창작론의 구현으로서 그이께서 몸소 지도하시여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이기때문이다.

총서작품의 성과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쌓으신 고귀한 업적으로 되는것은 거기에 그이께서 밝히신 수령형상론과 소설창작론이 집중적으로 구현되어있기때문이다.

그러므로 총서작품들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밝혀주신 주체적 창작리론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확증하는 귀중한 재보로 된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몸소 작품의 창작 방향을 주시고 종자도 바로 잡아주시었으며 력점을 찍어 형상하여야 할 장면과 창작실천에서 걸린 문제들을 일일이 가르쳐주시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현명한 지도가 있었기 때문에 총서 《불멸의 력사》는 수령형상작품창작에서 본보기가 될 수 있었으며 혁명적 대작과 장편 소설의 귀감이 될 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항일혁명투쟁시기를 반영한 총서 《불멸의 력사》의 완성은 수령형상소설문학의 새로운 발전단계를 열어놓았으며 그것은 우리 문학을 더욱 높이 발전시킬 수 있는 귀중한 밑천으로 된다.

우리들은 총서작품의 창작경험과 사상에술적 성과들을 더욱 발전시키고 수령형상작품과 해방후편의 총서창작에서 새로운 성과를 이룩해야 할 것이다.

앞길을 밝혀주시는 분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탄생기념일에 즈음하여 삼가 드립니다

넬슨 에스베노사 게레로

사람들 모두가
암흑속에서 모대기고있을 때
갈길 몰라 헤매일 때
해성과 같이 솟아오르신 그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투쟁의 길 밝혀주시였어라
사나운 폭풍 휘몰아칠 때
사람들 생사의 갈림길에서 몸부림칠 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인민의 자유와 해방의 길 밝혀주시였어라

지도자동지께서는 가르쳐주시였어라
순종하는것은 죽음
광명을 빼앗는것은 억압자들의 본성

투쟁 그것은 략탈을 반대하는것
투쟁 그것은 헛된 죽음을 반대하고
값있는 삶 누리는 길이라는것을

우리 그이께 간절히 바라노라
모진 바람 휘몰아칠 때
희망과 신심 잃고있는 사람들에게
앞길 비쳐주기 바라노라
혁명의 광휘로운 빛발로
나아갈 길 밝혀주기 바라노라

(필자는 베루 치끌라요종합대학 총장임)

삶의 태양, 위대한 령도자에 대한 숭고한 서사적 화폭

-장편소설 《아침해》에 대하여-

박용학

소설가 현승걸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숭고한 품모를 형상한 장편소설 《아침해》를 세상에 내놓았다.

우리 당의 위대성을 형상화한 장편소설로서는 《아침해》가 처음인것만큼 소설은 지금 웅당하게도 광범한 독자들속에서 널리 애독되고있다.

우리 당과 인민의 영명한 지도자이신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고매한 품모를 문예작품에 형상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작가, 예술인들의 뜨거운 열망이였고 일치한 념원이였으며 더는 미룰수 없는 시대적 요구이다.

장편소설 《아침해》는 바로 이러한 시대적 요구와 작가, 예술인들, 인민들의 절절한 념원속에서 창작발표되었다.

1

우리 당의 위대성을 형상한 사상예술적으로 우수한 문예작품을 활발히 창작하는것은 영광스러운 우리 시대가 작가, 예술인들 앞에 제기한 성스러운 혁명과업이다.

당의 위대성 형상에서 중요한것은 사상리론의 독창성과 전략전술의 위대성, 혁명과 건설에서 쌓아올린 불멸의 업적을 충성의 열정답아 칭송하는것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혁명과 건설에서 쌓아올리신 업적은 일찌기 력사가 알지 못한 불멸의 위대한 업적으로서 특징된다.

장편소설 《아침해》가 거둔 사상예술적 성과는 무엇보다먼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이룩하신 업적에서 빛나는 장의 하나를 장식하는 은률광산의 대형벨트콘베아건설에 깃든 사적을 형상함으로써 혁명과 건설의 영재로서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천리혜안의 통찰력과 비범한 예지, 무비의 담력을 격조높이 칭송한데 있다.

탁월한 령도자의 자질과 품격에서 중요한것은 천리혜안의 통찰력과 비범한 예지와 무비의 담력이다. 그것은 탁월한 수령, 위대한 령도자는 천리혜안의 통찰력과 비범한 예지를 지녀야 시대의 앞길을 밝혀주는 지도사상, 향도적 지침을 명시해줄수 있고 옳바른 전략전술에 기초하여 인민들의 자주위업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갈수 있기때문이다.

탁월한 수령, 위대한 령도자는 바로 천리혜안의 통찰력과 비범한 예지, 무비의 담력을 지니기에 혁명투쟁에서 착잡하게 뒤엎긴 사태속에서도 문제해결의 옳바른 열쇠를 정확하게 찾아내며 인민들에게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고 겹쌓인 난관을 뚫고 인민들을 승리의 한길로 이끌어간다.

장편소설 《아침해》의 작가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위대한 품모에서 중요한 측면을 이루는 천리혜안의 통찰력과 비범한 예지, 무비의 담력을 실제의 사실에 기초하여 깊이있게 그리는데 각광을 돌리고 그에 심혈을 기울이였다.

장편소설은 력사에 널리 알려진 은률광산의 대형벨트콘베아건설을 생활소재로 하고있다.

소설에서 보여주고있는바와 같이 1970년대 중엽, 다시말하여 1975년 6월 이전 시기 우리 나라 서부지구의 대광석생산기지의 하나인 은률광산의 실태는 말이 아니였다. 은률광산은 광산을 책임진 일군들과 이 부문 지도일군들의 무책임성으로 하여 버럭더미속에 싸여있었다. 광산은 버럭더미속에 잠겨 우물안처럼 좁아졌고 기증기는 팔을 펴고 일하기조차 어려운 형편이였다. 사태는 광산을 아주 폐광하느냐 마느냐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였다. 사태가 이쯤되자 소설의 주요인물의 한사람인 급속공업부 부총국장인 지승하는 국가에서 배정한 은률광산에 주기로 한 자동차를 비롯한 대형 기계설비들을 무산광산에 비법적으로 빼돌리는 행동까지 서슴없이 하였던것이다. 제단엔 어떻게 하나 황철만은 돌리자는 심산이었던것이다.

은률광산의 문제는 보통문제가 아니였으며 그것은 이 광산의 장래운명과 관련되는 심각한 문제였다.

광산의 책임일군의 한사람인 기사장 우창수는 이러한 실태를 반영하여 박토처리대책안을 내놓았는데 그에 의하면 광산이 버럭처리에만 전념하는 경우 황철에 쇠돌을 보장하는 일을 당분간 무산광산에서 말할수밖에 없다는것이였으며 생산을 중지하고 광산능력으로 버럭만 처리하려고 해도 국가적으로 대형 화물차와 굴착기를 각각 백대씩 보장받는것으로 보면 십년 걸려야 한다는것이였다. 광산 기술일군들이 내놓은 대책안은 이러하였다.

전문박토처리만 하해도 10년세월이 걸린다는 것이였다. 이것은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 아닐수 없었다. 광산의 박토처리는 실제상 불가능하다는 소리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였다. 광산의 이러한 심각한 사태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 무거워졌으며 광산의 운명을 두고 우려하였다.

그러면 과연 광산이 나갈 출로는 없단말인가.

소설은 문제를 이처럼 날카롭고도 심각하게 제기하고있다. 6 개년계획의 수행과도 관련되어있는 광산의 위치로 볼 때 사태는 자못 심각하였다.

작가는 폐광의 운명에 직면하고있는 광산과 박영진, 지승하를 비롯한 이곳 로동계급의 운명을 집결시키면서 사건을 전개시키고있으며 극을 조직해 나가고있다.

광산의 버럭처리라는 생산기술적인 문제를 다루고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자체의 처리문제에 집착된것이 아니라 생산실무적인 문제를 사람들의 운명문제, 정치적 생명을 빛내이는가 못빛내이는가 하는 예리한 문제로 전환시키고 사람들의 운명발전을 추구해들어갔다. 바로 여기에 이 장편소설의 미학적 특성의 하나가 있는것이다. 그렇기때문에 생산실무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하여 사건과 이야기줄거리가 펼쳐지고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심각한 극성이 있으며 소설은 시종 극적 긴장성을 띠고 사랑들의 심금을 틀어잡고있는것이다. 이것은 이 소설이 생산실무적인 문제를 깔고 다루고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철저히 인간문제로 전환시켰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장편소설에서 작가는 생산기술적인 문제는 하나의 《배경》으로 설정해놓고 박영진, 지승하를 비롯한 주요인물들의 생활과 투쟁, 그들의 운명문제를 파고드는데 초점을 두고있으며 그에 창작적 열정과 사색을 기울였다.

지난 시기 당의 위대성을 주제로 한 일부 소설들에서는 생산문제를 제기하고 그것을 사람들의 운명문제와 밀착시키지 못함으로써 작품이 실화나 덕성실기 그자체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한 부족점들이 있었다는것을 고려할 때 이 장편소설은 이면에서 혁신적인 측면을 보여주었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다.

당의 위대성을 형상한 소설들에서 특히 이 점을 강조하게 되는것은 생산기술적 문제들이 제기되는 경우에 그것을 사회적 문제성을 안고있는 인간문제, 사람들의 운명문제로 전환시켜야 당의 령도의 현명성, 정치적 생명의 은인이며 보호자로서의 당의 위대성을 생활적으로 심오히 형상할수 있기때문이다. 실지에 있어서 장편소설 《아침해》는 박토처리문제를 박영진, 지승하 등의 당에 대한 충실성의 문제로 전환시키고 그에 당의 령도선을 밀착시켜 형상함으로써 혁명과 건설의 영재로서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비범한 예지와 탁월한 통찰력을 힘있게 보여줄수 있었다.

광산의 모든 사람들이 광산이 나갈 길을 찾지 못하여 암중모색하며 고뇌속에서 나날을 보내고있을 때 오직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만은 난국을

타개할 출로와 묘술을 찾으시고 한 일군에게 광산을 구원할 대책을 세워보도록 과업을 주신다. 그러시고는 자정이 기운 깊은 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지승하를 전화로 부르시여 연구정형을 일일이 알아보고 실머리를 찾도록 사색의 기초를 어디에 두어야 하겠는가에 대하여 명철하게 밝혀주시는것이다.

사색의 기초, 지승하로서는 그것은 뜻밖의 문제가 아닐수 없었다. 전문기술자이기는 하였으나 지승하의 사고는 거기까지 미치기에는 너무나도 식견과 수준이 어리었다. 아니 그러한 자세와 관점에서 서러고조차 하지 않았던것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지승하에게 수송에서 당이 제시하고있는 방침에 사색의 기초를 둘데 대하여서와 은물에서는 벨트콘베아화를 실현해야 한다는데 대하여 현명하게 가르치시였다.

그처럼 안타까이 모색하던 문제가 순간에 확 풀리였다. 그것은 마치도 밤의 장막을 헤치고 비쳐오는 서광과도 같았다. 지승하의 안경속에서 눈빛이 번쩍하였다. 무엇인가 뇌리를 치는것이 있었던것이다.

은물광산의 우리 식 대형벨트콘베아화는 이처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빛나는 예지에 의하여 받기되였고 그이의 현명한 령도밑에 완성되였다.

소설에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뛰어난 통찰력, 무비의 담력을 지승하 등이 설계한 설계안을 근본적으로 수정하시고 완성시켜주시는 숭고한 형상을 통하여 더욱 가슴뜨겁게 묘사하고있다. 처음 설계에서는 청년광구에서부터 바다기슭까지 박토를 운반하게 되어있었던것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박토산으로부터 수십리 앞바다까지 벨트콘베아를 놓아야 한다고 하시면서 바다 한복판을 가로질러 능금섬까지 연장하고 다시 능금섬에서부터 곰섬, 청량도까지의 사이를 련결하는 대형벨트콘베아를 놓을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참으로 천리혜안의 통찰력과 비범한 예지, 무비의 담력을 지니시고 모든 문제를 통이 크게 작전하시는 창조와 건설의 영재이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만이 하실수 있는 위대한 구상이였고 설계였다.

작가는 이 장면을 다음과 같이 절절하게 묘사하고있다.

《…

이어 그이의 청청한 음성이 방안의 정숙을 흔들었다.

<우리가 왜 대형벨트콘베아를 바다 한복판까지 놓자고 하는가. 그것은 간석지를 다시말하면 새 땅

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은률광산버럭으로 바다를 막아 간석지를 얻자는것입니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웃음이 환하게 핀 얼굴을 들고 힘있게 손길을 틀어 직관물을 가리키시었다.

<은률광산을 구원하고 동시에 간석지를 얻자! 우리의 구상은 이렇습니다. 일거양득하자는것입니다. 박토산-이 화를 복으로,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키자고 합니다.>

...

...이때 지승하의 녀은 직관물이 아니라 저 멀리 은률광산과 그 앞바다에 가있었다. 바다복판으로부터 뻗어가는 방파제, 움겨지는 버럭산, 황금이 물결치는 간석지... 이것은 그야말로 위대한 구상이다. 세계적인 설계이다. 일순간에 천지개벽이 약속된 이 시각 그이를 우러러보는 지승하의 눈에 이슬이 맺혔다. 아, 위대한 분이시다. 비범한 예지를 지니신 위인이시다! 지승하는 자기 개인의 운명이 아니라 찬란한 미래가 약속된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생각하였다. 거기에 자기의 운명도 있는것이다.》

장편소설 《아침해》는 비범한 예지와 뛰어난 통찰력, 무비의 담력을 지니신 혁명과 건설의 영재로서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위대한 령도풍모에 대한 자랑높은 찬가이며 감동적인 서사시이다.

장편소설 《아침해》가 거둔 사상예술적 성과는 다음으로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고매한 인간애, 공산주의적 덕성을 심오히 형상함으로써 희세의 위인, 위대한 인간의 가장 숭고한 형상을 감명깊게 창조한데 있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는 탁월한 사상리론가, 혁명과 건설의 영재이실뿐아니라 우리 인민 모두를 사랑의 한품에 안아 정치적 생명을 빛내여나가도록 깊은 은정을 베풀어주고계시는 우리 모두의 자애로운 스승이시다.

장편소설 《아침해》에서 작가가 작품 마지막에 심장의 목소리로 힘주어 토로한바와 같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는 우리 삶의 태양이시다.

소설에는 로경숙과 주재현, 지승하와 박영진, 장필수와 로장권에 대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깊은 은정과 사랑, 공산주의적 덕성선이 판통되어있다.

장편소설에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숭고한 공산주의적 덕성을 주체의 인생관에 기초하여 형상화함으로써 위대한 령도자, 위대한 인간으로서의 지도자동지의 고매한 풍모를 그림에 있어서 새로운 일보전진을 하였다. 이것은 이 소설이 지난 시기의 우리의 일부 작품들에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덕성을 그림에 있어서 덕성 그자체를 형상하는데 머물렀을뿐 그 덕성이 지도자동지의 어떠한 인생관으

로부터 흘러나왔는가 하는가를 파고들어 깊이있게 묘사하지 못했던 실정에 비추어볼 때 형상창조에서 새로운 경지의 개척이라고 확신성있게 말할수 있다.

주재현부부를 접견하고 돌려보내고나서 먼 호수가를 바라보시면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한 일군에게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신다.

《자본가들은 일생을 바쳐 금과 보석과 재물을 모읍니다. 그러나 우리 혁명가들은 일생을 바쳐 사람을 찾고 혁명동지들을 모읍니다. 우리한테 재산이 있다면 그것은 혁명동지들입니다. 우리한테서 최대의 실수는 사람을 잘못보는것이고 최고의 기쁨은 참된 사람을 찾았을 때입니다.》

일생을 바쳐 뜻을 같이하는 혁명동지를 찾고 모여 혁명동지를 가지고있는것을 커다란 재산으로 여기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사람들에게 대한, 혁명동지들에 대한 이러한 주체의 혁명적 관점으로부터 출발하시여 이름없는 혁명전사들을 친히 몸가까이에 부르시고 뜨거운 은정을 부어주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혁명전사들의 정치생활에 조금이라도 흠이 생길세라 전사들의 잘못을 두고 그 누구보다도 가슴아파하시고 깨우쳐주시며 믿음을 주시여 정치적 생명을 영원히 빛내여나가도록 따듯이 보살펴주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품은 진정 위대한 아버지의 품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크나큰 기쁨과 만족도 바로 귀중한 혁명동지들을 만났을 때이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전쟁시기에 만나셨던 로경숙과 주재현을 이젠 오랜 세월이 흘러갔으나 잊지 않으시고 구미에 맞는 식사까지 마련해주시면서 부어주신 그 뜨거운 사랑과 믿음, 사업에서 엄중한 과오를 저지른것으로 하여 고민속에 있던 지승하에게 믿음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여 현직에 그대로 두고 현장에 내려가서 버럭치리문제를 책임지고 연구하도록 뜨거운 배려를 돌려주신 아버지사랑, 광산의 책임일군으로서 당정책을 옳바로 관철하지 못하여 광산을 오늘과 같은 지경에까지 이르게 한 자책감으로 하여 밤이나 낮이나 늘 괴로운 심정을 누를길 없어하는 박영진을 엄하게 탓할대신 지배인으로서 일을 잘할수 있도록 집문제부터 풀어주시는 크나큰 사랑, 백발이 성성한 한 전사가 료양소에서 병치료를 하고있다는것을 아시고는 것처럼 귀중한 시간을 내시여 장필수를 찾아 고무를 주시는 그 거룩한 사랑, 이름없는 한 로광부를 친히 당중앙위원회까지 부르시여 무릎을 마주하시고 광산형편을 료해하시며 뜨거운 은정을 베푸시는 로동계급에 대한 그 지극한 사랑, 장편소설에는 참으로 혁명전사들에 대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믿음과 사랑이 차

고넬치고있으며 그것은 은정과 사랑의 대하를 이루고 작품전반에 굽이쳐 흐르고있다.

장편소설 《아침해》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숭고한 형상을 중심으로 하여 로경숙부부와 지승하와 박영진 그리고 장필수와 로장권 등의 인물형상을 통하여 수령과 전사 사이, 위대한 령도자와 전사 사이는 혁명적 동지애와 의리로 이루어져있다는

생활의 진리를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이와 함께 장편소설은 혁명전사들에 대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뜨거운 사랑과 믿음, 그에 충성으로 보답하려는 장필수와 지승하, 로장권을 비롯한 충신들의 형상을 통하여 수령, 당, 대중은 하나의 생명으로 결합되어 운명을 같이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는 서로 도와주고 사랑하는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의 관계가 이루어지며 혁명적 의리와 동지애는 수령과 전사, 위대한 령도자와 전사들 사이의 관계에서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표현된다는 우리 생활의 진리를 형상적으로 깊이있게 확인하고있다. 이것은 이 소설이 당과 인민대중이 한덩어리로 뭉쳐있는 우리 생활의 새로운 혁명적 료리, 진리를 미학적으로 힘있게 확인하여주고있다는 것을 말하여준다.

2

장편소설 《아침해》는 형상창조의 측면에서 새로운 진일보를 보여줌으로써 앞으로 당의 위대성을 형상한 장, 중편소설창작에 귀중한 미학실천적 경험을 주고있다. 이것이 이 소설이 거둔 귀중한 성과의 하나이다.

여기에서 무엇보다먼저 지적할것은 《아침해》에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령도선을 중심으로 하여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고 생활도 다양한 측면에서 반영되어있으나 소설에는 갈등선이 설정되어있지 않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상주제적 파제가 훌륭히 수행되었다는것이다. 다시말하여 장편소설에서 작가는 갈등선의 설정 없이도 방대한 생활자료를 성과적으로 다루고 인간관계를 극적으로 맞물렸을뿐아니라 작품이 제기한 기본문제인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는 우리 삶의 태양이시다는 사상적 알맹이를 심오한 예술적 형상을 통하여 설득력있게 보여주는데 성공할수 있었다는것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갈등의 내용과 형태는 작품의 종자와 반영하는 생활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규정되는것이므로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다 일관된 갈등선을 설정하여야 한다고 말할수는 없습니다.》

장편소설 《아침해》는 혁명과 건설의 영재로서의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위대성, 우리 인민도

두의 정치적 생명의 은인이시며 자애로운 어버이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위대성을 격조높이 노래한 작품이다. 따라서 이 장편소설은 작품에 반영되는 생활과 종자의 특성에 의하여 갈등선의 설정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장편소설 《아침해》가 작품에 갈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종일관 독자들을 감동시키고 긴장시킬뿐아니라 극성을 조성하는것은 독특한 형상방법으로서의 감정조직이 잘된것과 중요하게 관련되어 있다.

미적 정서로서의 극성은 문예작품의 고유한 속성의 하나로서 필수적이지만 그것은 반드시 갈등에 의하여서만 조성되는것은 아니다.

장편소설에는 극구성의 측면에서 볼 때 반전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가는 작중인물들의 내면세계를 깊이 파고들어 묘사함으로써 시종 극성을 조성하고있으며 강한 미학정서적 감흥을 불러일으킨다.

이 장편소설에서의 감정조직은 중요하게는 당의 위대성에 대한 끝없는 감동의 감정정서와 당의 높은 뜻을 충성으로 받들어나가지 못한데서 오는 작중인물들의 자책감으로 표현된 감정정서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혁명전사들에게 돌려주시는 신임과 사랑에 감복하는 뜨거운 감정정서의 묘사에 의하여 이루어져있다. 이 세가지의 감정정서, 당의 위대성에 대한 감동의 감정정서와 자책의 감정정서 그리고 감복의 감정정서의 끊임없는 교차로서 장편소설의 감정조직은 되어있고 바로 그것으로 하여 소설의 사건은 발전하고있으며 총적으로는 작중인물들의 내면세계가 깊이있게 개방되고 구성의 립체미가 확고히 보장되고있다. 따라서 이 장편소설에서의 극성도 당의 위대성에 대한 끝없는 감동의 감정정서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베푸시는 신임과 배려, 숭고한 인간애에 접한 감동의 세계에 대한 깊이있는 사실주의적 묘사에 의하여 힘있게 담보되고있다.

감동의 세계에 대한 깊이있는 묘사에서 오는 극성이 바로 이 장편소설을 탄력성있게 만드는 기본요인이며 사건발전에 진실성과 설득력을 부여하는 작용을 한다.

소설에서 감동적으로 묘사된바와 같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난문제로 되어있던 광산의 버력을 벨트콘베어로 서해바다 가운데까지 운반하게 함으로써 드넓은 땅을 얻을데 대한 웅대한 구상을 펼쳐주시였을 때 당의 위대성앞에서 끝없는 걱정의 세계에 휩싸이는 작중인물들의 감정정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바위도 녹일 숭고한 인간애를 베풀어주시였을 때 그 사랑앞에서 가슴들먹이는 감동의 세계에 잠기는 로경숙부부와 지승하, 장

필수 등의 내면세계에 대한 심오한 묘사에서 오는 극성만을 보더라도 그것은 극을 떠밀고나가는 추동력으로 되며 깊은 감동과 철학적 사색, 지울수 없는 여운을 조성하는 주되는 형상적요인으로 되고있다. 원래 사람들을 극적으로 긴장시키고 아름다운 정서를 자아내는 극성은 인간관계의 극적 대립에서뿐 아니라 중요하게는 아름답고 고상한 사상정신세계에 접하여 깊이 감동되었을 때에 발현되는것이다.

장편소설 《아침해》의 작가는 작품에 반선을 설정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이 독창적으로 밝힌 극조직의 기본으로서의 감정조직에 대한 미학리론을 소설창작에 훌륭히 구현함으로써 종래의 극구성으로서의 생각조차 할수 없었던 장편소설과 같은 대형식의 작품에서 반선이 없이 사상주제를 천명하는데 성공할수 있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 당의 위대성과 공산주의적 덕성을 기본주제로 하는 장편소설창작에서 소중한 경험으로 되며 극구성영역에서의 하나의 긍정적 시사로 된다.

다음으로 지적할것은 이 장편소설에 다른 소설들과는 달리 눈에 띄우게 특징적이고 인상적인 세부묘사들이 적지 않게 주어져있는데 그것들이 인물 성격과 형상을 부각시키는데 효과적으로 복무하고 있다는것이다. 세부로 깊이 파고들며 그것을 재치있게 묘사하는것은 이 작가의 개성적 특성의 하나이라고 볼수 있다. 총서 《불멸의 력사》중의 장편소설 《백두산 기슭》과 단편소설 《대지》 등에서 볼수 있는바와 같이 이 작가는 세부의 깊은 탐구와 묘사에 남다른 작가적 사색과 열정을 경주하고있음을 알수 있다. 단편소설 《대지》에서의 들국화 세부만을 보더라도 얼마나 인상적이었으며 깊은 여운을 주었던가.

버럭산이 자연 그대로의 산으로 되어버려 산비둘기가 동지를 틀고있다는것에 대한 세부, 웃음많은 박영진지배인이 버럭치리난으로 하여 웃음을 모르는 사람으로 되어버린것을 특징화한 《웃음 많은 우리 아버지》의 그림세부, 광산을 떠나서는 순간도 살수 없는 인간임을 보여주는 박영진지배인이 어느날 밤 요란한 압축기소리가 몇자 잠에서 깨어났다는 세부 그리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송구스러워 몸둘바를 몰라하는 로장권에게 담배팩을 손수 쥐여주시는 은정깊은 사랑에 대한 세부, 이른 새벽 서해바다가 기슭에서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동행한 일군들과 로장권과 함께 몸소 조개구이를 하시는 그 가슴뜨거운 생활세부를 비롯하여 소설에는 깊은 철학적 사색과 여운을 주는 기품진 세부묘사들이 적지 않게 있다. 이러한 세부들은 참으로 하나를 통하여 열, 백을 헤아려보게 하며 생각하게 한다. 그리고 소설의 정서적 색깔을 돋구는데도 크게 이바지되고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로장권에게 주시는 담배팩에 깃든 은정과 사랑에 대한 세부와 조개구이에 스스로없이 참여하시는 생활세부만을 보더라도 그것은 그 얼마나 많은것을 생각하게 하며 우리

들의 심장을 뜨겁게 울려주는것인가. 과연 동서고금의 그 어느 나라 력사에 한 나라의 령도자가 이 름없는 한 로광부와 무릎을 마주하시고 공사를 의논한 일이 있었으며 인민들과 함께 조개구이에 허물없이 참석하시여 즐거움과 기쁨을 같이하고 고락을 같이한 일이 있었는가. 이런 일은 정녕 인민들속에서 나왔으며 늘 인민들속에 계시는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만이 하실수 있는것이다.

우리는 소설의 이 세부형상을 통하여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이시야말로 한없이 겸허하시고 소탈하신 인민적 성품을 천성적으로 지니신 위대한 령도자, 위대한 인간이시라는것을 가슴뜨겁게 느끼게 되는것이다. 우리는 이 세부형상을 통하여 항상 인민들속에 계시면서 인민들과 고락을 같이하시는 위대한 령도자를 높이 모시고 살며 혁명하는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뿌듯이 느끼게 되며 창조와 건설의 영재이시며 어버이이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를 해와 달이 다하도록 영원히 높이 우러러모실 불같은 결의를 더욱 굳게 다지게 되는것이다. 우리는 또한 이 세부형상을 통하여 인민들속에서 나온 인민의 수령, 인민의 령도자만이 지닐수 있는 겸허성과 소박성, 소탈한 품성을 다같이 소유한 위인이시라는 진리를 깊은 사색속에서 뜨겁게 받아안게 되는것이다.

우리는 이 장편의 실천적 경험으로부터 출발하여 놓고볼 때 소설문학의 사상예술적 수준을 한단계 높이는 고리의 하나가 바로 작가들이 들끓는 현실속에 깊이 들어가 그속에서 생동하고 참신한 생활세부들을 탐구하는데도 있다는것을 알수 있는것이다.

이 장편소설에는 형상창조의 측면에서 볼 때 이외에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숭고한 품모를 깊이 있게 보여줄수 있도록 그이를 중심으로 하여 인간관계를 잊을래야 잊을수 없고 뻔뻔해야 뻔수 없는 깊은 인연관계로 맺음으로써 당의 위대성을 열렬히 찬양하고 작중인물들의 내면세계를 깊이 파고든것과 같은 특성을 지적할수 있는것이다.

장편소설 《아침해》는 오늘 우리 작가, 예술인들앞에 나선 가장 긴절한 과업인 당의 위대성을 칭송한 첫 장편소설로서 성과를 거둔 작품의 하나이다.

우리 소설문학은 장편소설 《아침해》의 창작으로서 당의 위대성을 형상하는 작품창작에서 새로운 걸음을 내디디었다. 이것은 우리 문학의 영예이며 자랑이다. 우리 작가들은 혁명과 건설에서 우리당이 이룩한 불멸의 업적을 찬양하는 다양한 형식의 작품들을 활발히 창작함으로써 당의 문예전사, 당의 작가로서의 영예로운 사명과 본분을 다하여야 할것이다.

압록강의 영원한 흐름처럼

배민욱

(전호에서 계속)

《사공의 고향》

밤은 바닥없이 깊어가고있다. 고향의 도시는 생활의 닳을 내리고 못새마져 보금자리에서 단꿈에 취했는데 송화강의 소연한 여울물소리만 《동관호텔》의 창가를 두드린다.

온갖 편의가 보장된 정가로운 방이지만 우리는 좀처럼 잠들수가 없었다. 어찌 그렇지 않으랴, 오늘 우리는 길림에서의 마지막밤을 보내고있으니말이다.

활짝 열린 창가로 다가서니 밤하늘가에 높이 솟아 금백색의 빛을 뿌리는 배사공조각상이 한눈에 안겨온다.

만경창과우에 떠가는 외로운 쪽배, 모진 광풍에 뒤흔든 어디로 가고 산악같은 파도에 곤두박힐듯 뒤집힐듯, 허나 장알박힌 두손에 노를 억척스레 틀어잡고 사나운 파도를 맞받아나아가는 젊은 배사공, 그의 얼굴에는 티끌만한 주저도 동요도 없다. 해빛 밝은 기슭을 향해 힘껏 노를 젓는 그 장하고 미더운 모습...

사람들은 바로 이곳 길림을 《사공의 고향》이라고 부른다,

멀고먼 옛날, 인적없는 여기에 한 젊은 배사공이 찾아왔다고 한다. 백두산록의 길은 소나무향기를 담아내고 일사천리로 내달려온 송화강 맑은물을 이윽히 바라보던 젊은이는 양지바른 강기슭에 움막을 짓고 나루터를 꾸리었다.

어지러운 세파에 부대끼며 여기까지 밀려온 수난자들을 위해 사나운 강물을 헤가르며 노를 젓고 또 저었다. 그의 정성에 이끌리어 남쪽 강안에는 움막집이 하나 둘 생겨났고 거리와 마을이 일떠섰다고 한다.

그때로부터 얼마나 오랜 세월이 흘렀던가. 때로는 탁류속에서 또 때로는 소용돌이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신화와 같은 무릉도원을 찾고저 이곳에서 운명의 닳을 올렸고 희망의 노를 저어왔었다.

하지만 그들이 이처럼 애타게 갈망하던 무릉도원은 어디? 그 안타까운 갈망속에 꽃은 피고 지는데 말없이 흐르는 송화강은 력사의 증견자마냥 자기의 일렁이는 물결우에 세월의 자욱을 력력히 적어놓았다.

오늘 다시 력사의 자취를 더듬어보노라면 바로 그 인류문명사의 한페이지에는 우리 조선혁명이 닳을 올리고 인류리상향을 향하여 곧바로 헤쳐온 준엄하였으나 자랑찬 배길이 뚜렷이 새겨져있는것이 아닌가! ...

우리가 방문하였던 길림육문중학교의 교무주임은 마치 오래동안 헤어졌던 친동기를 만난듯 반가와 어쩔줄을 몰라했다. 그는 우리와 함께 항일의 전설적 영웅이신 위대한 **김일성**장군의 동상을 모시고 혁명사적관앞에서 사진을 찍었다.

허리를 치는 숫눈길을 헤치고 오르신 백두산마루, 어깨에 걸치신 외투자락은 눈바람에 펄럭이는데 한손에 쌍안경을 쥐시고 방금 일본제국주의자들을 쳐물리친 조국의 산발을 굽어보시는듯한 청년장군의 거룩한 그 모습, 우리는 마치 자신이 그 피끓는 년대기우에 함께 서있는듯한 숭엄한 감정에 사로잡혔다.

교무주임은 자기들이 지성껏 꾸려놓은 위대한 수령님의 사적관에 우리를 안내하였다. 그는 우리 모두에게 《길림육문중학교》 학생회장을 정히 맡아주고는 우리의 이름들을 학생명단철에 한자한자 적어넣어주었다.

우리는 새로 입학한 이번 학생들마냥 위대한 수령님께서 공부하시던 책상앞에 경건한 마음으로 다가섰다.

우리의 귀전에는 학생들의 앞장에 서시여 매국역적교원을 규탄하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우렁우렁한 음성이 들려오는듯싶어 가슴이 후터워났다.

바로 이 교실문을 조용히 나서신 그이앞에는 얼마나 아름답고 간고한 혁명사업이 기다리고있었던가!

우리의 눈앞엔 위대한 수령님께서 혁명의 진로를 밝히시기 위해 밤을 지새우시던 북산공원의 약왕묘지하실이 밝혀왔다.

...인류에게 약과 밥을 마련해주려고 백가지 풀뿌리를 맛보고 백가지 열매를 먹어보다가 독을 입어 생을 마친 신농씨를 잊지 않으려고 세웠다는 약왕묘, 목탁소리가 절주있게 울리는 약왕묘의 뒤편 진회색 벽돌 당장에는 아름답리나무로 반나마 가리워진 작은 쪽문이 나있다. 그 쪽문밖으로는 울창한 나무와 무성한 풀숲으로 덮인 오솔길이 산아래로 곧장 통하고있다.

...

스르륵, 스르륵, 풀대들이 움직이는 소리가 먹물을 풀어놓은듯한 어둠속에서 차츰차츰 가까와온다.

소쩍, 소쩍

소쩍새의 처량한 울음소리가 울리자 쪽문이 소리없이 여닫기고 자박자박 발걸음소리는 자그마한 단층기와집에 와 멎는다. 문이 다시 소리없이 여닫기고 적막한 대지는 고요에 물렸는데 단조롭게 들리는 목탁소리만 한밤이 깊어감을 알려준다.

바로 이 자그마한 기와집 지하실에서는 조선혁명의 려명을 안아오는 력사적인 회의가 열리고있다.

근엄한 표정을 지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일제의 야수적인 침략본질을 발가놓으시고 우리 혁명앞에 놓인 력사적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지하실벽에 걸린 등불은 예지로 불타는 그이의 영상을 밝게 비쳐주는데 차광수동지도, 청년시인 김혁동지도, 쌍태머리 치렁치렁 드리운 길림소년회 소녀회원도, 눈빛이 어글어글한 더벅머리총각도 흥분으로 달아오르는 심장을 들먹이며 기쁨의 눈물 머금고 그이를 우러른다.

이렇듯 캄캄한 바다우에 찬란히 빛뿌리는 한별을 받들어 조선혁명의 닛은 올랐다.

그날 승리의 기적소리 울리며 떠나던 혁명의 배길, 그 배길은 장장 수천수만리를 모진 암초와 광풍을 이겨내며 비애의 협곡을 건너 오늘의 빛나는 조선으로 이어져있는것이 아니겠는가!

정녕 그 거룩한 손길아래 조선혁명의 진로는 밝혀졌고 정녕 그 위대한 배길을 따라 주체혁명의 새시대가 펼쳐졌으며 만민이 부러워하는 행복한 무릉도원이 동방일각에 솟아난것이였다.

《위대한 **김일성** 주석께서 우리 육문중학교에서 혁명활동을 벌리시며 조선혁명을 령도하신 그 빛나는 력사는 우리모두의 자랑입니다. 우리는 이 사적실을 후대교양의 거점으로 정중히 꾸려놓고 새로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크나큰 영예와 자신들의 의무를 자각하게 하고있습니다.》

교무주임은 자기가 하는 사업에 대하여 긍지높이 말했다.

푸르른 나무들과 향기론 꽃송이들로 애지중지 꾸려놓은 향기그옥한 정원, 먼지 한점 오를세라 반짝반짝 닦아놓은 사적물들, 벽마다에 걸어놓은 학교의 연혁사진액들들 그리고 유리함속에 고이 간직된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보내주신 선물들, 이 모든것들에서 우리는 자랑높은 그의 마음을 알고도 남음이 있었다.

그렇다. 이곳 중국인민들은 그 불멸의 년대를 잊지 않고있다. 하기에 우리를 친절히 맞아주고 모든 방문지점들을 함께 다녀주던 길림시 인민정부 비서장 사도유동지는 우리와 만난 첫 순간에 《우리는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길림에서 항일혁명투쟁을 이끄시여 이룩한 업적을 언제나 잊지 않고있습니다.》라고 말했으며 금과도 은과도 실실이 넘나드는 송화호의 경쾌한 유람선에서 이곳의 이름있는 너가수 김금자도 우리 나라 명곡 《오직 한마음》을 흠모에 넘쳐 절절히 불렀다. 어찌 그뿐이라, 우리를 환영하기 위해 열린 친선야회에서 《도라지》잡지사 부주필 문창남동무는 《우리는 **김일성** 동지의 불멸의 자욱이 어린 이 사적지에서 아름다운 도라지꽃을 더욱 활짝 피우겠습니다.》라고 격정에 찬 심정을 토로하지 않았던가...

우리는 바로 이처럼 위대한 수령님을 모신 무한한 행복과 자부심에 넘쳐 이곳 길림에서의 즐거운 이틀간을 꿈결같이 흘려보냈던것이다...

《동무들, 새날이 밝아옵니다.》

어둠의 장막은 서서히 어디론가 찾아들고 우유빛 안개 감도는 창밖에서는 여기저기에서 《싸구려》소리가 들려온다. 송화강유보도에서는 아침체조를 재촉하는 창창한 노래소리가 사람들을 단꿈에서 불러낸다.

고풍의 도시는 생활의 닛을 올렸다. 못새들도 정답게 지저귄다. 태양이 바야흐로 솟아오를것이었다.

...

뿡- 장쾌한 기적소리가 갈길을 재촉하는 역두. 한낮이 지난지도 이속하건만 폭양은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고 길가의 나무며 풀잎사귀들을 데쳐놓은듯 휘줄근하게 만든다.

떠나는 사람, 바래는 사람, 며칠간 사귀여온 정다운 얼굴마다엔 아쉬움이 한껏 어렸다.

돌연 구내확성기에서 방송원의 걱정어린 목소리가 울려왔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몽골인민공화국을 방문하기 위하여 가시는 길에 어제 장춘역을 통과하시였습니다...》

쟁쟁한 방송원의 목소리는 계속 울려온다. 불시에 우리의 눈굽은 찢어터져 젖어들고 이루 말할수 없는 충격이 가슴을 세차게 울린다.

이 무더운 삼복철에...그 머나먼 길을... 아, 우리 수령님! ...

우리들의 눈가마다에는 눈물이 고여오른다. 렬차가 언제 역두를 떠났는지 그리고 어디로 가고있는지 의식 못하며 우리는 승엄한 감정에 휩싸여있었다.

...

인민의 행복에서 기쁨을 찾으시며
한순간 휴식마저 잊으시는 수령님
그 무슨 심려 안고 이밤도 새우십니까
수령님 수령님 밤이 꺾 깊었습니다

...

동무들의 절절한 노래소리는 달리는 렬차의 활짝 열린 창문을 넘어 멀어지는 《사공의 고향》하늘가로 울려퍼진다.

바로 이 사공의 고향에서 방향타를 더욱 힘있게 잡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끌어가시는 영광에 찬 조선혁명의 항로를 따라 우리도 힘차게 노를 저어가고있었다.

두줌의 흠에 넋을 담아

6월 28일, 날씨 맑고 개입

...우리를 환영하여 열린 중국국가민족사무위원회 간부동지들과의 상봉모임은 오후 3시에 민족문화관에서 열렸다. 상봉모임에는 국가민족사무위원회 고문주임인 문정일동지와 부주임 진흠동지를 비롯하여 여러 동지들이 참가하였다. 모임은 시종 화기애애한 가운데서 진행되었고 뒤끝에는 풍성한 연회가 있었다.

연회에서 고문주임 문정일동지는 우리 문예출판사대표단이 중국방문에서 거둔 성과를 열렬히 축하하였으며 아름답고 훌륭하게 건설된 평양을 꼭 한번 다녀가겠다고 약속하였다.

부주임 진흠동지는 50대의 여성간부인데 매우 친절하였다. 그는 맛나는 음식들을 집어 우리의 접시에 놓아주면서 구미에 맞지 않을가봐 다심하게 보살펴주었다.

진흠동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로 우리 인민이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성과를 높이 평가하면서 금후 우리 두 나라 인민들간의 친선과 단결이 더욱 강화발전될것을 열렬히 바란다고 하면서 잔을 들것을 제의하였다.

연회뒤끝에 기념촬영을 하였다.

6월 29일, 날씨 맑고 개입

...오늘은 아침부터 무더웠다. 숨막히는 더위속에서도 사람들로 장사진을 이룬 《모주석기념당》에 들어선 우리는 봄비는 사람들속에 끼여 기념당을 돌아보았다. 중국인민을 착취와 압박의 질곡에서 구원해주고 새 중국을 창건한 중국인민의 수령은 바로 여기서 고이 잠들고있었다.

우리는 천안문광장에서 기념사진을 찍고나서 천안성문에 들어섰다. 일요일도 아니지만 관광객들로 차고넘친 성안에는 울긋불긋한 천막들을 친 이 동식 매대들로 흥성거렸다.

《아니, 여기서 사람을 잊어버리면 찾지 못할것 같소.》

언제나 세심한 《장백산》잡지사 고문인 김영준동지의 말이었다, 우리도 그의 말에 통감하면서 걸음을 떼지 못했다. 그도 그럴것이 한둘이라면 팔이라도 끼고 다니려면 10명도 넘는 집단이니...

《저... 흰모자를 꼭같이 사서 쓰면 됩니다. 흰모자를 쓴 사람들만 찾으면 될게 아닙니까.》

우리 대표단을 위해 말없이 수고가 많은 김수영동무의 착상이었다. 대장쟁이 셋이 모이면 제갈량을 뽐간다는 옛속담도 과언이 아닌가싶다.

우리모두는 꼭같은 흰모자들을 쓰고 사람들의 행렬에 끼여 참관을 시작하였다.

천안문과 꼭같은 성문 하나를 더 넘어서니 까맣게 모여선 사람들이 줄을 친 울타리밖에서 법석 떠드는것이 보였다.

《영화 촬영을 하는게 아니요?》

누군가 호기심을 품고 묻는 말이다.

《아닙니다. 저기서는 옛 황제들과 신하들이 입었던 옷을 빌려주고 사진촬영을 해준답니다. 말하자면 몇분이나마 <황제>로 되어 사진에 자기 모습을 남긴단말이지요.》

남영진사장의 말에 우리는 웃음을 참지 못했다. 사람의 욕심이란 실로 끝이 없는것이 아닌가. 수십년전만 해도 황족들만 드나들던 이곳을 마음대로 다니며 유람하는것만도 아주 만족스러운것인데 순간이나마 《황제》로까지 되어보려 하다니... 하하...

력사는 그야말로 천지개벽하였다. 저 진토속에 묻힌 력대 황족들이 어찌 오늘이 있을줄 꿈에나 생각했으랴. 실로 인민들의 천하가 아닌가!

우리는 유쾌히 웃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고궁을 참관하였으나 끝내 한사람을 잃어버리고야말았다. 그 사람은 다름이 아닌 흰모자를 사서 쓰자던 김수영동무였다. 기발한 그의 착상과 함께 종적이 묘연해졌던것이다.

꼭 오랜후에야 우리는 그를 가까스로 찾아내었고 또 한바탕 웃음을 터뜨리었다.

6월 30일 날씨 맑고 개입

...단장동지의 중국방문일지의 마감장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있었다.

일정계획;10~12시 《장백산》잡지사와의 면담
12~13시 베이징작가들과의 회견
4시 평양으로 출발

정말 드바쁜 하루였다. 아침부터 우리모두는 이 하루에 얼마나 많은 일을 해야 한다는것을 알고있었다.

아침 열시정각 문예출판사대표단과 중국 《장백산》잡지사간의 면담이 있었다. 쌍방은 우리 문예출판사대표단이 이번 중국방문에서 얻은 성과에 대해 만족을 표시하였고 더 깊은 리해를 가지고 호

상교류의 새로운 발걸음을 힘있게 내디딘데 대해 기뻐하였다.

《장백산》잡지사 고문인 김영준동지는 금후 문예출판사와 《장백산》잡지사간의 친선관계를 더욱 강화발전시킴으로써 두 나라 인민들간의 친선단결과 우정을 두터이하는데 큰 기여를 할것을 희망하였다.

어느덧 시계는 열두시를 가까이하고있었다. 할말은 끝이 없으나 시간은 우리를 기다리고있지 않았다.

우리 단장동지가 숙연한 표정을 짓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두손우에는 붉고 푸른 비단천으로 정성껏 지어만든 차그마한 주머니가 놓여있었다. 조선의 민족적인 채취가 안겨오는 그 주머니안에 오성산의 흙이 담겨있는줄을 잘 알고있는 우리는 숭엄한 감정에 잠기였다.

리별을 앞둔 이 순간 우리는 렬사들의 넋이 깃든 이 귀중한 흙을 그들에게 전해주고저 하는것이 다.

잠시 생각에 잠겼던 단장동지는 흙주머니를 전하기에 앞서 시 《벗에게》를 읊기 시작하였다. 갈린 음성으로 시를 읊는 단장동지의 두눈가에 뜨거운 이슬이 맺히였다. 중국동지들도 우리 대표단동무들도 눈물을 머금고 그 시를 들었다.

어찌 그러지 않으랴!

바위마저 불타 재가루가 되던 그날의 전호속에서 생사운명을 같이한 조중 두 나라의 우수한 아들딸들의 피가 스민 귀중한 흙일진대 어찌 시의 구절구절이 뜨거운 눈물로 변하지 않을수 있으랴!

장내에 흥분이 채 가셔지지 않았는데 김영준주임동지가 금빛이 도는 고급 손가방을 들고 경건한 자세로 일어서는것이였다.

《동지들, 우리는 여기에 길림복산에서 한줌의 흙을 담아왔습니다. 복산은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항일혁명투쟁의 영광스러운 발자취가 깃든곳이고 투사들의 피와 땀이 스며든곳입니다. 우리는 이 숭고한 땀이 담긴 흙을 조선동지들에게 드리고저 합니다.》

마음과 마음은 하나로 이어지고 심장과 심장은 하나로 고동치는데 두줌의 흙은 뜨거운 손길과 손길을 거쳐 정중히 교환되였다. 우리는 다시금 두손을 굳게 잡았다.

《동무들!...》

《통즈맨!...》

아, 얼마나 귀에 익고 얼마나 정다운 부름인가! 우리는 바로 이렇게 서로 부르며 동북의 만주땅에서 일제를 반대하여 함께 싸웠고 우리는 이렇게 서로 부르며 불타는 조선의 고지마다에서 원썩미제를 몰아냈었다.

꿀을래야 꿀을수 없는 친선과 단결의 정이 이처럼 뜨겁고 열렬하기에 뜨거운 눈물속에 포옹하면서 헤어지기 아쉬워하지 않았던가!

베이징 역두까지 따라나왔던 시인들인 김철, 한창희 동지들의 얼굴들도 잊을수 없다.

잘 가시라 벗들이여! 잘 있으라 전우들이여!

우리는 조국으로 달리는 렬차에 몸을 실었다. 압록강 맑은 물결의 장쾌한 부름소리도 바람결에 들려오는듯... 두 나라 인민들의 넋이 깃든 대지위에 도도히 흐르는 압록강과 함께 조중친선은 영구불멸할것이다.

-끝-

가사

그 신념 영원히 변치 말자

서봉주

혁명의 첫 기슭 떠나온 투사들 무엇을 생각했던가
준엄한 불언덕 넘으며 투사들 무엇을 바랐던가
값높은 재부도 명예도 아니였네
태양의 위업을 받드는 하나의 신념이였네
아, 대를 이어가는 그 신념
향도성 받들어 천만심장 불타네

포화의 불구름 헤치며 전사들 무엇을 생각했던가
불뿔는 화점을 막으며 전사들 무엇을 바랐던가
가슴에 빛나는 훈장도 아니였네

태양을 위하여 바치는 영생의 삶이였네
아, 대를 이어가는 그 신념
향도성 받들어 천만심장 불타네

머나먼 혁명의 길 가며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는가
혁명의 대를 이어가며 우리는 무엇을 바라는가
한별을 우러러 투사들 다진 맹세
세월의 한끝까지 길이길이 빛내여가리라
아, 대를 이어가는 그 신념
향도성 받들어 천만심장 불타네

숙영차는 어디까지 왔는가

김창욱

날이 저물자 동산우에 쟁반같은 보름달이 떠올랐다. 마음씨 착한 너인의 부드러운 웃음같은 유연한 달빛이 벼랑산 밑으로 새로 뻗어간 두줄기의 철길을 밝게 비쳐주었다. 아직은 차바퀴에 다스려지지 않았고 침묵에서는 타르와 송탄유냄새가 풍기는 그 철길로 룡십고개의 한사람이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다. 그는 월평고등중학교의 리석근교장이었다. 인적이 없는 길은 교묘하였지만 하나하나의 침묵을 헤이듯이 밟아가는 그의 마음은 청명한 가을빛속으로 걸어가는 듯한 환희로운 기분으로 짙어차 있었다. 석근은 지금 군교육과에서 철길건설자들을 적극 지원할데 대한 회의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다. 회의의 안전때문에 그런 충동이 생겼는지 자신도 모를 일이었지만 어쨌든 석근은 이 시간따라 아이들의 마음이 되어 새 철길을 밟아보고 싶어했던 것이다. 그는 걸으면서 가끔 달빛속에 잠긴 주변을 살펴보았다. 학교의 교육사업을 위하여 30 여년동안 수없이 오고간 길, 그래서 길가의 바위돌과 벼랑끝의 나무 한그루까지 눈에 익은 길이 이삼년사이에 얼마나 달라졌는가! 석근은 달빛속에서 그 끝이 희미하게 보이는 아슬한 옹벽을 쳐다보았다. 여기는 돌사태가 자주 흘러내려 자동차길이 막히곤 하던 곳이다. 장마때면 불어난 물때문에 십리나 되는 막치기를 돌아야 했던 골짜기에는 자동차도 함께 달릴 수 있는 넓은 철다리가 놓여졌다. 수백리구간을 차지하고 있는 북부철길건설자들 모두가 그러하듯이 여기에 옹벽을 쌓고 철다리를 놓은 청년돌격대원들도 공사를 마치자 교각과 바위벽에 자기들의 러단이나 대대의 이름을 쏘아박듯이 써놓고는 멀리 앞으로 나아갔다. 노래소리와 기계소리로 들끓던 공사장에는 다시 두메의 한적한 고요가 깃들었다. 그러나 지금 석근은 산천의 그 고요속에서 강을 막고 바위를 깨내던 돌격대원들의 웅성소리와 노래소리가 더 크게 울리는 것만 같았다. 시대의 뜨거운 열풍같이 강을 넘고 산을 꿰치르고 나아가는 그들의 한 대오는 요즘 석근이네 마을앞에서 로반공사를 하고 있었다. 그의 마을까지는 아직 20리길을 가야 했다. 석근은 그 길을 한시라도 빨리 가고 싶었다. 이밤으로 돌격대원들을 돕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계획을 세울 결심이 커졌던 것이다.

이런 생각에 잠겨 산굽이를 돌아서니 문득 눈앞에서 한점의 불빛이 반짝이였다.

《참, 여기가 새덕이든가?》

하지만 그것은 마을의 어느 농가에서 흘러나오는 불빛같지는 않았다. 아니나다를가 더 가까이 가서 보니 그곳은 역건설장이였다. 산 기슭을 깎아 지대를 넓힌 공지에는 새로 짓기 시작한 역사의 기둥들과 쌓다만 벽체들이 고요한 달빛속에 꿈을 꾸듯 서있었고 한옆에는 콩크리트 혼합기와 휘틀무지가 쌓여있었다. 그리고 방금전에 석근이를 반겨주던 불빛은 앞으로 역구내가 꾸러지면 2번선이나 3번선으로 될 대기선에 멎어있는 유개화차에서 흘러나오는 불빛이였다.

(무슨 창고로 쓰는 화차인가?)

석근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화차열을 스쳐지나려고 하였다. 순간 그의 판단을 부정하듯 불꽃 밝은 피창으로 웬 소녀의 랑랑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철길따라 피어난
곱고고운 백일홍
학교로 오가면서
내가 심은 꽃이지요...

《?!》 석근은 자기의 귀를 의심할 정도로 놀라면서 우뚝 멎어섰다.

...사나운 비바람도
용케용케 이겨내고
언제나 방긋 웃는
내가 심은 백일홍

돌격대아저씨들
충성으로 쌓아올린
그 로반에 뿌리내려
억세게만 자란대요...

동요의 구절구절에 뜨거운 감정을 담아 읊어가는 소녀의 맑은 목소리는 달빛이 유연하게 흐르는 산촌의 정적을 흔들면서 류다른 감흥을 안겨주었다. 석근이의 가슴은 들꽃의 향기에 취한것처럼 저도 모르게 혼혼해졌다. 소녀가 동요의 마지막 구절을 끝내자 이번에는 잦은 박수소리와 처녀들의 명랑한 목소리가 울려나왔다.

《야, 정말 멋있구나!》

《네가 떠나면 여기 학교선생들이 정말 섭섭해하겠다.》

《대신 월평인민학교에서 좋아하겠지.》

《너를 만나면 어머니는 또 얼마나 반가와할테냐.》

《해해해...》

밝게 웃는 소녀의 귀여운 얼굴이 불빛 밝은 창문에 환히 어리는것만 같았다. 잠시 유혹의 세계에 잠겨있던 석근은 의혹을 안겨주는 처녀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유개화차를 다시 살펴보았다. 그것은 자재를 싣고 다니는 화차가 아니라 철도건설자들이 이동작업을 할 때 리용하는 가운데에 출입문이 있고 밑에는 나무층계가 놓여있는 철도속영차였다. 석근은 무엇인가 더 알아보고싶었지만 누가 보면 이상하게 여길것 같아 자리를 뜨고말았다. 하지만 속영차를 멀리 할수록 그의 의혹은 커지기만 하였다.

여기는 기차의 종착점에서 200여리나 들어온 깊은 산골이다. 석근은 처음엔 소녀가 지원물자를 가지고 돌격대원들을 찾아온 어떤 녀인의 딸일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처녀들은 소녀가 떠나면 이곳의 교원들은 섭섭해하고 월평에서는 기뻐할것이라고 하였다. 월평은 석근이네 학교가 있는 마을이다. 한다면 돌격대의 속영차에 사는 소녀는 도대체 어떤 아이이며 또 어떻게 되어 그 애가 20리사이의 두 학교와 인연을 가질수 있단말인가?

(속영차와 소녀... 소녀와 어머니...)

순간 석근이의 머리에는 지난해에 혜산이 가까운 어느 채석장을 지나치다가 본 속영차의 인상이 피땀 떠올랐다. 그것은 화창한 봄이었다. 몽게구름이 떠있는 하늘에서는 노고지리 우짖고 산기슭에는 연분홍 진달래가 한창이었다. 그 꽃동산을 배경으로 벗어있던 속영차... 속영차앞에 모여앉은 돌격대원들가운데서 하얀 앞치마를 두른채 노래를 부르던 30대의 녀인... 꽃구름이 떠가는 먼 하늘가를 바라보며 노래부르던 녀대원은 성량이 풍부하지 못했지만 목소리는 옥계수의 물소리같이 맑았었다.

(혹시 그 속영차가 여기까지 온것이 아닐가? 그것이 사실이라면 딸을 데리고 속영차에 사는 그 녀대원은 어떤 녀자인가?)

석근은 달빛어린 침목을 밟아가면서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였으나 종시 그 의문을 풀지 못하였다.

×

변덕스러운 북부산악지대의 하늘에서는 차거운 가을비가 부슬부슬 내리었다. 하지만 석근이네 마을에서 당반처럼 올려다보이는 산락에서는 돌격대원들이 바위를 깨내면서 일손을 다그치고있었다. 로반이 되는 차레로 철길이 놓여졌다. 그들과 린접한 개울건너에서는 차굴공사가 시작되었는데 거기에 필요한 물동을 빨리 운반하려고 철길놓이를 서두르는것 같았다. 산과 산에 메아리치는 착암기소

리와 메질소리, 버럭을 밀어내는 불도젤의 세찬 동음과 야무진 호각소리... 작업장은 말그대로 불도가니 같았다.

돌격대원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장료해를 나왔던 리석근교장은 그저 지나칠수 없는 공사장의 흥분을 안고 청년들속에 뛰어들었다. 그는 한쪽에 놓여있던 삽을 들고 버럭무지앞에 줄지어놓이는 맞들이와 따찌까에 젖은 흙을 폭폭 퍼담았다.

이따금 산허리를 타고 짜늘한 바람까지 불어왔다. 숨가쁘게 오가는 돌격대원들의 얼굴에서는 땀과 비물이 흐르고 옮겨짚는 신발에서 물소리가 났다.

《아, 교장선생님도 나오셨군요.》

빈 목고를 메고와서 말을 건네는 사람들은 이웃에서 사는 농장원들이였다.

《나라고 왜 허허...》

이때 파란 비옷을 입은 돌격대의 어린 처녀가 맞들이를 끌고 끼어들었다.

《선생님, 나와 같이 뛰지 않겠나요? 짝패가 없어서 그러는데.》

농장원들이 교장선생이라고 하던 말을 엿들은 듯 처녀는 친근한 목소리로 물었다.

《그러자구.》 석근은 버럭무지에 삽을 꽂아놓고 처녀와 맞들이를 들었다. 그리고 처녀가 달리는대로 뒤를 따랐다. 젖은 비옷이 무릎에 감기였다. 로반의 가늉까지 서너행보 뛰고나니 어느새 등골에서 땀이 흐르고 가슴이 널뛰듯 활랑거렸다. 그런데 다행스러운것은 처녀의 걸음이 차츰 떠지는것이였다. 걸음이 떠질뿐아니라 가끔 비청거리기도 하였다.

(어린 나이에 그만 해도 웅한 셈이지.)

다음순간 처녀를 바라보던 석근은 눈이 등실해졌다. 맞들이에 흙이 담겨지는 짧은 사이에 입술을 씹으면서 눈을 살퐁이 감는 처녀의 젖은 얼굴에 힘겨워하는 그늘이 어리여있었던것이다. 석근은 비옷모자를 제끼고 일하는 다른 대원들을 살펴보았다. 일손들은 걸쭉지만 얼굴에 피곤이 실리기는 마찬가지였다. 생각타인지 웃음과 노래소리가 떠날줄 모르던 작업장에서는 기계소리만 높이 울리는것 같았다.

《휴식!》

바위앞에서 마침 중대장의 목소리가 울리였다. 대원들은 벌써부터 그것을 기다린듯 여느때없이 빠르게 공구들을 깔고 앉을 차비를 하였다. 기계소리도 하나둘 멎어갔다. 산협의 고요가 깃들면서 비소리가 높아졌다.

《제길 날씨는 왜 이 모양인고...》

석근은 알싸한 심정으로 어린 처녀와 나란히 빈 맞들이우에 앉았다. 솔직한 말로 자기가 지휘관이

였다면 석근은 이 시각에 휴식이 아니라 《작업 그만!》이라는 구령을 주었을것이다. 작업장의 곳곳에 박혀있는 속보판에 씌여있듯이 돌격대원들은 곳은 비속에서도 벌써 자기들의 하루 책임량을 엄청나게 넘쳐하지 않았는가!

석근이가 이런 생각을 하고있을 때 너자의 맑은 목소리가 작업장을 울리었다.

《동무들, 여기 와서 더운 물을 마세요.》

맥을 놓고 앉아있던 대원들이 소리나는쪽으로 얼굴을 돌리었다. 로반가운데에 솟아있는 바위옆에서 하얀 앞치마를 두른 너대원이 둥근 물통을 내려 놓고있었다. 돌격대원의 의복은 입었지만 주방에서 일하는 너자가 분명했다. 그가 뚜껑을 열자 물통안에서 사람들의 가슴을 훈훈하게 녹여주는 하얀 김이 봄의 아지랑이와 같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을씨년스러운 비소리에 마음까지 차거워지던 돌격대원들이 반가운 얼굴로 너대원의 곁으로 모여들었다.

《몸들이 얼었지요? 훌훌 불어가면서 천천히 마시세요.》

그는 차분한 웃음을 짓고 대원들에게 물고뿌를 돌리기 시작하였다. 시내물같이 맑고 부드러운 목소리에는 어딘가 모르게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당기는 파스한 인정미가 깃들어있었다. 석근이의 머리에는 은연중 지난해 봄에 채석장의 숙영차앞에서 꽃구름 떠가는 푸르른 하늘을 바라보며 노래를 부르던 너대원의 인상적인 모습이 떠올랐다. 지나치던 길에 잠시 바라본 얼굴이어서 선명하게 기억되지는 않았지만 하얀 앞치마와 맑은 목소리때문인지 석근은 지금 앞에 서있는 너대원이 꼭 그 너자처럼 생각되는것이였다.

그때 몸이 다부진 착암수가 기울이던 고뿌를 입술에서 떼면서 큰 눈을 데룩거렸다.

《응, 이거 그제 단물이 아니다?》

옆의 청년에게서 더 희한해하는 목소리가 튀어나왔다.

《야 과일단물이구만!》

《보통과일단물이 아닌데... 이보게, 메사과냄새가 풍기지 않아?》

산골태생인듯한 청년의 말에 주변은 더욱 흥성거렸다.

《역시 우리 아주머니가 제일이야!》

《아주머니, 내게도 하나...》

《내겐 둘!》

《안되겠어요. 언니는 물러나요. 내가 끌고루 나눠줄테니.》

석근이와 맞들이를 하던 어린 처녀가 두팔을 벌리고 물통앞에 막아섰다.

《그래그래 말아라. 나보다 네가 낫겠다.》

말은 그렇게 하였지만 너대원은 자기에게 더 많이 쏠리는 청년들에게 물을 떠주기에 여념이 없었다. 석근이도 어린 처녀에게서 물고뿌를 받아쥐었다.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더운 김속에서 정말 메사과의 달콤한 향기가 풍기였다. 이 부근에서 메사과는 10 리밖의 까치산에서만 열린다. 산세가 험하고 굽이 깊은 그곳을 알지 못하는 돌격대원들은 가슴을 따뜻이 녹여주는 단물에 취할수도 있겠지만 석근이에게는 고뿌의 더운 물이 그저 단순하게 느껴지지 않았다.

생각에 잠겨있는 석근이의 귀전으로 지휘관의 청높은 목소리가 날아왔다.

《동무들, 한가지 기쁜 소식이 있소. 래일 여기로 숙영차가 온다오!》

돌격대원들이 일제히 지휘관을 쳐다보았다.

《들었소? 래일 숙영차가 온단말이요!》

이번에는 여러 대원들의 입에서 거의 비슷한 말이 튀어나왔다.

《뭐라구요? 아 그게 정말입니까?》

《사실이요. 러단에서 방금 전화가 왔소. 아주머니, 송이가 온단말입니다!》

《야- 언니!》

나어린 처녀가 앞치마를 두른 너대원의 손목을 잡고 발을 구르며 기뻐하였다. 흥분으로 설레이는 가운데 몇몇 청년들이 주먹을 내흔들면서 웨쳤다.

《동무들, 이 기쁜 소식을 들고 우리 가만 있을수 있겠소?》

《가만있다니 더구나 래일모레가 새 학년도의 개학날이 아니요!》

《웁소!》

단물을 곱배기로 마시던 몸이 다부진 청년이 이렇게 웨치면서 바위에 올라서더니 착암기를 틀어잡고 바람변을 힘껏 돌리는것이였다. 세찬 착암기소리가 온 작업장을 흔들면서 산판에 메아리쳤다. 뒤이어 불도젤이 검은 연기를 툴아올리고 메질소리도 울리었다. 파찌까에 버력을 담은 청년들이 쏜살같이 달리기 시작하였다 《어기영 치기영...》 목고소리가 가락맞은 노래처럼 귀맛 좋게 들리었다. 누가 구령을 준 일은 없었지만 비내리는 작업장은 전보다 더 세차게 끓어번졌다.

(숙영차... 숙영차가 어떻게 되어 청년들을 저로록 흥분시키는것인가?)

석근은 이런 생각에 잠겨 숙영차와 깊은 인연이 있는것 같은 너대원과 들끓는 공사장을 경탄의 눈으로 바라보았다.



중등반학생들을 로반공사장으로 보낸 다음 리석근교장은 자기 방의 창가에 한동안 서있었다. 물

을 뿌린듯 조용한 방안으로 초가을의 유난스러운 해빛이 밝게 흘러들었다. 땀땀땀... 숲처럼 우거진 교재림쪽에서 매미들의 영근 울음소리가 귀를 간지럽히며 들려왔다. 석근은 하많은 상념을 불러일으키는 매미소리를 들으면서 눈에 익은 교정을 정깊은 눈길로 둘러보았다.

정전직후 석근은 여기에서 일곱명의 학생들을 데리고 복식수업을 시작하던 그날부터 귀틀집 학교를 늘쿠어가고 다음에는 학부형들과 같이 압록강의 막돌을 주어다가 더 큰 돌집학교를 지어나갔다. 그는 직관물을 만들기 위하여 천성적으로 둔하던 붓글씨를 숙달하였다. 전등불만이 지켜보는 교원실에서 너학생들에게 배워줄 춤가락을 연습하다가 저녁밥을 들고나온 애젊은 안해를 허리부러지게 웃긴 일도 있었다. 그렇지만 산골학교의 교장에게는 혼자의 힘으로는 다할수 없는 일도 많았으니 그중의 하나가 기차를 보지 못한 학생들에게 공장과 광산, 바다의 수평선과 들판의 지평선을 생동한 현실로 보여주기 어려운 일이었다. 그런데 지금 그 소원을 풀어줄 북부철길이 바로 마을앞까지 들어오고있는 것이다. 이제 멀지 않아 기관차의 힘찬 기적소리가 산촌의 세기적인 고요를 깨뜨릴것이며 그날부터 한적하던 이교장에 광산이 개발되고 큰 공장들이 생겨날것이다. 사람들이 늘어나면 고층건물들이 키돋움하여 일떠서고 도시의 문화가 강물처럼 흘러들것이다. 그것은 시대의 기상을 안고사는 청년돌격대원들이 열풍같이 몰아오는 새 생활이고 약동하는 현실이며 광란적인 미래였다!

석근은 밤에 잠을 이룰수 없는 이런 크나큰 흥분을 안고 오늘도 새 학년도의 등교준비를 검열하자 즉시로 교원들과 학생들을 로반공사장으로 떠나보냈었다.

조용한 방안에서 갑자기 전화종소리가 울리었다. 석근은 생각에서 깨어나면서 책상에 놓인 전화기의 수화기를 들었다.

《월평중학교 리석근이 전화받습니다.》

《아, 마침 교장선생이시군요...》

상대방은 새덕고등중학교의 젊은 교장이었다. 그는 인사말이 끝나자 이제 청년돌격대에서 한 아이가 전학을 가게 될테니 앓을 자리로부터 파외학습지도까지 특별히 관심해달라고 부탁하였다.

《아니 돌격대에서 무슨 학생이 온단말이요?》

《이제 만나면 다 알게 될겁니다. 어쨌든 선생님 은 복덩이를 받아안게 됐습니다. 하하하...》

그때 출입문에서 가벼운 손기척소리가 났다. 석근은 전화를 하는 사이에도 그런 소리가 울릴것 같은 기억이 났다.

《네. 들어오시오.》

수화기를 놓고 대답하자 문으로 돌격대의 정복차림을 한 녀자가 조용히 들어섰다. 별에 탄 얼굴인데도 눈썹이 유별나게 까만 녀자였다. 그를 알아보는 순간 석근은 다소 눈이 커졌다. 어제 비내리는

작업장에서 돌격대원들에게 더운 물을 나누어주던 인상깊은 녀대원이었던것이다. 그 녀자는 반가움이 넘치는 눈으로 석근이를 바라보더니 오각별이 박힌 모자를 벗어쥐고 깊이 머리를 숙이였다.

《선생님 그사이 안녕하셨습니까?》

《아 수고합니다. 돌격대원동무...》

석근이도 한껏 반가운 기분을 섞었지만 생각과는 달리 말 자체는 실무적이 되어버렸다. 반가움이 잔물결처럼 과도치던 녀대원의 얼굴에 그만 서운해하는 그들이 스치였다.

《거기 좀 앉으시오.》

석근이는 무언가 미안스러운 생각을 하면서 앞상의 의자를 가리켰다. 그러나 녀대원은 앓을념을 안하고 각종 도표들과 결그림이 붙어있는 방안을 사려깊은 눈길로 살피기만 하였다. 가까이에서 보니 속눈썹의 움직임까지 침착한 30대의 의젓한 녀자였다. 녀대원은 그 명상적인 눈길로 이번에는 책장, 석근이가 30여년동안 쓰다듬듯 아껴온 반들반들한 책상을 생각깊이 바라보는것이였다.

《거기 앉으라니까요. 무슨 일로 왔는지?》

녀대원은 그제야 결상에 앉았다. 그리고 추억이 어린 조용한 눈길로 석근이를 다시 쳐다보다가 웃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놓았다.

《선생님, 아이의 전학 때문에 왔습니다.》

《전학이요?》

석근은 방금 전화를 받은 일을 생각하면서 그 녀자가 내미는 봉투를 받았다. 결봉을 떼고 문건을 꺼내보니 짐작한대로 전학증명서와 학생의 학적부였다. 그는 돋보기를 걸고 학적부부터 보았다.

《이름 유송이... 7세... 인민반 1학년... 아버지 유현철... 북부철길건설연합지휘부 참모... 어머니 신혜영... 청년돌격대 취사원...》

학생의 성적은 최우등이였다. 특기란에는 그림 그리기와 시 읊기를 잘한다고 기록되어있었다. 그런데 석근이의 눈길을 끌것은, 아니 마음을 특별히 놀라게 하는것은 송이학생이 1학년동안에 세번이나 학교를 전학한 사실이였다. 무평... 관능... 새덕인민학교... 그것은 새 철길이 시작되는곳으로부터 이교장까지 들어오면서 칠팔십리씩 떨어져있는 학교의 이름들이였다. 석근은 학생의 출석일수를 살펴 보았다. 하루의 결석도 없었다. 30여년의 교원생활에 처음으로 대하는 놀라운 사실이였다. 그는 돋보기를 벗고 혜영이를 바라보았다.

《송이학생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 그는 집이 어디냐고 물으려고 했으나 흥분 때문에 말이 빗나갔었다.

《새덕에 있습니다. 새로 짓는 역부근에...》

《역부근에 ? ...》

석근이의 머리에는 달빛 밝은 역구내에 벗어있던 인상적인 숙영차가 떠올랐다.

《혹시 거기 숙영차에 있지 않습니까?》

《네, 선생님이 그걸 어떻게...》

《허허… 그저 좀… 그런데 학생을 받게 되니 이것저것 묻게 되는데 송이 어머니는 언제부터 돌격대생활을 합니까?》

혜영은 눈길을 떨구고 무릎의 모자를 매만지기만 하더니 드디어 얼굴을 들었다. 그리고 조금전같이 무엇인가를 애뜻하게 그리워하면서도 역시 무언가 망설이는 착잡한 눈길로 석근이를 바라보는 것이었다.

《선생님, 저를 모르시겠습니까? 제 십오년전에 이 학교를 졸업한 신혜영입니다.》

《아니 뭐라고요?》

《이렇게 다시 뵈올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신경삼이라구 그때 안골방목지에서 수의사를 했습니까.》

《음-…》

석근은 혜영의 얼굴, 까만 눈썹이외에는 이렇다할 특징이 없는 동그스름한 얼굴을 보면서 기억을 더듬었다.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았다. 하긴 첫교단에 서던 날부터 수많은 학생들을 졸업시킨 자신이였다. 그때로부터 생활은 지나간 일들을 망각의 파도속에 묻어버리면서 얼마나 많은 세월을 넘어왔는가.

혜영은 생각에 모대기고있는 석근이앞에서 오히려 미안한 소리를 하였다.

《선생님이 자라나는 아이들의 모습을 어떻게 다 기억하시겠습니까. 그사이 졸업생들이 또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렇긴 하지만…》

《혹시 4학년때 기차구경을 하겠다고 청수리까지 따라가면서 때를 쓰던 저를 기억하시겠는지. 저는 사로청 7차대회에 참가하고 선생님에게 쓴 편지에서도 그때의 일을 적었드렸습니다.》

《아- 그 편지…》

순간 석근은 눈을 크게 뜨고 혜영이의 모습을 다시 바라보았다. 사람의 잠재의식이란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다. 의사가 십여년전에 퇴원시킨 환자의 얼굴을 잊었다가도 자기가 수술한 상처자리를 보면 그때의 일이 기억에 떠오르듯이 이 시각 석근이의 머리에도 청수리의 그 일이 놀라웁게 재현되는 것이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지. 생각나오. 이제야 생각나누만. 내 편지도 받았소!》

그는 흥분한 나머지 자리에서 일어서기까지 하였다. 만약 이때 문을 두드리는 손기척소리만 아니었던들 석근은 혜영이의 앞에 가서 손목을 덥석 잡았을지 모른다.

《들어오시오.》

두사람이 다감해진 기분을 누르고있을 때 돌격대의 젊은 지휘관이 활기있게 들어섰다,

《안녕하십니까? 러단정치부장 박철입니다.》

《어서 오시오.》

박철은 결상에서 일어서는 혜영이에게도 인사를 하였다.

《안됐습니다, 한발 늦어져서.》

《참 지도원동무도, 오지 말라고 전화까지 했는데.》

박철은 그 말에는 대답이 없이 석근이에게로 웃는 얼굴을 돌리었다.

《선생님, 저도 송이의 전학문제때문에 왔습니다. 먼곳에 있는 그 애 아버지를 대신해서말입니다. 허허허.》

눈언저리에 노상 웃음이 어려있는 패남아였다. 그는 소녀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왔다고 했지만 사실은 돌격대원들을 대표하여 찾아왔다고 해야 옳을 것이다. 석근은 그런 사회적인 관심속에 있는 학생을 받게 되는것이 더없이 기뻐다.

《감사합니다. 결에서까지 이렇게 생각해주시.》

《어떻든 잘 가르쳐주십시오. 송이는 자연에 대한 관찰력이 섬세하고 글짓기에 특별한 재간이 있습니다.》

혜영은 자기 딸의 이야기가 깊어지자 어쩔바를 몰라하면서 박철이의 소매를 당기었다.

《아이참 지도원동무…》

《선생님, 자기 집의 이야기에는 늘 이렇게 린색한 아주머니랍니다. 하하하…》

박철이의 말에 세사람은 서로 마주보면서 유쾌하게 웃었다. 창밖의 수삼나무가지에 내려앉은 몇마리의 참새가 그들의 이야기에 호기심이 동한듯까만 눈으로 방안을 들여다보면서 머리를 갸웃거렸다.



사람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별치 않게 흘러간 생활에서도 귀중한 교훈을 찾아보려고 한다. 로반공사장을 향해 학교를 나선 리석근교장은 제나름으로 자란 잡관목사이의 오솔길을 걸어가면서 혜영이가 되살려준 추억을 조용히 더듬었다.

1971년 초겨울 학교에서는 처음으로 중등반 4학년생들의 공장견학을 조직하였다. 그때 석근이로서는 6개년계획의 첫 전투에 들어선 공장, 기업소들의 벽찬 모습을 보여주려는 목적이었지만 학생들은 처음으로 기차를 타게 된다는 생각으로 온몸이 들떠있었다. 학교를 떠난 학생들은 군경계를 넘어설 때마다 새로운 배스를 갈아타면서 이틀만에 혜산에 이르렀다. 동해가마울의 뒤산에는 단풍이 한창이런만 이국땅이 건너다보이는 북부고원의 하늘에서는 이해의 두번째 눈이 펄펄 쏟아지고있었다.

《눈때문에 혹시 령길이 막히지 않을까?》

석근이와 4학년을 담임한 처녀교원은 려관의 창문을 내다보면서 이런 걱정을 하였다. 그런데 그들의 진짜 걱정거리는 다음날 아침 기차를 타려고 할 때 갑자기 생겨났다. 학급의 토끼사를 관리하라고 떨구었던 한 녀학생이 랑곡기동대의 화물자동차

를 타고 뒤를 따라온 것이었다. 운전사의 말인즉 너 학생이 수십리길을 걸었다는 것이다. 그 애가 바로 혜영이었다. 혜영은 학교에 남아있으라고 했을 때 자기도 꼭 견학을 하겠노라고 토끼는 수의사를 하는 아버지에게 부탁했노라고 하면서 발까지 동동 굴렀다. 석근은 생각이 복잡해졌다. 학교에 세워놓은 질서에 대해서는 무서울 정도로 엄격한 그였지만 어린 너학생을 그 먼길로 되돌려세울수도 없었다.

석근은 엄격한 교장의 눈치를 살피면서 몸을 떨고있는 혜영이를 지켜보다가 담임선생과 학생에게 말하였다.

《떠납시다. 이 학생도 데리고...》

...석근은 이런 추억에 잠겨 걸음을 옮기다가 수풀에 가리운 개울가에서 문득 들려오는 물장구소리와 너자들의 명랑한 탄성에 슬며시 벗어났다.

《애, 이걸 좀 봐!》

《야 산천어! 여기에 산천어가 있을거라던 언니의 말이 꼭 맞았군요.》

《이걸 보면 대대장동무가 정 반대를 못할거야.》

《호호호.》

석근은 그들의 이야기에 호기심이 끌리어 잠깐 목을 헤치면서 개울가로 나갔다. 가까이에 가보니 짐작한대로 물가운데에 반두를 낀 혜영이가 서있었고 그의 곁에는 어제 석근이와 같이 맞들이를 하던 처녀가 빨간 비닐소랭이를 들고있었다. 석근이보다 학교를 먼저 나선 혜영은 지나치다가 처녀를 만난 모양이었다. 인기척에 얼굴을 돌린 혜영이가 석근이를 알아보고 반색을 하였다.

《아이 교장선생님.》

《재미나게들 노누만. 반두질까지 하면서.》

《호호호 노는게 아니라 우린 지금 양어못을 만들기 위한 <시료채취>를 한답니다.》

《정말이에요. 이걸 보세요.》

나어린 처녀가 비닐소랭이를 내보이면서 자랑스럽게 응수하였다. 정오의 해빛이 눈부시게 쏟아져내리면서 은구슬처럼 반짝이는 소랭이의 물속에서는 산천어, 누치, 열목어 등 각가지 새끼고기들이 오락가락 헤엄치고있었다. 석근은 의혹의 눈빛으로 물었다.

《어디에 양어못을 꾸린다는거요?》

혜영이가 소매를 걷어올린 하얀 팔로 물이 튀긴 이마전의 머리를 쓸어넘기며 대답하였다.

《선생님, 우린 차굴옆으로 흐르는 이 개울물에 작은 철다리를 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다리기둥대신에 큰 토관들을 묻고 그우에 발전소의 언제처럼 흙을 쌓아 로반을 만들면 골짜기안에는 좋은 양어

못이 생길것 같아요. 토관에는 물을 조절하는 수문장치를 하구요.》

《언니는 그것때문에 며칠동안이나 물을 차면서 이 개울을 오르내렸어요. 그런데 글썽 대대장동무가 로력이 더 든다구 선뜻 나서지 않거든요. 흥...》

어린 처녀는 대대장의 말이 언짢은듯 귀엽게 생긴 입술까지 쑥 내밀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사이에 석근은 저도 모르게 가슴이 쿵쿵 뛰었다.

(양어못!)

그것은 석근이가 오래전부터 바라면서 학교 주변에 만들어보자고 하던 일이었다.

《그건 정말 비슷한 생각이구만! 로력은 걱정마오. 내 리사로청일군들과 토론하겠소. 또 학생들도 동원할수 있소.》

《야- 정말...》

《그런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다 했소?》

흥분을 억제 못하는 석근이의 말에 혜영은 부드러운 웃음을 지었다.

《저의 생각이 아니라 그전에 선생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나어린 우리를 데리고 저 산기슭에 나무를 심으면서 앞으로 마을주변에 과수원을 꾸리고 고기못도 만들고 집집에 수도물도 끌어들이자구요.》

혜영은 말을 하는 사이에 미래의 꿈을 키워가던 그 시절이 떠오르는듯 눈을 가늘게 찡뜨리면서 먼 산밭을 바라보는 것이었다. 그의 눈은 희망에 넘쳐 빛났다. 너럭바위를 스쳐내리는 맑은 물에 부딪쳐 천만개의 구슬로 부서지는 해빛이 상기된 그의 얼굴에 어롱어롱 물그늘을 던져주었다.

《참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도 했었지.》

정말 그랬었다. 석근은 수많은 제자들에게 고향에 이어진 그런 꿈을 키워주었다. 하지만 나이가 들고 조국의 여러곳으로 흩어져간 그 졸업생들모두가 혜영이처럼 어린 시절의 꿈을 소중히 간직하고 사는것은 아니지 않는가! 석근은 이런 뜨거운 생각에 잠겨 별에 탄 혜영이의 가무스레한 얼굴을 사랑스럽게 바라보았다.

잠시후 어린 처녀를 병실쪽으로 보낸 두사람은 공사장으로 오르는 언덕길을 걸어갔다. 소리없이 불어오는 바람에 들꽃의 향긋한 냄새가 가슴속 깊이 스며들었다. 꽃구름이 떠가는 푸르른 하늘에서 수리개 한마리가 유유히 감돌다가 꿈이라도 꾸듯이 한자리에 떠있었다. 석근이에게는 오늘따라 새들의 우짖음이며 골계수의 맑은 물소리가 전에없이 유정하게만 느껴졌다. 그것은 망각속에 사라졌던 한 졸업생의 성실한 모습과 아름다운 마음씨를

다시 보게 되는 기쁨때문인지 모른다. 그는 생각에 잠긴채 물었다.

《송이 아버지는 돌격대에서 사귀었겠지?》

《네. 같은 때에 입대했어요.》

혜영은 다소 무뎠해하면서 대답하였다.

《아이는 숙영차에 떴어든지 오래오?》

《옹벽공사장에서 대대의 기본력량이 이곳으로 이동하게 되자 제가 보름전에 먼저 떠났습니다.》

《음- 다들 그렇게 수고하는데 나는 그전에 편지를 보낸 동무에게 회답조차 하지 않았으니 참...》

갑자기 심중해진 석근이의 말에 혜영은 까만 눈썹을 추켜올리면서 어쩔바를 몰라하였다.

《아이참 선생님두, 저는 그때 대회에 참가한 기쁨을 자랑삼아 썼을뿐이에요. 공사장이 자꾸 이동하길래 확실한 주소도 쓰지 않고요.》

그것은 사실이기도 하였다. 혜영은 그 편지를 고원-봉산사이의 철도전화공사장에서 보낸것 같았다. 오래전 일이어서 기억은 삭막했지만 석근은 그때 혜영이가 번개불이 번쩍이고 폭우가 세차게 두드리던 강기슭의 천막안에서 어려운 전투를 앞두고 자신이 사로청 7차대회의 대표로 엄숙히 추천되었다고 하던 격동적인 이야기와 위대한 수령님을 모신 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당을 위하여 청춘도 사랑도 미래의 행복도 조국의 궤도우에서 꽃피우겠노라고 맹세하였던 그의 뜨거운 편지구절만은 새라 새롭게 다시 떠올랐다. 석근은 뜨거운 숨을 내쉬면서 다시 물었다.

《그러니까 혜영동무의 생활은 그때부터 내내 숙영차에서 흘러갔겠소?》

이야기가 깊어지자 혜영이도 얼굴에 피었던 웃음을 거두면서 차츰 추억에 잠기는것이였다. 그는 흰 구름이 떠있는 먼 하늘가를 바라보며 잠시 생각을 더듬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선생님앞인데 제가 무슨 이야기들 못하겠습니까. 사실은 결혼을 하고 가정에 아이가 생기면서 조직에서는 여러번 권고도 주고 강경한 행정적 조치도 취했습니다. 저만이라도 아이를 데리고 시집켄에 가있으라고말입니다. 그래 하는수없이 몇년동안 청진역에서 안내반장으로 일했지만 아버지수령님께 다진 맹세를 어기는것 같아 가슴이 무겁기만 했습니다. 북부철길공사가 본격화되고 고향쪽으로 철길이 뻗어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부터는 밤에 잠도 제대로 잘수 없었습니다.》

《음-...》 석근이의 눈앞에는 도래굽이의 파도소리와 열차의 먼 기적소리가 흘러드는 고요한 방안에 앉아 잠이 든 귀여운 딸을 지켜보면서 가지가지의 상념에 잠겨있었을 혜영이의 모습이 방불하게

떠올랐다. 그의 귀전으로 혜영이의 온화한 목소리가 다시 들리었다.

《...저는 참다 못해 문어랑 해삼 같은 어물을 가지고 지원삼아 옛동무들을 찾아떠났습니다. 해산에서부터 새로 놓인 철길을 따라 걷노라니 정말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침목마다에서 동무들의 땀과 뜨거운 숨결이 느껴지고 외진 산골에서 바깥세상을 그리워하면서 자라던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왔던김에 며칠동안 주방일을 도와주었습니다. 모두들 얼마나 기뻐하던지... 집에 돌아가니 동무들과 고향생각이 더 간절해졌습니다. 그래서 또 떠났습니다. 두번째로 와서는 보름 세번째만에는 한달 그다음에는 익살꾼들이 말하는것처럼 아예 주방에 눌러앉고말았습니다.》

혜영은 잠시 흥분을 누착히고나서 말을 끝냈다.

《선생님, 저는 아직 행복이란 말의 뜻을 다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왜그런지 지금의 생활이 그저 체일인것 같이 생각되기만 합니다.》

석근은 크나큰 충격속에서 머리만 끄덕이였다. 그는 호젓한 사무실에서 기억을 더듬는 사이에 혜영이가 학교를 졸업하자 도의 어느 목장에 소환된 아버지를 따라 이사를 갔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석근은 그것으로서 혜영이의 생각은 더 하지 않았었다. 교수사업을 조직하고 교구비품을 끌어들이고, 말하자면 눈앞에 당면한 일에만 마음을 쓰면서 졸업생들에 대해서는 별로 알아보려고 하지 않았다. 만약 자기가 시대앞에 성실한 혜영이와 같은 졸업생들을 적극 찾아내어 자라나는 학생들의 가슴에 산 모범으로 심어주었다라면 학교의 교수교양사업에서는 시대의 맥박이 보다 강하게 울리었을것이 아닌가!

이때 먼곳에서 석근이의 뛴는 가슴을 더 세차게 흔드는 기적소리가 메아리쳐왔다.

《아, 기차가 와요!》

혜영은 흥분한 목소리로 웨치면서 로반우로 달려올라갔다. 흥분한 사람은 혜영이만이 아니였다. 산기슭의 천막에서, 다리기초가 솟는 강바닥에서 나무를 찍던 산릉선에서 남녀청년들이 환성을 울리면서 로반으로 모여들었다. 석근이가 작업장에 이르렀을 때 혜영이를 둘러싼 돌격대원들이 기쁨을 누르지 못하면서 한마디씩 하고있었다.

《아주머니, 기차가 와요!》

《아니예요. 기관차보다 숙영차가 먼저 나타날거예요.》

《누가 아니라나.》

《하하하...》

그들속에 끼여든 석근은 격양된 숨결들을 가슴에 옮겨받으면서 주변을 살펴보았다. 동시에 믿어

지지 않는 현실앞에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총총암반이 겹쌓여있던 산허리, 줄잡아도 이삼일은 파제껴야 길이 트이리라고 생각했던 룡선이 하루사이에 배여낸듯이 깎이우고 그밀에 두줄기의 철길이 뻗어있지 않는가! 속보판은 물론 깎아낸 돌벽에도 대서특필한 전투속보들이 나붙어있었다.

《서해갑문건설식으로!》

《단물에 갇든 뜨거운 마음》

《산을 떠돌이치고 숙영차를 여기에!》

로반의 여기저기에 널려있는 침목과 지레대들, 따찌까와 목고들, 불무지자리와 타다남은 나무토막들... 그것은 치렬했던 전투장의 비상한 흔적이었다.

석근이의 곁에 다가온 정치지도원이 자랑넘치는 목소리로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 동무들이 왜 이렇게 기뻐하는지 아십니까! 숙영차가 온다는것은 우리의 철길이 그만큼 더 뻗었다는 말이나 같기때문입니다. 또 송이도 래일부터 학교에 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무들의 일손에서는 불꽃이 튀었습니다.》

두번째 기적소리가 지척에서 울려왔다. 방금 마지막 못을 박은듯한 새 철길을 타고 차바퀴 그르는 소리가 전류의 흐름같이 울려왔다. 산굽인돌이에서 기관차가 검은 연기를 뿜아올리면서 불쑥 나타났다. 숙영차와 세멘트무개차를 앞세운 공사전용차였다. 순간 그렇게도 설레이던 작업장에서 웨침소리들이 잦아들고 철길우에까지 모여섰던 돌격대원들이 로반가녁으로 짝 갈라졌다. 숙영차가 그들사이로 천천히 들어섰다. 흙물에 젖은 바지가랭이를 걷어올린 청년들, 물집이 터진 손에 붕대를 감은 처녀들, 런닝그바람의 어깨에 목고채와 곡괭이를 멘 돌격대원들이 땀에 젖은 얼굴을 들고 빛나는 눈길로, 궁지가 넘치는 표정으로, 물기에 젖은 눈으로 숙영차를 바라보고있었다. 그들의 모습은 숭엄하였다. 가슴에 넘치는 환희와 걱정이 하도 커서 오히려 그 감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진듯한 그런 엄숙한 표정들이었다. 석근은 뜨거운 눈길로 숙영차를 바라보았다. 지붕에서 바람을 안고 힘있게 나뭇기는 돌격대의 붉은 기발, 출입문의 옷쪽에 박혀있는 작은 비둘기장, 속보가 붙어있던 자리가 력력한 벽, 거기에 누구인가 백목으로 《숙영차- 앞으로!》라고 힘있게 박아쓴 글발... 그것들은 석근이가 밤길에서 미처 가려보지 못한 숙영차의 세부였다.

기관차가 흰 김을 뿜으면서 완전히 벗어섰다. 숙영차의 문이 가볍게 열리었다. 문가에 빨간 나비리봉을 단 어린 소녀가 가슴에 복슬강아지를 안고 나섰다. 량볼이 붉은 그 애는 머루알같은 눈으로 기쁨에 넘쳐있는 돌격대원들을 휘돌러보더니 햇빛갈

은 웃음을 지으면서 한손을 높이 들어 소년단경례를 하는것이였다.

《아저씨들 항상준비!》

방울같은 그 목소리는 수풀을 어루만지는 미풍인양 흥분을 누르고있던 청년들을 다시 설레이게 하였다.

《송이야!》

《야, 우리 귀염둥이...》

《네가 오늘도 기관차를 끌고왔구나!》

《하하하...》

청년들의 앞에 서있던 혜영이가 행복스러운 얼굴로 딸을 안아내리었다. 하지만 소녀는 어머니의 따스한 입김을 느낄 사이도 없이 한 청년의 가슴에서 또 다른 처녀의 품으로 옮겨갔다. 뜨거운 감정에 휩싸여 자기를 잊고있던 석근은 그제사 정신을 차리고 꽃뭉음을 쥐고 서있는 자기네 학교의 녀학생에게 일러주었다.

《저 송이에게 그 꽃뭉음을 안겨주어라.》

녀학생이 사람들 가운데에 내려선 송이에게 꽃뭉음을 내밀었다.

《애. 받아. 너는 우리 학교에 오게 된단다.》

《그래? 고마와.》

어린것들은 작은 손을 꼭 마주잡기까지 하였다. 마음이 헤쳐지는것도 나이탓일까? 석근은 까담모르게 젖어나오는 눈을 습벽거리며 하늘가를 쳐다보았다. 기차를 따라온 한쌍의 비둘기가 파란 하늘을 배경으로 숙영차우를 감돌고있었다.



참대무늬벽지가 씨뿔한 기분을 안겨주는 숙영차안은 정갈하게 꾸려진 살림방 같았다. 중간에 놓인 길다란 네모식탁을 경계로 오른쪽에는 책상반과 꽃보에 덮인 침대가 있고 왼쪽에는 섹타이크가 알른거리리는 부뚜막과 가시장이 자리잡고있었다. 송이에게 학교길을 대주기 위하여 숙영차에 들린 리석근교장은 식탁의 곁상에 앉은채 생활의 윤기가 흐르는 방안을 깊은 생각에 잠겨 둘러보았다. 아침을 갓 지낸 가마들에서는 아직도 열기가 떠돌고 구수한 기름냄새가 풍기었다. 살림방이면서 돌격대원들의 주방이기도 한 이 방안에서 혜영이의 보람찬 생활이 흘러갔겠구나 하는 뜨거운 생각이 석근이의 가슴을 새삼스럽게 울려주었다.

잠시후 그는 팔목시계를 보면서 밖으로 나왔다. 아침햇빛이 눈부시게 비치는 로반에서 송이가 발목에 감기는 복슬강아지를 달래면서 꽃씨를 뿌리고있었다. 석근이가 찾아오던 때 숙영차의 층계앞에서 비둘기들에게 아침모이를 주던 소녀였다.

석근은 송이에게 다가가면서 의아하게 물었다.

《애 지금이 어느때게 꽃씨를 뿌리느냐?》

자리에서 냉큼 일어난 송이가 씨앗봉지를 내보이면서 쟁쟁한 소리로 대답하였다.

《일찍 영근 들꽃에서 모은 씨앗입니다. 들꽃의 씨는 가을에 심어 겨울동안 잠을 재워야 한다고 어머니가 대주었습니다.》

《참 그럴듯하구나.》

송이도 벌써 어머니의 품에서 로반의 생활을 배우고있는것이였다! 석근은 눈길을 돌려 차굴의 입구를 시작하기 위하여 산중턱을 깎아내리는 공사장을 바라보았다. 방금전에 딸기즙이 든 물통을 지고 떠나던 혜영이가 나무가지를 휘어잡으면서 가파로운 산턱을 뚫아오르고있었다. 그의 앞에서 길을 헤치는 두사람은 돌격대 대대장과 어제밤 석근이의 이야기를 듣고 환성을 올리던 리사로청위원장이였다. 혜영은 산에 오른 길에 그들과 같이 양어못을 만들기 위한 방도를 토론할것이다. 어린 시절의 꿈을 안고 철길을 따라 앞날을 향해 나아가는 혜영이! 이제와서 보면 혜영은 사랑하는 남편이나 가정의 단란한 생활을 위하여 숙영차에 오른것이 아니였다. 그는 장독대의 살구나무에 연분홍꽃이 피어나고 추녀끝에 제비가 날아드는 오붓한 울안에서 생활한 때가 없었다. 그보다도 혜영은 철의 궤도를 따라 자기의 행복한 시절을 공장이 수풀처럼 일어서고 황금의 벼바다가 설레이는 온 조국의 넓은 땅을 자기 집의 프락처럼 생각하면서 살아온 녀자였다. 그 주인이 사는 숙영차가 오늘은 여기까지 왔다.

그리고 래일에는 더 먼곳으로 줄달음쳐나갈것이다. 인간이 사회를 위하여 가장 성실하게, 가장 아름답게 살아야 하는 생활의 목표점을 향하여! 그래서 돌격대원들은 이 숙영차를 것처럼 귀중히 여기고 앞에 내세우는것이리라... 《숙영차- 앞으로!》 백목으로 쓴 그 힘있는 글발속에서 석근은 청년돌격대원들을 이끌고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는 혜영이네 모습을 똑똑히 보았다.

잠시후 리석근교장은 송이의 손목을 잡고 학교길을 떠났다. 그는 이제 노을 비낀 앞날에 살 송이가 부모들을 더 빨리 뵈아가도록 이끌어줄것이며 설사 그 애가 어머니를 따라 또 새로운 교장으로 떠난다 해도 새덕의 교장이 그러했던것처럼 그쪽 학교의 선생들에게 송이의 앞날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리라고 마음먹었다.

철길우에 올라서서 가우뚱거리며 재롱을 부리던 소녀가 잊었던 생각이 난듯 맞은편 산을 향하여 소리쳤다.

《어머니-!》

송이의 방울같은 목소리가 푸르른 산밭에 부딪쳤다.

《어- 머- 니-...》

맑은 메아리가 돌아오는 높은 산기슭에서 양어못이 생길 골짜기를 가리키며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던 혜영이가 한손을 높이 들어 딸에게 화답을 보내주었다.

조국에 대한 노래

(쏘련) 우제국

이 세상에서 늙지 않는건
오직 조국 하나뿐
늙을줄 모르니
죽을줄 모르는가 하노라

그래도 내 나라 공민들은
하나뿐인 그 조국 아끼며
일하면서도 생각이고
쉬면서도 생각이라네

자손 많은 내 조국은
불속에서도 물속에서도
죽을줄 모르고
영생불멸하리라!

과실은 나무의 열매이고
인민은 조국의 자손이라
인민도 과실도
조국없인 있을수 없어라!

오직 조국이 번영해야
후손도 행복하려니
조국을 위해선
밤낮 몸바쳐 일하리라

형님도 아버지도
조국에 이바지하노니
천년 만년 가도
늙지 말고 번영하라
위대한 내 조국!

창작적 주견과 대담성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창작적 주견과 대담성은 작가, 예술인들이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반드시 가져야 할 립장과 자세입니다.》

오늘 대건설행군으로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의 혁명적 현실은 작가들로 하여금 더 많은 작품을 훌륭히 창작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작가들의 대담성은 생활과 예술에 대한 독자적인 이해와 판단에 기초한 확고한 창작적 주견으로서 그것은 기존관념에서 벗어나 언제나 독창적인 탐구정신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창작적 주견과 대담성은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항상 필요하며 또 당정책 관철에서 반드시 견지하여야 할 근본문제로 되고있다.

그러나 작가들이 확고한 창작적 주견을 가지지 못하고 작품을 창작할 때에는 작품의 대를 똑바로 세울수 없고 특색있는 형상을 창조할수 없다.

창작적 주견이 확고하지 못하면 사회적으로 의의있는 종자를 잡고 형상을 예리하게 하였다가도 사람들의 이러저러한 의견에 흔들려 두리몽실한 작품을 내놓게 되는것이다.

창작실천의 경우를 돌이켜보아도 소심한 작가일수록 생활의 변두리에서 돌며 창작적 주견이 확고하고 대담한 작가일수록 생활의 와중에 뛰어들어 창작하는것을 보게 된다.

사실 한 형타에 찍어낸 도식적이고 무미건조한 백편의 문학예술작품보다 사회적으로 의의있는 문제를 산 인간의 개성화된 형상을 통하여 진실하고 생동하게 그려낸 한편의 문학예술작품이 더 귀중하며 그것이 사회에 주는 인식교양적 의의는 매우 큰 것이다.

생활은 창작적 주견이 확고한 작가라야 문학예술작품을 대담하게 생활의 진실과 형상의 논리에 맞게 창작할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그러나 일부 작가들은 현실적으로 절박한 문제를 보고도 대담하게 작품을 쓰려 하지 않는데 이것은 창작에서의 보신주의이며 요령주의이다. 작가들이 보신주의, 요령주의를 부리면 결국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의 사상으로 무장시키는 사업을 잘할수 없게 된다.

창작에서 보신주의, 요령주의는 새로운 분야의 개척이 없이 이것저것 재면서 형상을 무난하게 처리하는데서만 나타나는것이 아니다. 당에서 중요하게 해결을 바라는 문제에 같이 심장이 떨줄 모르고 현실에서 나타나고있는 부정을 보고도 피가 끓을줄 모르는 랭담성에서 나타나고있다.

우리 시대의 작가라면 누구나 예술영화 《보종》의 박신헌책임비서와 같은 투신력으로 당의 로

선관철에 한몸 서슴없이 바치는 진짜배기 담력을 지녀야 한다.

우리 작가들은 당이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 당이 요구하는 문제, 당이 힘을 넣자고 하는 문제를 민감하게 포착하여 작품에 반영하여야 한다.

예술영화 《보종》의 창작가들은 아직 누구도 엄두를 못내고있던 문제, 그러면서도 우리 당이 의도하는 문제를 대담하게 제기하고 예술적으로 훌륭히 해명하는데 서슴없이 뛰어들었다.

예술영화 《보종》은 우리 당의 군중로선문제를 직접 제기하고 그것을 대담하게 전면적으로 해명하였다.

작가는 이 영화에 우리 당의 군중로선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보편적인 생활현상에서 가장 의의있고 본질적인 문제를 예리하게 탐구하여 사람들을 사상정서적으로 뜨겁게 공감시키도록 확고한 창작적 주견을 가지고 대담하게 형상하였다. 오직 당의 로선을 끝까지 옹호관철하여 나갈것을 결심해나선 이 영화 창작가들의 투철한 당적 책임감이 박신헌이와 같은 우리 당이 요구하는 일군의 성격을 창조해낼수 있었던것이다.

작가들이 확고한 창작적 주견을 가지고 대담하게 새로운것을 창작하려면 당정책을 잘 알고 그것을 자기의 뼈와 살로, 확고한 신념으로 만들어야 하며 변화되는 현실에 민감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우리 당의 정책에는 현실생활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한 정확한 해답이 주어져있다.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은 사람들에게 생활을 옳바르게 이해할수 있는 눈을 띄워주며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와 그 해결방도를 과학적으로 밝혀준다.

작가들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교시와 그 구현인 당정책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예리한 정치적 안목을 가지고 복잡하고 다양한 현실속에서 본질적인것을 정확히 식별할수 있으며 당이 요구하는 좋은 작품을 쓸수 있다. 그러므로 훌륭한 문학예술작품을 창작해내려면 작가들이 여러가지 사회정치생활에 널리 참가하여 당의 로선과 정책을 제때에 알고 민감하게 인식하도록 하는것이 필요하다.

당정책을 심장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구현되는 현실에서 새것을 제때에 포착할 때라야 문학예술작품에서 사회적으로 의의있는 문제를 예리하게 들고나갈수 있다.

당에 대한 믿음은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대담성을 낳게 하는 힘의 원천이다. 작가들이 발전하는 현실에서 새것을 발견하였다 하더라도 당을 믿지 못하면 그것을 결코 대담하게 들고나올수 없다.

당을 믿고 당과 운명을 같이 할 때만이 확고한 창작적 대담성을 가질수 있다.

당의 의도와 요구를 깊이 체득하는것은 작가들이 자기의 본분을 다하는데서 나서는 가장 선차적인 문제이다. 작가들은 자기 임무를 다하기 위하여 우리 당의 위대한 주체적 문예 사상과 방침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당의 의도와 요구를 연구하기 위하여 응당한 힘을 넣어야 한다.

문학예술창작에서 대담성을 발휘한다고 하여 대작주의를 하여서는 안된다.

대작주의는 내용에 비해 규모나 형식을 크게 차려 쓰려는 그릇된 창작태도로서 창작사업에서 시급히 극복하여야 할 문제이며 반드시 경계하여야 한다.

지금 일부 작가들 가운데는 단편소설, 단편영화, 단막극과 같은 전투적이며 기동적인 문학예술형식의 작품을 창작할대신 장편소설, 장편영화, 장막물만 창작하려 하고있다. 지어 어떤 창작가들은 내용이 없는 생활소재를 가지고 2부작, 전후편이요 하면서 부피로 한몫 보려 하고있다.

이것은 다 인민성이 없는 관료주의적 표현이며 공명심의 발현이다.

력사에는 한생을 단편소설을 창작하여 이름을 떨친 작가도 있고 몇편의 단막희곡을 쓰고 세계연극제에 이름을 남긴 작가도 있다는것을 우리 창작가들은 알아야 한다.

작가들은 대작주의적 경향을 없애고 전문화방향으로 나가야 하며 자기의 전문분야에서 높은 정치적 식견과 세련된 예술적 재능을 가진 능수가 되어야 한다.

혁명적 열정과 기백, 창작적 주건과 대담성을 가지고 일하는것은 우리 작가들의 일본새이다. 우리는 창작사업을 패기와 정열에 넘쳐 진행하며 이끌어 나가야 한다.

모든 작가들은 창작적 주건과 대담성을 가지고 작품창작사업에 투신함으로써 혁명적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켜나가야 한다.

최명숙

백두의 꽃시절

성만실

눈계절뿐인줄만 알았구나
눈세상뿐인줄만 알았구나
백두산아

광란하는 눈보라는 어데 갔느냐
지금은 한창 꽃계절
그 어데를 바라보아도
신비로운 백두의 꽃세계

등판엔 함함한 만병초, 백두산진달래
물가엔 정향나무 꽃망을 봉긋이 터치고
이끼오른 수려한 숲우듬지엔
이슬에 함초롬히 젖은 들쭉쭉

꽃피울 땅은 많아도
열렬한 그 진정 여기에 터치고싶어
투사들의 붉은 피 진하게 뿌린
백두산야에 서둘러 피였는가

눈비에 젖은 군복 말리울새없이
감발치고 설피 신고 떠나간

투사들의 마음인줄 내 안다
묻지 말라, 묻지 말라
항일의 충성을 울리던 그 시절이 없구서야
꽃시절이 있을가부나

수령님 안고오신 봄이 있어
투사들이 이 땅을 더웁혀준 온기로 하여
꽃시절이 있는가부다
꽃시절이 있는가부다

가정도 있었으랴
사랑의 언약도 있었으랴
쓰러지면서도 혁명의 장구를 놓지 않은
저 불붙는 삶으로 하여
그뒤에 오는 봄은 저러히도 싱싱해

오, 꽃시절, 백두의 꽃시절은
피로써 찾은 우리의 삶이라더라
혁명이 지켜준 우리의 세계라더라
내 조국!

고향 - 조국을 두고

리수덕

오늘 우리 조국땅우에는 기나긴 세월을 두고 이름없던 고장들이 은혜로운 태양의 빛발아래 만사람의 마음속에 소중한 지명으로 간직된 그런곳이 수없이 많다.

김책시, 룡진리, 원진리, 보부리, 김제원리 !...

어머니조국은 준엄한 시련의 나날에 조국을 심장깊이 간직하고 한몸바쳐 싸운 자기의 참다운 아들딸들-영웅들의 이름을 잊지 않고 그대로 나라의 귀중한 지명으로 이름지어 부르고있는것이니 그 못 고장들가운데 하나가 바로 나의 고향 김제원리이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조국은 모든 사람들의 진정한 어머니이며 삶과 행복의 요람입니다. 참된 삶과 행복은 조국의 품속에서 시작되고 꽃피입니다. 조국은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으며 이 세상에 조국보다 더 귀중한것은 없습니다. 조국은 생명보다 더 귀중합니다.》

누구에게나 제 태줄을 묻은 고향이 있고 고향을 못잊는 마음이 있는것이지만 내 언제나 고향을 두고 생각할 때마다 조국에 대하여 생각하게 되는것은 아마도 내가 나서 자란곳이 조국과 떼여놓고는 이야기할수 없는 남다른 사연과 은정의 빛발이 깃들어있기때문인지 모른다.

얼마전에 나는 갖가지 아름다운 추억이 스며있는 재령나무리벌을 찾은 일이 있었다.

때마침 풍요한 가을날이었다.

반기듯 흥치며 설레는 아득한 벼바다, 그 한복판을 쪽진듯 가리마처럼 뻗어간 들길, 고향사람들의 숯부드러운 마음인양 소리없이 굽니는 재령강줄기... 나의 망막에 비껴드는 그 모든것이 그윽한 정취를 자아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바라본 조국의 하늘이 바로 고향의 높푸른 저 하늘이고 어머니의 축복을 받으며 내가 첫 걸음마를 댔 조국땅도 다름 아닌 이 고향땅임을 생각할 때 한그루의 나무, 한포

기의 풀, 한줌의 흙이 그지없이 정답고 살뜰하게만 느껴졌다.

고향! 그것은 짜장 나에게 있어서 삶의 첫 기슭이었고 조국을 인식하는 첫 출발점이기도 했다.

동구길에 접어든 나의 뇌리엔 동요시절의 못잊을 일들이 눈에 삼삼히, 귀에 쟁쟁히 되살아났다.

...환희롭던 토지개혁의 그 봄날이 떠오른다. 그때만 해도 이웃집의 푸수한 아저씨에 불과했던 김제원농민을 비롯한 농촌위원회의 핵심농민들이 고향벌을 가로세로 누비면서 논머리마다 토지분여패 말을 띄메로 쨍쨍 박아나가던 일.

그때 나도 덩달아 성수가 나서 흘러내리는 바지 피춤을 추슬러주고 그들의 뒤를 따라다니며 토지분여패말에 참먹으로 찍여진 나의 아버지와 동네 이웃사람들의 이름을 따듬따듬 읽으면서 조국의 고마움을 느끼던 일이 방불하다.

그리고 바로 그해 가을이었던가.

애국미헌납의 첫 달구지를 끌고 왈랑절랑 소방울소리도 정답게 새벽길을 떠나던 김제원농민의 미덥던 그 모습이며 뒤이어 고향길에 늘어섰던 애국미실은 달구지의 기나긴 행렬이 눈에 선하다.

그후 아버지수령님께서 애국미를 바친 김제원농민과 재령군농민들에게 보내주신 감사의 편지를 받아안고 온 동네가 잠 못들며 환희와 감격에 들끓던 일! ...

진정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을 찾아주시고 기쁨진 땅을 주시고 참된 삶의 권리를 안겨주시였기에 인생의 막바지에서 허덕이던 고향사람들이 애국미헌납의 첫 봉화드높이 건국의 성스러운 사업에 떨쳐나서게 되었고 버림받고 이름없던 고향땅이 온 조국의 축복을 받아안게 되었다. 이것은 하늘이 열리고 벌이 생겨 처음보는 경사였고 자랑이었다.

평화적 건설시기만이 아니었다.

조국이 엄혹한 시련에 직면했을 때 모든것을 전 쟁승리로 부르신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을 받아안은 김제원농민을 비롯한 고향땅의 근면한 농민들이

비행기, 땅크, 함선 헌납금으로 조국에 바친 지성은 그 얼마였던가!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조국과 운명을 같이 한 고향이었고 고향사람들이었다.

그때 나는 아직 넓은 세상을 다는 모르고 있었다. 하지만 조국의 숨결이 그대로 스며있고 위대한 사랑의 빔발이 깃들어 있는 고향, 그것은 나에게 있어서 곧 조국이었다. 정든 어머니 품이었다.

걸음걸음 추억을 더듬으며 걷던 나의 발걸음은 어느덧 아담한 문화주택들이 줄지어 늘어진 고향마을어구에 이르렀다.

바라보니 애국농민 김제원영웅의 반신상이 반기듯 안겨온다.

방금 풍년든 넓은 농장벌을 돌아보고 마을에 들어서는데, 아니면 모진 시련에 찌든 조국해방전쟁의 전략적인 일시적 후퇴시기의 그날, 최후의 비장한 결심을 품고 동구밖을 나설 때 마지막으로 정든 마을과 고향벌을 굽어보던 그 기상인듯 근엄한 빛으로 논머리에 서있는 영웅의 모습.

그 모습을 보니 자연히 생각이 깊어진다.

건국의 나날엔 애국미헌납운동의 선창자로 근로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조국에 바쳤고 준엄한 날엔 조국의 존엄을 지켜 생을 바친 농민 김제원!

그는 고향의 평범한 아들이었다.

그러나 그는 결정적인 순간순간에 응당 해야 할 일을 할줄 안 비범한 조국의 아들이었다.

그에게 있어서 장군님께서 안겨주신 귀중한 땅이 있고 참된 삶과 미래가 꽃피는 고향, 그것은 곧 행복의 요람이었으며 잠시도 떨어져서는 살수 없는 진정한 어머니조국의 품이었다.

그것을 온몸으로 체감하고있었기에 그는 고향을 지켜 조국의 존엄을 지켜 귀중한 목숨을 바쳤다.

물론 이것은 버림받던 대지의 이름없던 아들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 조선로동당원으로 내세워준 어머니조국에 바치는 아들의 응당한 도리였고 효성이었다.

하지만 조국은 그를 농민영웅으로 내세워 고향마을에 반신상까지 세우도록 했다. 그뿐이 아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그는 그가 살던 대흥리를 김제원리로 고쳐부르도록 크나큰 은덕을 베풀어주시었다. 그리하여 그전엔 고향땅의 수수한 농민으로 이

웃집에서나 그 이름을 기억하던 김제원농민이 오늘은 온 조국의 사랑받는 영웅으로 천만사람의 마음속에 영생하고 그 이름은 조국의 한 지명으로 새겨져 빛나는것이다.

고향은 영웅을 낳았고 영웅은 어머니조국의 넓은 품속에 안기여 영생의 삶을 누린다.

진정 고향의 품이란 애국자-영웅은 죽어서도 안기여 영생하는 그런 귀중한 요람이 아닌가.

나는 뜨거운 감회에 젖어 고향마을과 풍요한 들, 고향의 푸른 하늘을 다시 정겹게 안아본다.

상념이 깊어진다. 고향-조국을 두고.

고향, 그것을 어찌 태어난 고향이어서 한갓 지명으로 외우는 개념이라고 생각할수 있으랴.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사랑의 은정에 떠받들리워 어제와 오늘, 래일의 밝은 미래가 비껴있는 고향, 그것은 곧 조국의 모습이 아닌가!

해와 별 찬란히 빛나는 이 강산, 넓은 조국땅의 그 어느 고장치고 어머니조국이 안겨준 제나름의 축복과 영예가 깃들지 않은곳이 그 어디 있으랴.

못사람들의 마음속에 소중히 간직된 그 수많은 고향땅들이 이어져 조국의 강토를 이루었고 하많은 고향하늘이 잇닿아 조국의 지붕으로 엮였거늘 어찌 고향을 떼어놓고 조국에 대하여 말할수 있으랴.

자기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은 곧 자기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고향을 사랑하지 않고 고향앞에 이바지한것이 없는 사람은 어머니조국의 참다운 아들딸일수 없다.

고향땅에 뿌리를 내렸든, 다른 그 어느 초소에 있건 언제나 어머니조국의 자식된 도리와 바쳐야 할 지성을 자각하며 사는 사람만이 참된 애국자로 될수 있는것이다.

나는 정든 고향땅을 떠나면서 속으로 이렇게 다짐했다.

한없이 귀중한 고향, 어버이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마련해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어머니조국이어! 내 그대의 참다운 아들이 되는 길이라면 한생을 살 심장 한순간에 태운다 해도 서슴없이 나서리라.

그처럼 빛나게 값있게 살고저.

축복받은 꽃송이

장마를 걷어올린 맑고 푸른 하늘, 초가을의 눈부신 햇빛, 햇곡식을 여물쿠는 싱그러운 바람...우리는 보통강변의 동쪽길을 따라 취재지를 향하고있었다.

실실이 흐느적이는 버들가지사이로 아담한 건물들이 보인다. 거기 어느 한 방에서는 창작의 붓을 고누어든 녀성작가가 사색의 심연속을 비상한 열정을 안고 헤쳐나갈것이었다.

오혜영, 당년 32살, 아이를 키우는 가정부인이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 유명한 작가들도 감히 바라볼수 없는 영광의 상상봉에 올라섰는가?

우리 당의 주체적 문예사상을 영화문학에 훌륭히 구현하여 작가의 언어로가 아니라 생활적인 언어로 창작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 오혜영동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최근에 그가 영화문학을 쓴 예술영화 《요람》 1, 2부와 《나의 행복》을 보시고 올해의 영화들중에서 최고걸작이라고 크나큰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작가와 작품에 인민상을 수여하도록 뜨거운 배려를 돌려주시였다.

창작년한이 얼마 안되는 신인작가가 이렇듯 문단에 일대 파문을 일으키며 대성공을 한 때는 아직 없다. 그래서인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을 찾아가는 우리의 마음도 환희속에 잠겨있었다.

문득 어디선가 감미로운 꽃향기가 바람에 실려왔다. 욕심스럽게 폐부깊이 들이키고싶은 독특한 향기였다.

동쪽가녁에서 몇떨기의 빨간 나리가 우리의 눈길을 끌었다. 지루한 장마에도 청신한 그 자태를 잃지 않고있다가 눈부신 해빛을 받아 불길처럼 피어난것이다. 강렬한 아름다움이였다. 형상적으로도 무척 낯익은 감이 든다.

(어디서 보았던가? ...)

잠시 기억을 더듬는 우리의 눈앞에는 하나의 생동한 화폭이 불쑥 떠올랐다.

...진지뒤, 후미진 바위곶에 한송이 빨간 꽃이 피어있었다. 불타고 뒤집히고 파헤쳐진 황폐한 배경속에 그 신선한 빨간 빛은 놀라움도룩 황홀하였다.

산나리, 빨간 산나리!

류다른 그 어여쁨을 뽐내지 않고 수풀숲에 소꿉이 숨어서 가냘픈 즐거움을 꽃꽂이 펴고 불길처럼 빨강게, 열렬하게 필줄 아는 아름다운 꽃이었다.

...

이것은 1981년 12호 《청년문학》에 실린 오혜영의 단편소설 《빨간 나리》의 인상깊은 장면이다. 아니 우리 문학의 화원에 참신한 향기를 풍기며 수집게 피어나던 오혜영동무의 얼굴이였다.

확실히 소설은 이채롭고 여운이 짙었다.

인간의 사유활동에 망각은 시고때고 없이 기여드는 불청객이다. 그놈은 소설이 괜찮다는 느낌만 남겨놓고 사람들한테서 기억이라는 고유명사를 술금술금 빼낸 다음 삭막이라는 형용사로 그 공간에 연막을 쳐놓았다. 지어 어떤이들에게는 작가가 포연탄우를 헤쳐온 전쟁참가자일것이라고 제나름의 해석을 달게도 했다.

그러나 한없이 자애로운 어머니당은 청초한 꽃송이에서 풍기는 향기를 잊지 않고있었다. 이름없는 문학통신원의 미숙한 글에서 생활에 대한 열렬한 사랑과 투쟁에 대한 강한 호소성의 싹을 보았으며 미구에 문단을 뒤흔들 시대창가의 격조높은 멜로디를 헤아리었던것이다.

물론 그때까지만 하여도 오혜영은 연약한 꽃송이에 불과했었다. 그런 그가 이 세상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는 사려깊은 빛발아래 오늘은 못사람들을 현혹케 하는 아름다운 꽃으로 활짝 피어나 독특한 향기를 내뿜고있다.

전후에 태어난 신인작가가 새 조국 건설과 조국해방전쟁을 시대적 배경으로 놓고 참신한 생활을 진실하게 가식없이 펼쳐면서 성공의 명마루로 단숨에 치달아오른 비약의 원동력은 무엇인가? 그의 문학세계는 어떤 차원이기에 이렇듯 기성관념을 깨뜨리고 한해에 두편의 걸작이 태어나게 하였는가?

작가를 만나러 현관계단을 오르면서도 우리는 머리속에 술한 의문부호를 그리였다.

취재길에서 그러보던 작가의 환영은 너겉풍의 림름한 체구에 성격도 목소리도 남성적인 모습이였다. 현대 실재로는 보통키에 곱살한 그리고 내성적인 기질이 다분하게 내뿜힌 아련한 녀자였던것이다. 창작실에 들어선 우리한테 상냥한 미소를 지으며 다소곳이 머리를 숙이는 거동은 마치도 새 담임교원을 맞는 소심한 녀학생을 방불케 했다.

일필휘지로 펼쳐놓은 영화의 매 장면들에는 얼마나 호방하고 씩씩한 성격들이 살아 움직이고있는가, 거기에 흐르는 생활은 또 얼마나 윤택하고 격조높은가! ...

우리가 찾아온 사연을 이야기하자 그는 귀망을
까지 흥시처럼 붉게 물들이며 의자를 권한다.

《아직 문학에서는 초학도인 저에게서 별로 들어
볼만한 이야기가 있겠습니까?》

작가와 마주앉은 우리는 직업적인 습관으로 방
안을 둘러보았다. 녀성의 섬세한 손길이 숨배여진
비품들과 화분들… 벽면을 가득 채운 서가들, 거기
에는 정치, 경제, 문화, 군사분야의 다종다양한 책
들이 구색이 맞게 꽂혀있었다. 수수한 원탁우에는
원고지가 무드기 쌓여있다.

《무슨 작품을 또 쓰십니까?》

《혁명영화의 초고인데 욕망뿐이지 잘 안되는구
만요. 방금전까지 나는 눈물이 날 지경으로 진통을
겪고있었답니다.》

작가는 원고를 간중그리며 밝은 웃음을 지어보
인다. 하지만 눈에는 고뇌의 흔적이 력연했다.

허심하고 솔직한 녀인이었다.

우리는 작가들의 창작적 고충을 잘 알고있다.
더구나 명작이라는 신비한 세계에 들어선 사람이면
아무리 풍부한 경험과 재능을 겸비했을지라도 진펄
땅에 초석을 고이듯 온갖 간난신고를 치르어야 하
는것이다. 보통 담력이나 열정가지고는 어렵도 없
는 일이었다.

이 모든것을 혼연히 감수하면서도 간단히 표현
하는 그의 말에서 우리는 외유내강한 작가의 모습
을 다시 보게 되었다. 방금전의 아련한 외모와는 대
조적이다.

녀작가의 크고 그윽한 눈동자에서 례의 그 빨간
나리꽃이 불길처럼 피어나는듯한 환각에 우리는 저
도 모르게 두눈을 습벽이었다.

《듣자니 오동무에게는 생활을 감각적으로 남다
르게 체현할줄 아는 천성적인 재능이 있다고 하는
데 사실입니까?》

《어마나! …》

녀작가는 손등으로 입을 가리우며 소리내어 웃
었다.

《그건 억측입니다. 물론 저는 생활을 무한히 사
랑합니다. 이 세상 모든 행복을 한껏 누리는 새 세
대로서 오늘의 이 격동적이고 보람찬 생활을 외면
한다는것은 비정상이지요.》

《물론이지요. 그런데 현재생활도 아니고 작가동
무가 태어나기 훨씬 이전의 생활을 그렇듯 자유분
방하게 립체적으로 방불히 그려내는것은 그 어떤
경이적인 축적이 있기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행복을 누리기에 앞서 그것을 가꾸는데
서 삶의 참된 보람을 느낀다고 하잖나요. 부끄러운
일이지만 저는 이 생활의 진리를 뒤늦게야 깨달은
불만한 응석반이었습니다.》

녀작가는 피롭게 한숨을 툴아올리며 고개를 푹
숙이었다.

《? …》

《학교시절만 해도 나는 차례진 행복에 취해서
시대가 무엇을 지향하고 생활은 어떻게 가속화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만일 우리가 피로써 쟁취한 혁명의 전취물을 지
키고 빛내어나갈대신 좋은 환경의 그늘밑에서 소비
만 하면서 안일을 추구한다면 사회는 어떻게 되겠
습니까?

무엇인가 자신에 대하여 불만을 느끼면서도 그
것을 타개하려는 노력을 못했습니다.》

우리는 눈을 크게 뜨고 녀작가를 주시했다. 인
간으로서 자신을 완성된 존재로 생각하는 지성인은
물론 없다. 그렇다고 구태여 까발힐 필요가 없는 세
계관형성이전의 흠아닌 흠까지도 헤쳐보이며 자신
을 심각하게 채찍질하는 그런 사람도 드문것이다.

《결국 생활을 외면하는것은 새 세대가 아니며
창조와 투쟁을 포기하면서 속물로 퇴화되는 가련한
인생이지요…저는 그렇게 살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성장하던 1970 년대가 어떤 격동적인 시
대였습니까!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위
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왕성하시려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력도로 온 나라
가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로 들끓고 기적과 사변들
로 가득차있었지요. 그 거창한 생활의 소용돌이가
안온한 구석에서 늦잠을 자던 나를 흔들여깨워주고
정신차리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작가의 이야기에 점점 더 이끌려 들어갔
다.

향도의 찬란한 해발아래 사람도 사회도 주체의
요구대로 일신되던 그 나날…조국의 방방곡곡에는
우리 혁명의 영광스러운 력사를 빛내이는 시대의
대기념비들이 솟아오르고 창조와 건설의 세찬 불바
람을 안고 위대한 전변의 새 력사가 펼쳐지고있었
다.

그 빛나는 화폭속에서 숨은 영웅들이 시대의 전
형으로 태여났고 20 대의 박사, 꺼마서예가, 세계탁
구너왕들이 재능을 활짝 꽃피우며 생활을 더욱 아
름답고 풍만하게 장식해나갔다.

오혜영은 그들의 장한 모습에 자신을 비추어보
며 생각이 깊어졌다.

(나는 지금껏 무엇을 하고있었는가? …)

소년단에 입단할 때 도 사로청에 가맹하면서
붉은기앞에서 혁명의 믿음직한 후비대로 준비하겠
다고 맹세를 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우리또래인 그
들과 나와의 정신적 차이는 얼마나 까마득한가…

오혜영은 자신을 자각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생활의 격류속에 몸을 폭 잠그고 창조와 투쟁으로 자신을 부단히 수양하여 우리 인민의 보람찬 생활을 격조높이 읊조리는 시대의 가수가 되고 투쟁의 나팔수가 되리라 마음다졌다.

《…무엇보다먼저 자신의 정신적 식견을 넓히고 우리 시대의 인간들과 그들의 생활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는것이 중요했습니다. 그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동서고금의 명작들과 자료들 그리고 풍속세태를 제판으로 연구도 하고 닥치는대로 읽었습니다. 그랬지만 성공의 길은 묘연하였습니다. 점점 더 문학의 세계에서 오리무중에 빠져드는 자신을 두고 동요도 했고 안타까이 모태겨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허사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처지에 빠져있던 나에게 커다란 행운이 차례졌어요.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의 불후의 고전적 로작 <영화예술론>을 접하게 되었던것입니다. 첫장부터 마감까지 단숨에 읽고난 저는 막 환성을 올렸답니다. 마치도 어둠속을 헤매던 사람이 눈부신 광명을 받아안은 때의 벅찬 감정이랄까! -》

로작을 읽고 또 읽으면서 그는 자기에게 대공을 날아낼수 있는 날개가 생겨난듯한 환희에 휩싸여있었다. 그 심원한 사상은 창작의 대백과사전이었으며 생활과 문학탐구의 지름길을 밝혀주는 해발이었다.

문학신인 오혜영은 주저없이 비약의 나래를 펴고 천태만상의 생활우주를 가로세로 누벼나갔다. 남이 안가본 미지의 생활세계를 개척하면서도 그 끝을 보기전엔 물러서지 않았고 각이한 심리들의 미묘한 움직임과 특징들 그리고 사소한 세부라도 놓치지 않고 축적이라는 거대한 창고속에 잡아넣었다.

오혜영은 자신에 대한 요구성을 무제한 높이였다. 그는 자매예술을 문학에 활용하여 형상적 사유의 폭을 넓히기 시작하였다. 생활의 립체성을 보장하는데서 음악적인 감각과 화폭적인 묘사는 중요한 수단의 하나인것이다.

한번은 그림애호가인 촬영소의 녀배우가 그의 집에 놀러 갔다가 벽에 걸린 인물화와 풍경화를 보고 어느 미술상점에서 샀느냐고 물어서 웃긴적도 있다.

사람들은 깊은 밤 오혜영동무네 집에서 은은히 흘러나오는 바이올린소리를 들으며 이름난 연주가의 지칠줄 모르는 기교훈련으로 생각했을수도 있을 것이었다.

녀작가의 작품에서 생활세부의 섬세성, 예민한 감정의 금선들 그리고 매혹적인 성격들이 진실하게

안겨오는것은 우연이 아니라 바로 이런 고심참담한 탐구의 필연적인 산물이 아닐가!...

작가 오혜영은 박식하고 언변도 좋았다. 어찌나 말을 실감있게 하는지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작가의 세계속에 끌려들어가곤했다.

《…어느날 중학교동창생을 만났었는데 그는 날 보고 하많은 직업중에서 왜 문학을 택했느냐고 묻지 않겠어요.》

《그것 참 흥미있는데요. 그래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녀작가는 또다시 상긋 웃었다.

《저는 그 동무에게 문학을 하는건 직업이 아니라 혁명사업이라고 말해주었어요. 그리고 난 아직 작가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아니 그건 어째서요?》

《제가 어찌 감히 작가라고 말하겠나요. 작가는 인간이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사람들에게 일깨워주는 시대의 선각자들이 아닙니까!》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작가보다 더 고상한 칭호는 이 세상에 없다고 하시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한없는 사랑과 믿음에 아직 이렇다 할 보답을 못하고있습니다.

제가 작품을 썼다면 얼마나 잘 썼겠습니까. 돌이켜보면 저의 문학에로의 성장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떼어놓을수 없는것입니다. 그이의 사랑과 믿음이 걸음마다 자양이 되고 비약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기자동지들도 아시겠지만 해빛을 못받은 꽃이 피여날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저의 미숙한 작품을 보실 때마다 대견해하시며 분에 넘치는 치하와 고무를 주시였고 오늘은 이렇듯 영광의 자리에 올려세워주시였...

녀작가는 그만 말끝을 마무리지 못하고 어깨를 떨기 시작했다.

이름할수 없는 크나큰 충격이 우리의 가슴을 세차게 흔들며 감격의 파도를 불러일으켰다. 우리 시대 인간들에게 차례지는 크나큰 영예와 행복을 두고 많은것을 생각해 하는 순간이었다.

참으로 이 땅에 삶을 둔 모든 사람들은 얼마나 복받은 인생들인가!

은혜로운 향도의 해빛은 누리에 넘쳐 그 찬란한 빛발속에 가장 아름다운 꽃들이 다투어 봉오리를 터치는 우리 문단의 대화원! 거기서 풍겨나는 향기는 또 얼마나 그윽한것인가!!...

《사랑과 믿음에는 충성으로 보답하는것이 전사의 의리이고 본분이 아니겠나요. 그래서 저는 사람

들을 자연과 사회를 변혁해나가는 실천투쟁으로 불러일으키는 시대의 기수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의 영화문학에 새형의 녀성혁명가들이 많이 나타날겁니다. 력사의 한쪽수레바퀴를 담당한 그들이 사회주의완전승리를 앞당기는데 일정한 기여를 한다면 그때 가서 저는 작가라고 긍지높이 말하렵니다.》

시대와 력사 앞에 지닌 자신의 무거운 사명감을 스스로 자각하고 거기서 참된 삶의 보람을 찾는 주체형의 인간- 이런 전형을 더 많이 창조하여 공산

주의아침노을을 남먼저 맞이하려는것이 작가 오혜영동무의 리상이였다.

우리는 그의 리상이 머지 않아 실현되리라는 확신을 안고 귀로에 올랐다.

복받은 대지에 해빛은 더욱 눈부시게 비치고 동쪽가에서는 레의 그 빨간 나리꽃이 여전히 짙은 향기를 뿜어올리고있었다.

본사기자 문상봉

뜨거운 불앞에서

장원준

불목데기라 불리우던
남의 집 화구공 나의 아버지의 어린날
다 해진 베잠뱅이로는
겨울보다 찬 떨시의 눈초리 가릴수 없어
불을 놓고... 불앞에서 몸이 얼었다

부엌데기라 부르던
《부엌녀》 나의 어머니
덧기운 몽당치마를 다 태우며
오무라든 입으로 겨울을 불어 쫓으려다
원한 많은 상처를 남긴 모진 그 세월...

불!
불은 무엇이었던가
그앞에 얼어야 했던 가슴들에
교통의 채를 뿌리고뿌린
그것은 피의 고드름 맺힌 암흑의 설한
노예의 터갈린 잔등우에 쓰리도록 놓여졌던
그것은 차디찬 얼음

그래서였던가
망국의 하늘가득 서리고 서린
그 차거운 비운을 가져주신 우리 수령님
불목데기라 불리우던 나의 아버지
불앞에 주인으로 세워주시고
《열관리공》이라 다정히 불러주시길 때
목메여... 목이 메여...

아, 뜨거웠다
얼어굳었던 아버지의 가슴에서

더운 피 소리없이 흐르고
그 믿음 고마워 불앞을 못떠나는 아버지
내 철없이 찾아가면
땀젖은 그 어깨너머
이 작은 가슴도 포근히 녹여주던 불!

불이여
너 무엇이어서
수난의 그 세월 한여름에도 온몸을 얼구었고
나라찾은 그날엔 환희와 기쁨으로 타올랐던가
내 또한 아버지의 뒤를 이어
한생을 맺고사는 불이여
말하라
너 진정 차갑던가 뜨겁던가

오, 불! 불!
그것은 조국이 있어야 뜨겁고
주인된 가슴앞에서만 활활 타오르거니
복받은 이 땅
내 모든것의 주인으로 사는 이 하늘아래선
그렇다, 불이 뜨겁다

불이여, 뜨거운 불이여
너로써 조국을 받드는 나는 《열관리공》
너를 잃으면 싸늘한 재로 될 이 몸
너를 지켜 내 삶은 언제나 뜨거우리
화실에서 타오르고 가슴에서 타오르는
아, 불은
내 사랑하는 조국을 위해 언제나 꺼지지 않으리라!

국경도시의 밤

김명남

아이들은
손을 쏴아가며
서둘러 새날을 부르고

한밤에도
때없이 달력을 바라보며
진정할줄 모르는 마음과 마음 싣고
압록강의 물결도 출렁이는곳

형제나라 몽골을 방문하시려
또다시 압록강을 건너가신 수령님
기다려 기다려 간절한 마음들이
때없이 달려와 쌓이고쌓이고...

수령님 가시는 길에
한떨기 향기론 꽃송이 되고
궤도의 고임돌 되어
모시고 받들고싶은
온 나라 인민의 마음은
새벽에도 저녁에도 떠날줄 모르고...

먼길에 잘 다녀오시라
어제도 간절히
오늘도 뜨거이
수령님 안녕만을 바라는 소원
꽃으로 피어나는 우리의 국경도시

밤은 깊어
별들도 잠에 들었어도
우리 수령님 생각으로 잠 못드는 그 마음
집집의 창가마다 흙모의 눈빛인양
밝은 불빛으로 꺼질줄 몰라라

오, 그래서 더 큰 위훈을 새겨안고
그래서 더 큰 자랑을 안고
우리 마음속에 솟아있는 국경도시의 밤
먼세월 흘러가도
그날에 달려온 인민의 마음은
이 도시의 이름속에 영원히 빛나라라

미 소

권태여

이삭이 무거워
두령을 베고 누운듯
아름찬 기쁨에 취해
논둑에 기대선듯

스적이는 벼이삭
감춘듯이 길을 메운 가을날
걸지 못하고 섰네
농장의 관리위원장

봄내 여름내
열두작업반이 달려온 자욱
다 지워버린 농장별
어느 분조를 찍으랴 어느 반을 쏴으랴

모내기철에
김매기철에
작업반기발이 꼬리에 날릴세라
승벽을 다투며 바빠 뛰던 길

이 가을날엔 다 합쳤구나
저마다 가꿔온 포전들을
나라쌀독에 한마음 쏟아부은
알뜰한 그 정성을

아, 길을 덮은 풍년벌
수령님께 기쁨드린 미더운 얼굴들이
웃으며 반기며 춤을 추는듯
흐뭇이 미소 짓네, 농장의 관리위원장

메아리

조명기

강화도쪽에서 물기를 잔뜩 머금은 비릿한 바다 바람이 쑈-하고 불어왔다.

그 바람을 못이겨 저쪽 트락구석에 우중충하게 서있는 감나무에서 꼭지무른 감 한알이 툭 하고 떨어졌다.

얇은 얼음장우에 선것처럼 마음이 긴장해있던 손수만은 흠칫 놀라 숨을 죽이고 귀를 강구었다. 그러나 더는 아무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다.

바람이 멎자 사위는 다시 피피한 정적속에 잠기었다.

달없는 밤이었다. 검은구름이 하늘을 짝 뒤덮은 탓에 별조차 없었다. 어둡고 무거운 장막이 온 천지를 뒤덮었다. 다만 저멀리 북녘하늘가만이 암운이 채 뒤덮지 못하여 희뵈하였다. 그것이 유일한 빛이었다. 그 빛마저 없다면 이 세상은 영영 암흑속에 잠기고말것 같았다.

불안한 밤이었다.

이 밤 열두칸짜리기와집마루에 홀로 앉아있는 손수만은 가슴이 답답하여 후-하고 긴숨을 내쉬고 나서 양복웃주머니에서 담배쌈지를 꺼내었다. 손가락만하게 담배를 말아 두툼한 입술사이에 끼운 손수만은 왼쪽주머니에서 성냥을 꺼내여 북 그었다. 단번에 불이 확 일었다. 그 불빛속에 바오래기같이 터갈라진 손가락들과 수염이 꺼칠한 손수만의 얼굴이 자태를 드러내었다.

손수만은 담배끝이 빨갛게 타기 시작하자 성냥가치를 홀 붙어서는 발옆에 내치었다. 그것이 늙은 개대가리에 떨어졌다. 그바람에 쭈 내뺀친 두 다리우에 턱을 고이고 잠을 청하던 누렁이가 후닥닥 뛰여일어나서 대가리를 세차게 흔들어대었다. 그리고 나서는 불평을 하듯 쿵쿵 코를 내불고 켑켑거렸다. 그래도 손수만이 알은체를 하지 않자 누렁이는 다시 그자리에 배를 대고 었디었다.

사위는 여전히 위죽은듯 피피하였다.

손수만은 이 정적이 더욱 불안스러웠다.

자정무렵까지는 술한 사람들이 드나들며 부산을 피웠으나 그들은 이미 북으로 혹은 산으로 떠나갔다. 그러고나니 인간세상과 인연이 끊어진 절해고도에 자기 혼자 남은것 같았다.

이 숨막힐듯 답답하고 외로운속에서 유일하게 위안을 주고 마음의 의지가 되는것은 기둥에 걸려있는 인민위원회간판이었다.

손수만은 서기장한테서 간판을 떼가지고 산으로 들어간 사람들을 뒤쫓아가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러나 그 간판을 선뜻 뗄수가 없어 벌써 한식경이나 이려고 앉아있는터였다. 한것은 그것을 쳐다만 보면 감장세루치마에 흰 옥당목저고리차림의 체소한 너인의 모습으로 변하기때문이었다. 이제 자기가 간판을 떼기만하면 영영 그 모습을 다시 볼수 없을것만 같은 생각이 들었던것이다.

(아니! 내가 정말 이러고있으면 어쩐단말인가.)

후-하고 긴 한숨을 내신 손수만은 움쭉 몸을 일으켜 간판모서리를 부여잡았다.

바로 이때 뒤울안에서 《빠격》 하고 피피한 정적을 깨치며 일각문 열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

누렁이가 어느새 켑켑 짓으며 뒤울안으로 먼져 달려갔다. 그런데 갑자기 조용해지더니 반갑다고 끽끄끄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서기장어른이 걱정되어 되돌아온게 아닌가?)

손수만은 서둘러 토방을 내리어 뒤울안으로 돌아갔다.

일각문앞에서 사람의 형체가 어른거렸다.

《게 뉘요? ...》

손수만은 조용히 물었다. 그런데 검은 그림자는 흠칫 한걸음 물러설뿐 대답이 없다.

순간 불길한 특감이 손수만의 가슴을 쿵 찢렸다.

《게 뉘...뉘요?》

손수만은 갑자기 입술이 무거워져 더듬거리며 재차 물었다.

그제야 검은 그림자는 손수만이앞으로 나섰다.

《손서방! 내다... 내야!》

《아니, 내라니요?!...》

《흥, 개도 주인을 알아보고 꼬리를 젓는데 체 주인도 몰라봐!》

손수만은 덜컥 가슴이 무너져내리는것 같아 더는 입을 열지 못하였다.

목소리의 임자는 바로 몇달전에 인민군대가 진격해오는바람에 쫓겨달아났던 옛주인 지병선이었던것이다.

손수만은 지병선을 몰라보지 않았다. 그가 세상에 태어나기전부터 이 집에서 종노릇을 해온 손수만이 어찌 젊은 주인을 몰라보겠는가. 다만 너무도 가슴이 서늘하고 땅이 꺼지는듯하여 알은체를 하지 못할뿐이었다.

지병선은 제법 의젓하게 지껄어댔으나 선뜻 다가서지는 못하고 주뭇거리었다.

그러자 뒤에 서있던놈이 먼저 앞으로 나섰다.

《저 령감밖에 아무도 없시다.》

그것은 마을에서 이름난 건달군인 최선달의 목소리였다.

그제야 지병선은 손에 쥐고있던 권총을 잡아주머니에 찌르며 손수만의 앞을 지나 프락으로 나섰다.

프락한가운데 뻗치고 선 지병선은 버리고 쫓겨갔던 보금자리를 빙 둘러보았다. 그러나 어둠때문에 아무것도 가려볼수가 없었다.

지병선은 퇴마루에 훌쩍 올라서며 소리쳤다.

《손서방, 이리 와!》

귀에 못이 박힌 호통소리를 들으며 손수만은 수령논을 걸어가듯 무거운 걸음으로 지병선이 앞으로 다가갔다.

그전처럼 지병선은 마루에 앉고 손수만은 토방 아래에 마주섰다.

《그래 이 지병선이가 영영 다시 못올줄 알았나?》

지병선은 애써 레사롭게 물었다. 그러나 손수만은 두툼한 입술을 꼭 누르고 태연히 서있었다.

지병선은 울화가 치밀었다.

《두상도 내 땅을 받았단지?... 흥 벼락맞은 소고기처럼 남의 땅을 마구 노나가져. 그래 시퍼런 하늘이 무섭지 않던가?》

지병선은 꼬나문 담배에 철컹 라이타를 켜대고는 새벽빛속에 자태를 드러내기 시작한 빼앗겼던 제 집을 둘러보았다. 그의 눈길이 제옆의 집가운데기둥에 미치는 순간 지병선의 몸은 회초리를 맞은 뱀처럼 일시에 뻗뻗해졌다.

흰백자판에 진한 먹으로 박아쓴 《청계리인민위원회》라는 글발이 그를 노려보고있었던것이다.

지병선은 지탱해오던 자제력을 잃고말았다. 검붉어진 말상이 푸들푸들 떨리었다.

《두상, 저 간관을 때라!》

그 소리에 손수만은 새벽빛속에 뚜렷이 자태를 드러낸 인민위원회간관을 쳐다보았다.

글자의 획들이 선명하게 보이는 흰백자판에 아까처럼 체소한 녀인의 모습이 또다시 어리었다.

강퓡한 검정세루치마에 흰 옥당목저고리를 산뜻하게 받쳐입은 그 체소한 녀인은 다소곳이 고개를 숙이고서서 손수만을 내려다보고있었다.

그 녀인은 언제나 다소곳이 고개를 숙이고 다니었다. 누구와 말을 할 때에도 무슨 일을 할 때에도 버릇처럼 고개를 숙이였다. 그래서인지 손수만에게게는 그의 가름하고 강퓡한 얼굴모습보다도 잔술발

에 난 오솔길처럼 까만 머리에 끈게 넘어간 가리마와 살결이 젖먹이 어린애처럼 희고 맑은웃에 파뿔한 피줄들이 그대로 보이던 좁고 뽕얀 이마가 더욱 생생히 눈앞에 안겨왔다.

《못떼겠는가?!》

지병선의 악에 받친 고향소리에 눈앞에 뚜렷이 안겨오던 녀인의 모습이 자취를 감추었다.

지병선의 기색을 지켜보고있던 최선달이 제사 겁이 나서 냉큼 마루에 뛰어올라 와락 간관을 쥐여당겨 마루우에 동댕이쳤다.

그것을 지켜보는 손수만의 아래턱이 가늘게 떨리었다.

《두상 대패로 간관을 밀어라! 어서!》

지병선의 고향소리가 등뒤에서 다시 들려왔다. 그다음 선뜻한 죄불이가 이마에 와닿았다. 악에 받친 지병선이 내민 총구였다.

손수만은 온몸이 싸늘히 식어들고 피가 굳어지는듯하였다.

이루 다 말할수 없는 고통을 당하며 살아온 손수만이였다. 지병선의 발길에 채워 피도 토해보았고 죽기보다 어려운 멸시도 당해보았다. 그러나 총구를 몸에 대어보기는 난생 처음이였다.

손수만은 대패를 집어들었다. 그러나 자기 몸에 칼을 대는것 같아 차마 대패질을 할수가 없었다.

제사 마음이 한줄만 하여 지병선의 눈치를 살피던 최선달이 냉큼 대패를 빼앗아가지고 미친듯이 간관을 밀어댔다. 그가 씩씩거리며 대패를 당길 때마다 글자의 획들이 희뜩희뜩 상처를 입었고 그다음 형체마저 없어졌다.

손수만은 저도 모르게 대패를 빼앗으려고 한결 음 내짚었다. 그러나 싸늘한 총끝이 그를 막아섰다. 그는 강약이 부동으로 주춤 서버렸다.

시공간적 의식마저 마비되어버린 손수만은 켈해진 눈으로 프락만 내려다보며 앉아있었다.

그의 눈에는 어느새 대문으로 꾸역꾸역 모여들던 마을사람들이 보이는것 같았다.

...어른 아이 할것없이 마을사람들이 발뽕길 틈이 없이 프락에 짹 모여들어 웅성거리였다. 토방우에 감장세루치마에 흰옥당목저고리 차림의 체소한 녀인이 불쑥 올라섰다. 그러자 웅성거리던 프락이 일시에 조용해졌다. 손수만은 반가운 눈길로 녀인을 바라보았다. 《정치공작원!》 하고 소리쳐부르고싶도록 정이 동해났다. 녀인이 바로 침침한 머슴방에 찾아와 손수만의 터갈라진 손을 자꾸 쓸어만지며 자기가 이 마을에 파견되어온 정치공작원이라고 인사를 하던 그 녀인이였다. 그때 방안을 둘러보던 녀인은 호-하고 한숨을 내쉬고나서 살결맑은 흰

손목이 보이도록 옥당목저고리를 걷어올리고 손수만이 사는 머슴방을 거두기 시작하였다.

손수만은 어안이 병병하여 오랜 세월 담배연기에 검누래진 벽에 뽀얀 흙매질을 하고 마디마다 빈대가 숨어있는 헌 멧석을 걷어내고 새 갈노전을 깔아줄 때까지 그저 혼나간 사람처럼 지켜보기만 하였다. 그러다가 일이 끝날무렵에야 제정신이 든듯 앞을 막아서며 옷이 더러워진다고 걱정을 하였다.

《아버님, 일없습니다. 옷이야 빨아입으면 되지요.》

너인은 일손을 멈추고 손수만을 측은한 눈길로 지켜보았다.

순간 손수만은 이미 저세상으로 가버린 딸 생각이 불쑥 치밀어 숨이 껍 막히는듯하였다.

처녀가 딸과 나이가 비슷해서만이 아니었다. 모습과 체취까지도 비슷하였다. 밝게 웃을줄도 살뜰하고 다사하게 이야기를 할줄도 모르고 그저 다소곳이 고개를 숙이고 일만 수격수격하는 모양이 신통히도 두해전에 저세상으로 먼저 간 딸과 흡사하였다.

손수만은 마치도 죽었던 딸이 심청이처럼 되살아나 귀인이 되어 아버지를 찾아온것만 같아 가슴이 후두두 뛰고 눈곱이 뜨거워나서 어쩔줄을 몰랐다.

그날밤 손수만은 정치공작원이 문앞에 서서 자기를 지켜보는것만같아 종시 잠을 이루지 못했었다.

그 정치공작원이 지금 누구를 찾는지 두리번거리며 프락에 모인 사람들을 살피보았다.

손수만이와 눈길이 마주쳤다. 그러자 정치공작원은 반가운 목소리로 《아버님!》 하고 부르며 달려와서는 손수만의 팔을 이끌고 토방우에 올라섰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손수만을 쳐다보았다.

생전 처음 사람들앞에 나서보는 손수만은 관청에 잡혀온 촌닭처럼 어안이 병병해졌다.

《여러분!》

정치공작원은 사람들을 둘러보았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쳐다보았다.

정치공작원은 한생을 천대와 멸시 속에 살아온 손수만 아버님에게 인민위원회간판을 쓰게 하자라는 의견을 사람들앞에 내놓았다.

모두들 제게 차려진 영광처럼 기뻐하며 찬성해나섰다.

《참, 정말 세상은 희한하게 되었소!》

《그러기말이요. 오늘은 손서방이 신선이 되어 승천하는 날이구만!》

《정말 꿈같은 일이요. 저 손서방이 글썄...》

서기장이 향긋한 송진내가 풍기는 백자판을 가져오자 정치공작원이 벼루에 붓을 찍어 손수만의 손에 쥐여주었다. 손수만은 얼마나 사람처럼 멍하니 정치공작원만 바라보았다.

《글을... 글을 쓸줄 모릅네다.》

손수만은 주름잡힌 두볼로 주르르 눈물이 흘러내리었다.

정치공작원의 눈에도 눈물이 어리었다. 이윽히 손수만을 지켜보던 정치공작원은 붓을 받아가지고 한획한획 간판을 쓰기 시작하였다.

《청계리인민위원회》 간판은 바로 이렇게 씌여졌다.

손수만은 정치공작원이 들려주는 망치로 지병선네 집 기둥에 인민위원회간판을 박았다.

그날부터 세상은 손수만을 위한 세상인듯하였다.

이날저녁 정치공작원은 양복 한벌을 해가지고(지금 입고있는 양복이 바로 그 옷이다) 찾아왔다.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서서는 정치공작원을 보는 순간 손수만은 허둥지둥 일어나 허리굽혀 인사를 하였다.

정치공작원은 마주 달려와 손수만을 일으켰다.

《아버님! 자식같은 사람한테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정치공작원은 손수만을 방가운데 앉히고나서 안고온 흰보를 풀어헤쳤다.

《아버님! 이 옷은 인민위원회에서 아버님께 드리는것입니다. 어서 옷을 갈아입으십시오. 나이많은 아버님이 이런 험한 옷을 걸치시고...》

정치공작원은 제사 부끄럽고 기가 막힌듯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리었다.

그 모양을 지켜보던 손수만은 그만 애들처럼 울어버리고말았다.

옷을 갈아입힌 정치공작원은 자기를 앞세우고 저 안방으로 갔었다.

인민위원회사무실로 쓰는 안방에는 인민위원회 일을 보는 사람들의외도 마을사람들 여럿이 모여있었다.

정치공작원이 자기를 데려오자 서기장이 기다렸다는듯 장부책을 들고 일어나서 그것을 내려읽기 시작하였다. 땅을 나누어주는 명세였다.

서기장이 토지분여대장을 다 읽고나자 정치공작원이 손수만에게 먼저 의견을 물었다.

《아버님, 공평하게 된것 같습니까?...잘못된 점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손수만은 어안이 병병하여 멍하니 마주보기만 한다.

《어서 말씀하세요. 아버님같은분이 인민정권의 주인이니 주저 말고 의견을 이야기하세요.》

손수만은 아무 대꾸도 못하고 주책없이 자꾸 눈물만 흘리었다....

그날부터 이제 겨우 두달남짓한 나날이 흘러갔다. 50년을 넘겨산 손수만에게 있어서 그것은 순간에 지나지 않는 나날이었다. 하기에 마치 꿈에 잠간 무릉도원에 찾아갔다가 깨어난것처럼만 생각되었다. 숙명에 젖어 살아온탓에 꿈에서조차 그려보지 못한 생활이었고 정작 향유해보니 죽어서라도 다시 누려보고싶은 생활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모든것이 깨어진 꿈처럼 사라져 버리고 기구한 목숨을 이어가기 위해 또다시 지병선의 호령에 굽신거리며 살아가야 한단말인가?

하늘이 금방 무너져내리는것만 같았다.

최선달의 대패질은 끝났다.

지병선은 손수만에게 그 백자판을 내밀며 분부를 내렸다.

《손령감, 그새 새 정권하에서 글 눈도 떴다는데 어디 한번 솜씨를 보이라구. 붓글씨로 <청계리 자치위원회>라고 간판을 써서 네 손으로 걸어라. 그러면 옛정을 생각해서 내 집에 그냥 들테다.》

(옛정?... 흥, 정이라구. 나를 사람으로 여겼다고 정을 꺼들어.)

지병선의 말상을 마주보는 손수만의 가슴속에는 격분이 불끈 치밀었다.

언제 한번 이름이라도 공손히 불러준적이 있기에 정이요 뭐요 해, 저 누렁이가 마을애들한테 돌벼락을 맞아 다리가 부러졌을 땐 비오는 밤에 30리가 넘는 밤길을 당장 개를 안고 갔다오라고 호통을 쳤지만 꼴집을 지고 논도랑을 건느다가 발목을 빼였을 때에는 께병을 한다고 나를 이틀씩이나 굶기었지...

더우기 전주에 있는 딸이 죽었을 때의 일을 생각하면 금시 피가 끓고 이가 갈렸다.

《수일내로 한번 다녀가겠다누만.》

전보장을 들여다보던 지병선은 손수만에게 이렇게 지껄었다. 그리고는 어서 추석음식을 지고 산에 가자고 독촉을 하였다.

일자무식인탓에 손수만은 그 전보에 딸이 죽었다는 내용이 적혀있다는것을 알수 없었다. 그리하여 손수만은 심청이처럼 애미없이 키우다가 아홉살에 남의 집 부엌데기로 보낸후 10여년동안 만나보지도 못한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혈육을 죽은후에 시체조차 보지 못하고 영리별했다....

후-하고 긴 한숨을 내쉬고난 손수만은 터실터실한 대패자육이 난 널판을 다스리기 시작했다. 한번 대패를 당기고는 가늘게 떨리는 손으로 백자판

을 끌어보고 또 몇번 대패를 당기고는 다시 끌어보는 손수만을 이윽도록 노려보던 지병선은 만족한듯 뇌까렸다.

《아무렴, 개꼬리 석삼년을 목은들 황모될수가 있는가.》

손수만에게서 굴종에 습관된 성실성을 찾아본 지병선은 그제야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공산주의사상이 아무리 상상할수 없는 감화력을 가지고있다고 한들 한뼉 굴종에 젖은 령감을 불과 몇달어간에 총부리앞에서도 자기의 자존을 지킬 줄 아는 그런 인간으로 만들수야 있겠는가.

손수만은 종일 짐을 지워서 데리고다니다가 료리집문앞에 세워놓고 밤이 새도록 술을 마시다 나와도 짐을 진채 굶은비를 맞으며 박아놓은 말뚝처럼 그자리에 서서 자기를 기다리던 인간이다.

《됐다. 이젠 거기다 자치위원회간판을 써라. 미국어른들이 당기전에 간판을 붙여야 한다.》

지병선은 흥이 나서 독촉을 하였다.

손수만은 매끈하게 민 백자판을 옆에 옮겨놓고 버루를 끌어다가 먹을 갈기 시작하였다.

한참 쓱쓱쓱 먹갈던 손수만은 후-하고 모두숨을 내쉬었다.

금방 정치공작원이 달려와 손목을 쥐는것만 같았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글을 배워야 한다고, 그래야 사람답게 살수 있다고 절절히 권고하던 목소리가 들려오는듯하였다.

손수만은 인민위원회간판을 붙인 그날 퇴지에 앉아 날을 밝히었다.

글을 알았더라면 내 손으로 저 간판을 썼을게 아닌가! 자기에게 차폐된 일생에 다시 없을 영광을 누리지 못한것이 너무도 분하여 잠을 이룰수 없었던것이다.

이날부터 손수만은 분여받은 땅에서 김을 매다가도 밭고랑의 흙을 궁구고는 《청계리인민위원회》라고 한획한획 그어보았다. 논두렁에 모기불이라는 봉당에, 나무꼬챙이로 때로는 손가락으로 어떤 때는 호미자루로 수백수천번을 써보았다. 그 과정에 청계리인민위원회라는 글발은 손수만의 손에 익고 심장에 새겨졌다.

《아버님!》 하고 자기를 부르는 녀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정치공작원은 보이지 않았다.

정치공작원은 날이 다 저문뒤에 마을을 떠나갔다.

작별인사를 하고 대문을 나서던 정치공작원은 되돌아와서 손수만의 손을 꼭 잡고 《아버님! 아버지님!》 하고 목메여 불렀다. 그리고는 꼭 다시 오겠다고 두번 세번 다짐을 하였다.

점차 멀어지는 너인을 바라보는 지금에야 손수만은 그의 모습이 첫 인상과는 다름을 느꼈다.

그 너인의 모습은 한없이 따뜻하고 찬란한 공화국의 후광속에 새롭게 돋보이는 것이었다.

손수만은 어서 떠나라고 그를 태연히 바래왔다.
...

손수만은 버루를 당겨다가 쓱쓱쓱 먹을 갈기 시작하였다. 어느새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하였다.

손에 힘을 주며 한참 먹을 갈고난 손수만은 붓에 먹을 찍어 백자판위에다 《+》를 그어보았다. 먹은 이제야 윤기가 나게 갈아졌다.

갑자기 동구밖에서 자동차소리와 자지러진 총소리가 들려왔다. 미국놈들이 들이닥친 것 같았다.

《온다. 령감 빨리 써라!》

지병선은 허둥지둥 대문밖으로 달려나갔다. 최선달이도 슬금슬금 그뒤를 따라나갔다.

손수만에게 이제는 그들의 존재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오직 자기를 지켜보는 정치공작원의 눈길밖에 이 세상엔 아무것도 없었다.

손수만은 손에 익고 심장에 익은 글씨로 간판을 쓰기 시작하였다.

한획을 긋고는 먹을 찍고 또 한획을 긋고는 먹을 찍어 한자 한자 정성을 다해 간판을 쓰는 손수만의 자세는 침착하고 태연하였다.

드디어 《청계리인민위원회》라는 글발이 흰백자판우에 뚜렷이 새겨졌다.

손수만은 간판을 번쩍 들어 기둥에 높이 올려붙이고 탕탕 힘있게 못을 박기 시작하였다.

《땅!》

등뒤에서 자지러진 총소리가 울리었다.

순간 망치를 추켜들었던 손수만의 팔이 흠뻑 더니 힘없이 늘어졌다. 손수만은 몸을 가누며 기둥을 그려안았다. 그의 어깨에서 흐르는 붉은 피가 인민위원회간판을 붉게 물들였다.

간판에서 풍기는 향긋한 송진내가 손수만의 폐부로 흘러들었다.

손수만은 이를 사려물고 다시 몸을 일으키며 망치를 추켜올렸다.

《땅-》 하고 다시 총소리가 울리었다.

그러나 그 총소리를 제압하며 인민위원회간판을 억세게 때려박는 손수만의 망치소리가 새벽공기를 타고 온 마을에 메아리쳐갔다.

그것은 새 인간의 탄생을 고하는 장엄한 메아리였다.

구름을 헤치고 동녘하늘에 솟아오른 불타는 태양이 손수만의 모습을 엄숙히 지켜보고있었다.

병사를 사랑하라

한재길

누구나 어디서나
만나면 혈육처럼 정이 통하고
고향도
나이도 허물없이 묻게 되는

누구나 병사라면
믿음이 가고
수고많은 그 어깨를 껴안고
사랑을 주고 또 주고싶은것은

한창 젊은 나이를
땀젖은 군복속에 지니고
향기질은 넓은 길로만
걸지 않기때문이던가

고향 멀리
부모 멀리
낮이나 밤이나 눈비오는 전호가에
값높은 삶의 뿌리내린 그때문이던가

시름없이 인민들이 오고가는
넓은 길에 어둠이 깃들지 말라고

귀여운 아기의 요람가에
그 언제나 고운 꿈이 깃들라고

세기를 비약하는
조국의 번영을 생으로 담보해
영원한 조국의 맑은 하늘을
심장으로 수호해

조국의 믿음이 정의의 총과 함께
언제나 얹혀있는 어깨
조국의 운명과 잇닿은
높뛰는 심장을 지닌 가슴

청춘도
피도 아끼지 않는 조국의 수호자
그들이 생을 아까워하면
조국을 잃게 되는 그때문에

사랑하는것이다 병사를
조국의 장한 아들들을
친 자식처럼
누구나의 련인처럼

뜨거운 지심

김송남

검덕사람

지심속깊이
아무도 모르게 끓고있는
그 지열처럼
광석을 안아올리는 마음은
뜨겁다- 검덕사람

어깨우의 지층과도 같이
당의 민음이 마음속에 무거워
우뢰치는 강철의 끝날에
시대의 재보로 태고의 산뿌리를
깨여드노라- 검덕사람

석수와 함께 그날에 떨어진
뜨거운 눈물 어이 식으랴
막장끝에서
친애하는 그이의 품에 안겼던 감격을
묵묵히 새겨가는 마음

거무스한 광석처럼

수수한것이 그의 얼굴이라면
속깊이 지닌 번쩍임은
말없는 진정
그 무게를 모르고서는
그들의 심장 또한 알수 없으리

한생에도 못 다 겪을 어려움
한자욱 앞길에 떠실릴 때 많아도
뒤돌아보았던가
입술 깨물고 넘어서는 그곳에
눈부신 광채를 끌어안으며
그는 밝게 웃어라

주저와 동요는 이미 버린 폐석
허리 굽혀 수월히 주어드는
행운이 아니라
필생의 의무로 안아올리는
조국의 새 힘이 그들의 이름이다
아, 검덕사람 !

빠른 지름길

가독나무 처음 꺾은
자욱은 어디 ?
돌서덜 처음 굴린
자욱은 어디 ?

선광장 선광동
덕이우에 펼치던 날
평탄한 길 굽이굽이 언제 에돌라
금골역-은룡덕 가파로운 골짜기
바쁜 걸음 곧추 질러 또 질러
한줄기 지름길이 생겨나더니

그 자욱들 이제는 다 지워졌는가
세월은 흘러
잊혀진듯 돌격대 옛 집터엔

고운 꽃들 피어나 저만 보아달라는데
어데선가 끝없는 흐름소리 흐름소리

줄줄이 수송관이 달려내리네 !
줄을 친듯 곧바로 곧바로
정광이 폭포쳐내리는 저 길은
알당겨 오늘을 부르며 오른
돌격대 발자국에 다져진 그 길

아무렴 길을 낸 발자국이 지워지랴
오르고 또 오른 그날의 자욱따라
나라의 재부가 다투어 내리네
그날에도 오늘에도
빠른 지름길 ! ...

처녀는 제 혼자 오지 않았네

때마침 출갥후 저녁의 한때
제대군인 합숙은 한창 흥성이는데
손짐도 무거이 조춤조춤 들어서네
먼길을 온듯

두볼이 익은 처녀
눈기 빠른 총각들
췌- 조용히-

마당가 긴결상의 기타소리도 멎고
장훈이야- 호기있게 갈기를 채던
성난 《말》도 잠안에서 숨을 죽이고...

아무리 눈매 고운 처녀라 해도
처녀는 처녀이니 그털수밖에
하얀 신코에 눈길 떨구며
간신히 꺼내고는 맺지 못한 말
《여기... 318 호실에...》

그러자 한 젊음이 현관으로 뛰어든다
아무렴 얼마나 기다렸다고
《석철이! ... 석철이! ...》 부르는 소리
계단을 오르는 꾸당탕소리
사열하듯 3층합숙 창문들이 열리네

이윽고 내려오는 제대군인 그 총각
《어째, 전보나 치고 올게지...》

한마디도 맺기전에 호실패들 우르르-
꽃보자기 트렁크 떠들썩 받아드네
아니, 글썄... 빨간 손가방마저

처녀는 명절을 안고 왔는가
산이 높고 막장이 깊어도
저 봐라, 사랑이 찾아왔다고
당의 뜻 받들어 꽃으로 퍼날
새 가정이 또하나 창문을 열리라고
가슴가슴 번저가는 뜨거운 이 설레임

어이 알라, 처녀는 아직 모르리
금팔에도 청년갱 먼길 온 저를 보며
이제 또다시 트렁크 들고 올
자기의 약속을 그리느 마음들을...
사랑을 굳게 믿어 솟음치는 새 힘을...

아 처녀는 제 혼자 오지 않았네!

즐거운 작별

웃음 넘치는 그 눈길에
설핏 지나가는 맑은 이슬이
눈물이라 하더라도
눈물이란 말을 말자

기뻐도 작별이란 그래도 작별이니
떠나며 보내며 다시 잡는 저 손길
놓기 아쉬워도
새 광구를 열어제끼려
가야지, 어서 가야지

저 봐라
사람들의 힘든 일을 제가 대신 한다고
새로 만든 자동적재기가 소리치누나
운광기도 광차도 저리 비키라고
80 리 벨트선이 용을 쓰느나

친애하는 그이의 가르치심대로
세상에 없던 큰힘을 여기 세웠으니
힘든 일에서 풀려난 그 손들에
더 보람찬 일감을 틀어쥐으려
가야지, 어서 가야지

-이렇게 가고 또 가면
앞으로는 갱장동무 혼자 남겠소다?!
-원 무슨 소릴...
나두 새 광구를 열려 떠나겠네
이제 갱장자리도
로보트한테 넘겨줄 그때가 오면...

남기는 롱말
보내는 우스개
그 웃음속에
기술혁명이 통장을 부르고있다고
또다시 터져오르는 웃음소리 웃음소리
이런 작별은 정말 좋구나

여기서 정녕 헤어질것은
힘든 삽질소리
먼지속의 땀방울
옛 세월의 그림자뿐이려니

여기서 정녕 만나게 될것은
위대한 우리 당이
가까이 가까이 가리켜주는
공산주의 밝은 기슭이려니! ...

검덕은 담보한다

광석은 번쩍인다
바람에도 세월에도 꺼지지 않는
그 빛을
광부의 눈빛이 주었다

광석은 무겁다
가벼운 마음으론 들수 없는
그 무게를
광부의 신념이 안아올렸다

맹세에 불타고
의리에 흔들림 없는
광부의 심장에서
도폭선에 옮겨가는 불이여 폭풍이여

산뿌리가 흔들린다
사태치는 보화의 흐름
정광을 떠실은 무개차량들
발차의 기적소리 은은히 울린다

조국아, 귀 기울이자 귀 기울이자
이 땅의 생활을 찾아
새로운 기쁨이 떠나는 저 소리에...
태일의 황홀한 꿈을 안고
80년대속도가 발구름한다

여기에 있어라
지심천길 몸소 오시여
뜨거이 안아주신 그 사랑으로
세월이 갈수록 달아오르는 심장
천년암벽을 녹이는
뜨거운 은정이...

이 막장에 있어라

어데선가 새로운 점과 선들을 얻어내며
설계가의 사색이 깊어갈 때
그 먼저 땅의 뜻으로
련포벌을 걸어가고 광복거리를 밟아보는
깊디 깊은 사색이...

믿으라, 검덕을
그리고 계산하라
설계하라
건설하라

아직은 저 멀리 아득한 발밑에서
굳잠 든 암반의 캄캄한 세계도
이 땅의 힘으로 되게 하리라고
이 땅에 빛으로 안겨주리라고
혁명앞에 시대앞에 엄숙히
검덕은 담보한다!

이 번쩍임으로
이 무거움으로
조국이 길이 번영하라고
이 땅에 검덕이 있고
검덕의 지심속에
세상 뜨거운 심장들이 있나니!

새 땅의 새 열매

한호

앞내벌 우리 분조 일꾼 새 땅에
옥이야, 벼이삭이 잘도 영글었구나
뿌리깊은 갈뿌리 들춰내고 심은 새 땅에
알알이 탐스럽게 벼이삭이...

얼마나 기쁨이 크니
찬서리 내리는 이른 봄날
하루같이 진펄을 일쿨 땀
장화까지 물에 빠져 힘겨웠더니
이 가을엔 흐뭇한 이삭의 물결

옥이야!
바람결에 일고지는 금빛날알은
진눈까비에 숨웃까지 젖던 그 저녁
타오르는 우등불빛이 물든것 아니냐
길게 물막이 뚝을 쌓으며
마음에도 지피던 그 불빛-

물오리 깃 틀려 날아들던 진펄을
온 마을에 앞장서 찾으며
잠시도 쉴새없던 청년분조의 웃음소리

이삭마다 깃들어
설레임소리 이리도 끝없는것 아니냐

여기 저기 있는 적은 땅이라도
온 분조가 찾고
온 농장이 찾고찾으면
진주같은 열매산을
나라에 더 높이 쌓으려니

옥이야 래년봄엔
이들같이 진펄을 마저 일쿠자!
우리 땅의 품속에서 태어난
청년분조원 우리들
나라의 새 땅 찾는 일에도
누구보다 앞장서야지

아! 보람도 크구나
새 땅에서 맛보는 기쁨의 열매는
청년분조 우리들의 마음의 난알이란다
금빛이삭들은 이제 거두어들여도
너와 나의 가슴속에 열리기만 할...

행복과 보람을 두고

박은하

봉-

해산-만포청년선 개통열차가 북부새철길의 완공을 알리는 기적소리를 길게 울렸다.

순간 만세의 환호소리가 하늘높이 터져올랐다.

《정말 우리가 놓은 궤도우로 개통열차가 가게 되었단말이지!》

《신파소년호》는 현실적으로 눈앞에서 움직이고 있지만 나는 성실의 두손을 잡으며 꿈속에서처럼 중얼거리었다.

《아이참, 이 좋은날에 올긴요.》

그가 이렇게 말해서야 나는 랑불이 축축한 감을 느끼었다.

《언니 날보구 개통열차를 함께 타고 우리가 건설한 구간을 달리며 마음껏 추억하자구선...》

여느때없이 친진스레 말을 돌렸으나 성실의 긴속눈썹에도 이슬방울이 매달렸다가 떨어졌다.

몇해전까지만 해도 태고연한 수림과 산짐승들의 울음소리만 들리던 이 벽촌에 기관차가 달리다니...

생각할수록 걱정의 파도가 가슴을 친다.

열차는 우리를 싣고 만포청년역을 향하여 떠났다. 더더욱 높아지는 만세의 환호소리! 따라서는 사람들의 꽃물결... 들먹이는 모습들...

《언니, 허천강다리예요. 허천강철다리!》

성실은 차창밖으로 긴목을 빼들고 환성을 지른다.

철다리!

어이하여 돌격대원들은 철다리 하나를 보며 저렇듯 기쁨과 행복감에 휩싸여 울고 웃고하는것인가.

열차는 앞으로 달리건만 나의 생각은 허천강철다리에 머물러있었다.

감회도 새로운곳이다.

아아히 치솟은 산악들, 천길만길의 가파로운 벼랑, 박달나무도 얼어 터진다는 북변의 강추위... 헛내기돌격대원에게는 너무나도 엄혹한 대자연이었다. 하지만 청춘의 꿈은 저 하늘의 흰구름보다 높았고 조국이 지켜보는 철길공사장에서 위훈으로 삶의 보람을 꽃피우리라 결심한 우리들이 아니었던가.

아직 건설경험도 고난도 겪어보지 못하였지만 서격이는 살얼음도 마다하지 않고 물속에 뛰어들어 다져넣는 기초, 그 치열한 전투의 날과 날속에서 허천강과 압록강의 합수목을 몸으로 막고 한돌기 한돌기 쌓아올린 철다리...

몸도 가늠하기 어려운 눈보라와 폭우 속에서의 전투는 나의 의지와 용맹을 키워주는 교실이였고 겹치는 고난과 시련은 참과 거짓을 가르는 심판장이기도 했다.

그렇지만 나는 시대와 조국 앞에 몇몇이 나설수 있는 일을 해놓은 다음에야 행복한 인간으로서 삶의 보람을 느낄수 있다는 진리를 그때까지도 깨닫지 못하고있었다.

북부철길공사는 우리 나라에서 건설한 철길 가운데서 제일 어렵고 품이 많이 드는 공사였다. 630리의 구간에 116개의 철다리, 76개의 차굴, 42개의 역사를 건설하여야 하였다. 우리는 이 방대한 공사량을 불과 몇년여간에 해냈으니 이 기적적인 사변을 두고 어찌 놀라지 않으랴!

착암기를 다루는 법도 모르고 차굴시공도 해보지 못한 애젊은 청년들이 기술의 신비성을 깨뜨리고 조국에 쌓아올린 재부, 동발을 어떻게 하면 빨리 그리고 기술적으로 들이겠는가 고심하다가 눈길 60리를 달려 광산을 찾아갔고 하루라도 빨리 개통의 이 기쁨을 안아오려 합심하고 날이 새도록 토론도 하여 새로운 발파법, 새로운 시공법을 도입해가던 나날, 석수에 화락해지고 암반에 옷이 찢어지고 힘겨워 넘어졌다가도 웃으면서 일어서던 불굴의 혁명정신, 항일혁명투사들처럼 하자고 결심만 하면 못해낼 일이 없다는 확신을 가지고 수십만산을 날려보내던 청년건설자들의 억센 모습들...

그것은 당의 사랑과 믿음이 낳은 충성의 대서사시였다.

언제나 북부새철길건설에 동원된 청년건설자들을 잊지 않으시고 당과 국가의 전반사업을 보시는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수시로 현장지도일군들을 전화로 찾으시어 시공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일일이 풀어주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

명절이면 우리 청년건설자들이 생각나시여 제일먼저 직승기로 선물을 보내주시고 계절이 바뀔세라 가름옷들을 보내주시며 친부모도 생각 못하던 사생활에 이르기까지 자애로운 손길로 보살피시는 그 사랑... 청년들이 있는곳에는 생활이 있고 노래가 있어야 한다며 악기도 조로 편성하여 보내주시고 하루일이 끝나면 정든 고향소식을 함께 나누며 명랑하게 살라고 중대병실마다에 선물로 텔레비존 수상기를 보내주던 그 은정...

평양에서 멀리 떨어진 조국의 북변 외진 벽촌에 있어도 우리 당의 한없이 자애로운 해빛은 구석구석 비쳐들었고 그 보살핌속에서 우리들은 추운줄도 힘든줄도 모르고 위훈의 날개를 활짝 펼칠수 있었다.

《언니, 파득 3 차굴이에요...》

성실이가 나의 팔목을 잡아흔든다. 우리가 이룩하여놓은 또하나의 거창한 창조물을 보라는것이다.

허나 나의 눈앞에는 굴문에 새겨진 《속도전청년돌격대》의 붉은 글자들과 그옆에 펴려있는 기발이 점점 더 크게 다가오고있었다.

이어 나의 눈앞은 또다시 뿌옇게 흐리어왔다.

가슴속에 파도치던 환희의 물결이 뜨거운 눈물로 솟구쳐올랐던것이다.

아, 나는 정말 행복한 사람이구나!

세차게 펴려오는 《속도전청년돌격대》 기발, 그것은 우리의 행복에 대한 상징이었다. 그 기발에는 개척의 첫 발과소리를 울리던 그날부터 오늘까지의 보람차고 영예로운 위훈의 년대기가 금문자로 아로새겨져있는듯싶다.

위대한 당의 부름에 물불을 가리지 않고 충성의 구슬땀을 바쳐온 그 모든 나날이 오늘의 개통을 앞당기었고 행복이라는 삶의 높은 령마루에 올라서게 한것이 아니겠는가.

그렇다. 행복은 자기가 해놓은 일을 추억하며 긍지와 보람을 느낄 때의 인간의 고유한 감정이다. 보람있는 일, 긍지높은 자각, 흔들리지 않는 신념, 바로 이런것을 소유한 사람만이 행복을 향유할수 있는 권리가 있는것이다.

우리의 이 마음을 소리높이 자랑하듯 기적소리가 장중하게 울린다. 시대의 메아리가...

청춘의 내 고향

박정애

나서자란 정든 땅
사랑하는 고향아
내 지금 여기 북방을
고향이라 부른다 탓하지 말아다오

걸음마 익히던 잔디밭
앵두꽃 곱던 고향의 언덕아
얼음이 번들거리는 차굴절벽을
내 지금 자랑한다고 나무람 말아다오

내 자랑스레 부르게 되노라
흰눈을 하얗게 엮고
새 철길 바투 나앉은 통나무귀틀집
돌격대원의 집이라고
정들은 우리 집이라고

이른아침 얼음을 까고 마시는
북방의 빠시린 차디찬 물
내 마시며 자란 웅달샘처럼
이제는 정들었고

우리 생활을 년륜속에 정히 감은
하얀 봇나무
푸른 그늘 던져주던
내 고향 동구밖길 들메나무처럼

실참엔 언제나 우리를 불러주거니

고향아 너에 대한 생각이
어머니 품에 고이 자란 추억이라면
여기 북방의 새 고향땅에선
조국 위해 구슬땀 뿌려온 나날이
가슴부푸는 희열로 안겨오누나

나는 자랑높이 웨치고싶어라
내 청춘시절을 뜨겁게 바쳐
조국의 한구간을 빛내이는곳
두줄기 철길이 뻗어가는 여기를
고향이라고 청춘의 고향이라고

당이 불러준 이곳에서
내 삶도 희망도 사랑도
투쟁속에 위훈속에 새로 태어나
가장 보람스럽게 지냈기에

아, 노래하리라
우리 당의 부름안고
조국을 위해 나를 아끼지 않은
북부새철길 건설장
여기가 내 고향이라고
청춘의 고향이라고

무엇인가 청춘의 사랑이란

박철

이것은 조국의 복면
철길공사장으로 떠나오던 날
하많은 말 눈빛에 담고
자꾸만 따라서던 처녀앞에서
내 스스로 심장에 물어본것

성과를 축하한다고
신문에서 보았다고
처녀가 써보낸 살뜰한 편지를
땀젖은 손에 받아들고
내 다시다시 마음에 새겨본것

무엇인가 청춘의 사랑이란
그것은 서로 떨어져있어도
함께 걷는 억센 발걸음인가
눈속도
비속도

우등불가의 휴식참이면
아득한 별빛넘어
조용히 마음속에 찾아와
타오르는 우등불 먼지
언문을 녹여주더라

돌격전의 치열한 나날
착암기조차 무거울 때면
어느새 곁에 와 받들어주더라
- 힘을 내세요
- 힘을 내세요

정녕 무엇인가 청춘의 사랑이란
언약으로 신성하고

꿈으로 아름다운것
시대에 다지는 맹세없이
서로 얻을수 없는것

그것은 열정의 원천이더라
그것은 용맹의 나레이더라
바라보는 정겨운 눈빛
언제나 가슴에 달아있어
투쟁에 지칠줄 모르는

말은 일 서로 달라
조국의 돌격선에 함께 못서도
청춘의 사랑은
삶을 함께 살게 하더라
필력이는 돌격대기발아래서

아, 그 어떤 재부와도 아니 바꿀
인생의 가장 숭고한것이어
조국에 기꺼이
청춘을 바치게 하는 가장 고귀한것이어

진정 청춘의 사랑은
수백리 철길공사장에 안아온
첫 개통열차의 환희로운 기적소리 !
상봉의 그날 몇몇이 추억할
소중한 위훈의 시절

오, 그렇다
청춘의 사랑은
두 심장 두 청춘 하나로 합쳐
혁명에, 조국에 바치는
크나큰 하나의 심장이여라

교원의 모습

리덕진

세월은 흘러
머리는 희여저도
마음은 언제나 미래에 두고사는
그대의 모습
그 뉘도 쉬이 찾더라

귀여운 막내손자의
어리광 넘치는 따뜻한 아래목이 아닌
로년기의 산책을 즐기는
고요한 저물녘의 호수가도 아닌
새 탐구의 열정과 생활이 넘치는곳에

그대는 있더라

낮이면 교실과 실험실의 작업대앞에
밤이면 불밝은 기숙사창가에
희스한 머리를 쓸어넘기며
학생들과 함께 있는 모습

비가 와도 눈바람 불어쳐도
가지많은 나무를 떠받든
흔들림없는 거목의 그 깊은 뿌리처럼
하많은 제자들을 키워온
고마운 스승

높은 리상과 포부로 부푸는 가슴들에
알찬 발명의 씨앗들 심어주고

그들이 걸어갈 참된 길도
앞서 걸으며 열어주고픈 그 진정
그 언제나 그대의 가슴속에 불꽃처럼 타고있거니

아 이 땅에 넘쳐나는
천만가지 자동화의 음향속에
끓으며 굽이치는 생활의 흐름속에
사람들은 보았더라 그대의 모습을
도수높은 안경을 벗어두고
행복에 미소짓는 주름많은 눈굽이를

그렇더라
교원! 그 참모습은
부강한 조국의 모습속에 빛나더라

정 든 고 장

김중실

물소리 바람소리 시원한곳에
풀었던 배낭 다시 지고
정든 송원언제 떠나자니
선뜻 걸음이 떨어지지 않는구나

말해보자
언제우 저 절벽가의 푸른 소나무여
숲속의 그윽한 꽃들이여
떠나는 전사의 이내 걸음
너 왜 이리도 붙잡는지...

너도 보았으리
얼음물속에 뛰어들면서도
호탕히도 웃던 그 얼굴을
땀흐르는 이마마다
못사람들이 부러워 바라볼
위훈의 더운 땀김을

그 어디나
때없이 지피던 우등불가
열정의 주먹들 높이 들어
심장의 맹세도 터치던곳은
열정의 시속에 오늘을 그려보던
그 잊지 못할 새벽의 오락회장은...

지나온 나날 더듬어보면
누가 시켜서는 할수 없는 일
누가 떠밀어선 올수 없는곳
여기에 이 한몸 바칠줄 몰랐다면
내 무엇으로 이렇듯 정깊으랴

좋은 나이
좋은 때
당이 부르는곳에서
땀과 함께 뜨는 혼합물에
조국의 래일이 실려있는줄 몰랐다면
추억이 이리도 깃들것이나

언제여
조국의 기념비여
너를 위해 내 땀을 아꼈다면
이렇듯 인연 깊이 정을 나눌수 있으랴
누구나의 한생애 이런 자옥 없다면
그 얼마나 서글프랴

아 그렇구나
삶은 위훈이 있어야
조국과 한몸처럼
정들게 되는구나

귀향

정창도

1

《달빛은 쨍쨍, 반디불아 비쳐라!》

《꼭꼭 숨어라, 머리칼이 보인다! 하나, 둘, 셋...》

《이녀석들아! 저리 가지 못하겠니? 저 느티나무 밑에 가서 놀아라.》

대통을 흔들며 오장서가 한번 호통치자 호박꽃을 따들고 반디불을 잡던 애들이며 술래잡기를 하느라고 답사리맡에 숨어 캐드득거리던 애들이 혼쫓이 나서 도망쳤다.

《글쎄 이렇다니까. 증손자녀석들하고나 씹하며 사족을 놀리고있으니 인젠 영낙없이 죽은 귀신이야! 흐흐흐.》

오장서는 기가 차다는듯 혜식은 웃음을 지었다. 그바람에 와이샤즈바람으로 멍석우에 앉아있던 상훈도 허허 웃고 그옆에서 부채로 모기불을 날리고 있던 어머니도 빙그레 웃었다. 잘 닭은 양푼같은 보름달이 느티나무너머로 기웃이 들여다보고있었다.

사람을 홀리는듯한 신비로운 달빛속에 모기썩 불이 그물그물 피어오르며 씹쓸하고 구수한 냄새를 풍겼다.

잠전까지만 해도 낯선 손님이 왔다고 쾅쾅거리며 돌아가던 누렁개가 저쪽 토방밑에서 곤하게 자고있었다.

그러다가 무슨 이상한 김새라도 찬듯 발딱 일어서서는 달을 향하여 몇번 쾅쾅 짖어대더니 다시 드러눕는것이였다.

상훈은 잠든 증손자의 엉덩이를 두드려주며 그 철새없이 이야기보따리를 풀어놓는 오장서의 가무잡잡한 얼굴을 부러운 눈길로 바라보았다.

울가을에 《90 뉘생일》을 맞는다는 늙은인데도 아직 이발이 그쫘하고 몸이 바디대같이 단단하다.

거기에 비하면 자기는 얼마나 걸늬였는가...

이발은 다 빠져서 틀이를 해박았지, 만성심장질환과 신경두통으로 밤낮없이 고통을 겪지, 그야말로 고삭아버린 수수대바자 한가지가 아닌가.

오랜 이국살이에 부대끼고 찌들어 몸도 마음도 절인 파대처럼 후줄근해졌다고 생각하니 맥살이 났다.

상훈은 캐나다의 몬트리올에서 살고있었다.

일명 캐나다의 《경제수도》라고 일컫는 그 대도시에서 상훈은 금융계의 중견인물로 활약하고있었다.

하지만 지금 이 시각 상훈은 저로서도 딱히 알수 없는 이상한 감정의 세계에 빠져들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와있는가?)

그야말로 무아경에라도 빠진듯한 기분이다.

저 달빛에 얼혼을 뺏기웠는지... 너무도 관판대조를 이루는 새로운 세계에 용약 뛰어들어 그대로 넋을 잃어버린것만 같다.

지금까지 센트로렌스강 기슭에 있는 자기 은행의 《흰곰방》(북극의 흰곰이 얼음우에 앉아서 녀를 잡아먹는 대형풍경화가 걸린 응접실이라고 하여 안해가 이름지은것이다)에 앉아서 수형놀음이 나 환자시세때문에 골을 썩이고 다사분주하던 자기의 생활에 이처럼 모기썩불을 날리며 봉건시대로부터 현대에까지 살아오는 좌상로인과 이야기하는 생활이 뒤따르게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하였던 것이다.

분명 그 생활속에서 자신이 태어나고 그 즐거움을 맛보며 살았으나 너무나 오래동안 유리된데로부터 삭막해버리고 그 맛조차 변한것만 같은 생활이였다.

마치 민물에서만 살던 물고기를 인공전환시켜 바다물속에서 살게 하다가 다시 민물에 넣었을 때의 삼투압의 변모로 인한 숨가쁜 현상과 같다고 할가.

《아주머니두 인젠 발편잠을 자게 됐수다. 늘 마음고생을 하더니...》

오장서가 고불대통의 재를 마당바닥에 털며 어머니에게 하는 말이였다.

담배재가 툭툭 털려나갈 때마다 불티가 팡긋팡긋 날렸다.

《그러문요. 그런데 아직까지두 난 꼭 꿈을 꾸는것 같애요. 정말 내 아들이 돌아온게 맞긴맞나하구... 비행장에서 침 만났을 땐 이게 혹시 꿈이 아닌가 해서 쳐다보구... 또... 쳐다보구...》

어머니는 격한 심정에 더 말을 잊지 못하는것이였다.

서둘러 눈굽을 훑치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는 상훈의 가슴은 무딘칼로 찔림을 우벼내는듯이 아팠다. 오죽 자기를 기다렸으면 저러시랴...

《그래 가족서편 인차 데려올테지?》

오장서가 칭얼거리는 손자를 흔들어주며 느닷없이 물었다.

오장서의 뜻밖의 질문에 상훈은 당황해졌다. 어머니도 자기쪽을 바라보시는걸 보아 대답을 기다리는게 분명했다.

도대체 무엇이라고 대답한단말인가.

사실대로 말한다면 자기는 이번 방문기회에 어머니를 몬트리올로 모셔갈수 없을가고 속궁냥하고있지 않는가.

아무때건 자기의 이런 속심을 터놓아야 하겠지만 지금 이자리에선 어쩔지 어색하고 용기가 나지 않는다.

《집이 좀 작은 감이 드는구만요. 봉손이까지 장가를 보낼려면 뒤편 더 늘려야겠어요.》

상훈은 따분한 분위기를 쫓으려고 슬쩍 말머리를 돌렸다.

《뭐 괜찮아. 그렇지 않아두 리당비서인 광혁이가 <할아버지! 지금 완공중에 있는 씨리카트벽돌집 첫째는 할아버지네것이니 그리 아십시오.>하길래 내 욕질을 좀 해줬네.》

《아니, 왜요?》

《아, 글썽 비서 그 사람두 궁양이 넓어서 하는 소리겠지만 제 생각은 통 안한다니까... 자기가 받았던 집들은 모두 제대군인 신희부부들한테 넘겨주지 않았잖나. 그러면서도 나보군 <아, 할아버지네야 식솔두 많으시구 더우기 유가족이 아님니까.>하고 능치려들거덩, 헛 참!》

《아니, 이 집에서 누가 어떻게 됐게요?》

상훈은 유가족이라는 소리에 더욱 오리무중이 되어 눈이 휘둥그레졌다.

《너와 짝친구였던 정손이가 광산에서 그만 잘못됐단다...》

어머니가 오장서의 얼굴을 살피며 조심히 대담했다.

《광산에서 잘못되다니요?》

비행장에 마중 나온 사람들 가운데 소꿉친구인 광혁이만 보이고 정손이는 보이지 않길래 로인에게 물어봤더니 어디 좀 갔다고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심상했더랬는데 그 친구가 이 세상에 없다니?...

자기와 지금 리당비서를 하는 광혁이, 이 집 만손자인 정손이는 오리발친구인데 동네가운데서 가장 장난이 세찬 애군들이었다.

오씨덕네 원두참의를 훔쳐먹은 일이며 드살이센 살구나무집 머느리 백고무신에다 오줌을 찹 갈겨놓은 일이며 여하튼 동네에서 벌어지는 장난에 이 세 난봉군이 끼우지 않는 때란 거의 없었다. 그래서 부모들은 부모들대로 온 동네의 상소를 다 받느라 찹찹 매고 돌아가고 애간장이 말라서 어느 하루도 맘편할 날이 없었다...

《정손인 도당지도원을 했는데 저 신개광산을 담당했었던단다. 그런데 하루는 거기서 물주머니가 터지는 바람에 큰 침수사고가 났었지. 강에 들어갔던 노동자들이 위험하게 된걸 정손이가 물이 차올라오는 마지막까지 남아서 구원해냈단다. 그런데 밖에 나와보니 양수기운전공체네가 없더라지 않니. 그래서 다시 들어가 그 체네를 수직갱사다리로 올려보내구는 자긴 기진맥진해서 그만 떨어졌지...그래서 잘못됐단다...》

《그 녀석이 장하거든! ... 사내녀석이판게 너무 참해빠진것 같아 옥박지르곤했더니 배짱군이였거덩.》

달빛에 비친 오장서의 얼굴에는 손자에 대한 이루 말할수 없는 자랑과 만족이 비끼여있었다. 천성이 팔팔하고 대가 있는 로인이어서 저렇게 말은 하지만 속으로야 얼마나 가슴아플것인가...

상훈은 커다란 감동에 젖은 눈으로 로인을 바라보았다. 경우가 대쪽같은 로인의 기품을 엿볼수록 로인에 비하면 줄장부와 같은 자기의 엄통은 대봉에 참새를 비교하는것만치나 작고 보잘것없는것으로 여겨지는 것이었다.

《뭇들하시우?》

대문쪽에서 웅글은 목소리가 나며 누군가 마당으로 들어섰다.

《리당비선가?》

오장서가 한눈에 알아보고 반기는데 아닌게 아니라 들어선 사람은 광혁이었다.

《어서 오게나.》

어머니도 무뎌 기뻐하며 광혁의 손을 끌어 명석우에 앉혔다.

《인차 온다는게 그만... 늦어서 안됐네.》

광혁은 상훈을 향하여 미안한 표정을 지었다. 생김생김이 시원하고 기분이 장대한데다가 체구 또한 박달나무처럼 듬직한 그의 모습은 보는 사람들에게 미더운 감을 주었다.

《참 어머니, 리병원에 입원한 순임이가 힘들게 몸을 풀것 같구만요...》

광혁이 이마에 번지르르한 땀을 수건으로 씻으며 하는 소리다.

《아니, 왜 더하던가?》

어머니가 놀란 목소리로 다우쳐물었다.

《어쩔지 근심이 됩니다.》

《그럼 가봐야겠구만. <국수집>동생네 손주딸이 아이선다고 기뻐하더니 뭔가 뜻대로 안되는 모양이네...》

《어머니, 래일아침 가봐도 됩니다.》

광혁이 어머니의 손목을 잡으며 말했다.

《당장 한시가 새로운 판에 래일이 뭐가? 그저 첫자식 낳는 예비한텐 나인들이 많아야 하네. 당장 죽을것만 같은 무서움이 든다니까.》

《<국수집>이라면... 그 <허쫌보>를 보고 하는 소리가 아닌가?》

아까부터 너무나 낮익은 이름에 귀가 병긋해있던 상훈이 물었다.

《허허허... 참, 자네한테두 인사를 전하라우 하던걸.》

《그래...》 상훈은 금시에 가슴이 흐뭇해나서 빙그레 따라 웃었다.

《허쫌보》를 왜 모르랴.

《국수집》을 운영하며 너무도 각쟁이로 소문나서 허과부를 그렇게 불렀던 것이다.

언젠가 상훈은 광혁이랑 함께 허과부를 끌려줄 썸으로 굴뚝아구리에 형곶통구리를 막아놓았다가

그한테 붙잡혀 된경을 치른적이 있었다. 정말 감회도 새롭다.

《원 애두. <허쭤포>가 뭐냐? 그 동생이 얼마나 달라졌게… 작년엔 저 청룡산 기슭의 새땅을 일구어서 얻은 강냉이를 두툼이나 애국미로 바쳤단다.》

《그래요?!》

상훈은 너무도 놀라 입을 딱 벌렸다.

거의 파산몰락하였던 은행가가 하루아침에 백만장자가 되었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놀라지는 않을 것이다.

사람이 정말 이처럼 달라질수도 있는가. 이것을 단지 세월탓이라고만 하기에는 너무도 놀라운 인간 변혁인 것이다.

《그런데 이사람! 이 웃주제가 뭐냐?》

신발을 끌라신으며 헤덤비던 어머니가 광혁의 바지가랭이를 내려다보고나서 놀란 목소리로 물었다.

그제야 마당에 있던 사람들도 그의 아래도리가 후줄근히 젖어있는것을 보았다.

《허허… 젊은이들하구 밤고기사냥을 좀 했더니…》

광혁은 더 숨길수 없는듯 얼버무렸다.

《밤고기사냥이라니?》

《<국수집>어머니가 손주딸한테 어죽을 좀 썰먹여봤으면 했다길래…》

《원 사람두, 아 그런거야 이 늙은걸 시켜서 해두 뭇텐데 리당비서라는 사람이 오지랖넓게 다 상관해야 맞인가? 흠 것참.》

오장서는 투살스레 말하고나서 들썩거리며 일어났다.

《나도 같이 감세. 군불두 좀 떼줄겸.》

《아 내가 어련히 할라고요.》

어머니가 한사코 말렸으나 로인은 듣는동마는 동 아이를 들쳐업고 부걱부걱 나갔다.

그들이 나가자 마당에는 상훈과 광혁이만 남게 되었다.

《이자식아! 부디부디 왜 인제야 왔니. 그렇게 두 이 조상땅으로 오기가 싫던?》

광혁이가 술뚜껑같이 큰손으로 상훈의 어깨를 쿵 쥐어박으며 익살궂은 목소리로 말했다

달빛에 비친 그의 눈가에는 이슬같은것이 번쩍이었다.

그것을 보자 상훈은 가슴이 금시에 뭉클해지고 눈굽이 뜨끈해졌다.

어린시절에 허물없던 그 말투를 들으니 자기가 지금껏 쓰고있던 천겹의 겹질이 줄지에 다 날아가 버리고 벌거숭이 유년시절의 알몸뚱이만 남은듯 몸이 출가분해시고 유쾌해지는것이였다.

《그게 어디 쉬운줄 아니? 난들 조상뻘다귀가 있는 이 땅으로 오구실질 않아서…》

상훈은 목이 메어 더 말을 잊지 못하였다.

쓰라린 절통과 비분의 눈물이 그의 볼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그래 자기가 언제한번 이 고향을 잊고 어머니를 잊은적이 있었던가?!

하지만 사람에게는 믿고 의지할곳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행복이 깃을 펼친곳이 고향일진대 상훈에게 있어서 어린시절의 고향에 대한 표상은 불행과 수난의 질은 그늘이였었다.

《흥… 자네가 늘쌍 말하던 거 뭐라더라? 응, 그렇지, <천백번 사고끝에 행동이 이어진다>는 자네의 그 좌우명이 일을 쳤나부네, 허허허.》

광혁은 호방지게 꺾꺾 웃었다.

상훈은 서울 경기중학교시절 방학때 놀러 왔다가 저 청룡천가에서 한 말을 광혁이가 아직까지도 잊지 않는것을 보고 눈이 둥그래졌다.

《옛날에 어느 한 선비가 있었는데…》 말머리를 댔 광혁이 하던 말을 멈추고 쭈단에서 쭈을 한웅큼 뽑아 화로우에 올려놓았다.

마른 쭈이라 대번에 불이 확 당겼다. 광혁은 나무꼬챙이로 쭈불을 형글어놓았다. 그러자 불길의 점점 수그러져가더니 마침내 꺼지고 가느다란 연기만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젖은 풀대가 들어갔는지 마지막 모지름을 쓰는듯 칙-칙 하는 소리가 가냘프게 들려왔다.

《절벽우에 서서 밑을 굽어보느라니까 까마득한게 끝이 보이지 않더라나.

<저밑에 무엇이 있을가?> 이렇게 생각을 굴리구 또 굴리던끝에 내려가보아야겠다구 결심했거던…

글방에 앉아서 4서5경만 들여다보던 그 새다리같은 몸으로 말이야. 허허허…

(내가 요까짓것을 못내려간단말이야? 쭈르르 미끄럼타듯 내려가면 뭇텐데.)

그는 코웃음치며 내려갔다네. 그런데 내려가보니 천길인지 만길인지 알수 없는 검푸른 지하강이 흐르고있더라나. 그래 펄쩍 놀라 다시 올라가려 하니 웬걸! 그때에야 비로소 내려가기보담 올라오기가 몇갑절이나 힘들다는걸 깨달았지만 때는 이미 늦었지. 허허…

너무 험애한 생각에 빠지면 자기가 들어간 구멍으로도 못나오는 때가 있다는 이야기겠지…》

광혁의 이야기는 상훈에게 의미심장하게 들렸다.

(나 역시 그 선비처럼 어리석은 모순에 빠져있는것이 아닐가? 기여가는 개미조차 보일 정도로 흰 달밤에 나혼자만이 어둠의 나락속에서 헤매이면서말이다… 아니면 저 누렁개처럼 모든걸 체념해버리고 군잠에 들어있든가…)

상훈은 피로운 심정에 젖어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등근 보름달이 이 세상을 굽어보며 끊임없이 달음질치는데 보석을 쥐여뿌린 듯한 별무리가 하늘공간에 짙 차서 금빛, 은빛을 뿌리고있었다.

다정히 웃기도 하고 속삭이기도 하고 손을 짓기도 하는 별무리속에 자기의 별만이 유독 빠진것 같아 상훈은 쓸쓸하고 무거운 한숨을 내쉬었다.

2

상훈은 고향집의 살림형편을 둘러보았다. 이게 정말 어머니 혼자서 사는 집이 맞는가 하는 감이 든다. 아래방에는 《대동강》 텔레비존이 놓여있고 옷방에는 재봉기와 양복장, 이불장 등 가구일식이 주련이 놓여있다. 창문에는 자수를 놓은 새하얀 문보가 드리워져있고 니스를 먹인 노란 장판은 거울판처럼 알뜰거렸다. 그야말로 소박하면서도 흠뻑정이 드는 정갈한 방이다.

어디선가 노래소리가 들려왔다. 상훈은 창문을 열어제끼고 노래소리에 귀를 기울이였다.

저쪽 강변에서 들려오는데 무슨 노래인지 잘 가려들을수 없지만 무척 처량한 곡조를 타고 흘러가고있었다.

그 어떤 애절한 사연을 품고 동정의 손길을 바라며 끊임없이 호곡을 터뜨려놓는것 같았다.

(무슨 노래가 저리도 구슬프게 들릴가...)

누가 부르는 노래인지 알수 없으나 상훈은 저도 모르게 심사가 울적해서 무거운 숨을 내쉬었다.

푸릿한 달빛이 마당에 심은 돌배나무를 어룡어룡 어루만지고있었다.

무엇에 놀랐는지 배나무가지끝에서 밤새가 푸드득거리더니 달빛을 따라 저 멀리로 날아가버렸다.

접동! 접동!

청룡산 깊은 골짜기에서 울어대는 접동새의 윤택한 울음소리가 흥벽을 흔들며 아릿하게 훑어내렸다.

상훈은 어머니가 돌아올동안 눈을 붙이려고 벽에 기대여 앉았다.

하지만 청하는 잠은 오지 않고 정신이 새록새록 맑아진다.

문득 정손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처녀를 구원하구 자기는 죽었다지... 그 《샌님》한테 어데서 그런 배짱이 생겼을가... 나같은생각도 못할 일을...)

정손은 어릴 때 계집애처럼 곱게 생긴데다가 성미까지 사근사근하여 《샌님》이라고 불리웠다.

상훈이 방학마다 고향마을로 돌아올 때면 어느새 먼발치에서 알아보고 소꼴망태기를 둘러맨채 냇다 뛰어오곤했다.

상훈이 쫓던 중학모를 벗겨들고는 자기가 쓰고 동네까지 들어가는것이였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해서야 쑥스러운듯 얼굴을 붉히며 《자-》 하고 내여주는것이였다.

가방을 집에 들여놓자마자 김을 매던 광혁이가 지 합쳐서 셋은 강둔덕으로 달려갔다.

풀밭에 벌렁 누워서는 커다란 솜뭉치를 등실등실 매달아놓은듯한 파아란 하늘가를 망연히 바라보았다.

《그래두 넌 큰아버지덕분으루 서울에 있는 중학교에까지 다니지만 나와 광혁인 제 이름자두 쓸줄 모르니 ...》

쏠살같이 들판으로 내리꽃혔다가 다시 하늘중천으로 떠올라 흰구름속을 꿰지르는 종다리를 닮았이 바라보고있던 《샌님》이 하는 말이였다.

《샌님》의 맑은 눈가에는 이슬같은것이 맺혀있었다.

《짜식! 소꼴이나 뜯구 두손이 호미짱뎡이가 되도록 땅을 파는 주제에 중학교타령은 웬 중학교타령이야...》

옆에 누워있던 광혁이가 통명스레 하는 말이였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 역시 비분에 젖어있었다... 이것이 상훈이 여름방학때 마지막으로 보았던 《샌님》의 모습이였다.

(그처럼 얄전하던 정손이가 그렇듯 배짱군으로 변했으니 이거야말로 놀라운 일이 아닌가. 어디 정손이뿐인가. 허과부는 어떻게...)

그리고보면 변하지 않은것은 자기뿐인것 같다. 아니 자기 역시 변하기는 무섭게 변했다.

하지만 자기의 면모에 대해 말한다면 지난날보다 더 치졸스러운 감이 들고 나비를 날려보낸 빈고치처럼 알속을 뺏긴 허룩한 감을 금할수가 없었다.

그릴수록 지난날의 추억이 주마등처럼 되새겨지는것이였다.

상훈은 폐염에 걸려 휴학을 하고 고모네 집에 가서 치료를 받다가 거기에서 전쟁을 맞이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청룡리는 38 도선 이남지대에 속해있었던것이다.

당장 세상이 뒤집힐것만 같은 전쟁통에 상훈은 어머니가 있는 고향으로 갈념을 못하고 어린애처럼 어머니를 찾으며 울기만 했다.

당장 어머니를 찾아 떠나고싶었지만 백부가 한사코 말리고 자기 역시 병자인 몸이라 움쩍할수가 없었던것이다.

백부는 그때 대전에서 정미공장을 경영하고있었는데 마침 《호경기》를 만나 전쟁판에서도 돈벌이를 크게 하고있었다.

그때 어머니쪽에서도 기별이 왔는데 그러는대로 큰아버지네 집에 눌러있으라는것이였다.

그래서 참고 지내고있었는데 3 년간의 전쟁이 종마리를 짓더니 북남이 또 갈라졌다. 그관에 전쟁전까지 남쪽땅에 속해있던 청룡리가 공화국북반부의 품에 안기게 되였다.

결국 상훈은 어머니와 생리별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는 참을수 없는 절망으로 몸부림쳤고 목이

터지게 어머니를 찾고 또 찾았다. 이대로 두면 미처 버리든지 무슨 변이 날것만 같았다.

《애야... 일이 이렇게 된걸 어찌겠니... 통일이 인차 되겠지. 그때까지 서로 의지해 살아가자꾸나. ...》

백부랑주는 눈물이 글썽해서 이렇게 위로해주며 조카가 마음을 돌리도록 각별히 원심을 쓰는 것이었다. 백부랑주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그래서 상훈을 유산상속인으로 점지해놓고 친아들보다 더 극진히 돌봐주는 것이었다.

그 정에 끌려서 상훈은 차츰 우울증을 가져버리게 되었다.

백부는 기업을 대대적으로 확산하여 마침내 얼마후에는 령서, 령남지방의 정미업과 양곡도매를 한손에 거머쥐게 되었다.

상훈은 서울대학시절 돈밖에 모르는 백부의 《생리》에 혐오를 느끼고 그와 몇번 다투기도 했다. 허나 백부랑주가 늙어서 세상을 떠난뒤 유산상속인의 권리로 하루아침에 갑부가 되고 백부의 손탁 밑에 있던 기업이 자기의 어깨에 메워지자 울며 겨자 먹기로 그 길을 따라 걷게 되었다. 그 길은 자신이 경멸하고 배척했던 길이었을뿐아니라 지금껏 숨쉬고 생활하던 방식과 맞지 않는 것이어서 무척 호홉하기 어렵고 서먹하기 그지없는 생소한 길이었다.

그는 마치 오른손으로 밥을 떠먹던 사람에게 갑자기 왼손잡이가 될것을 강요한것과 마찬가지로 습관되지 않은 생활, 익숙되지 않은 생활의 거류속에 뛰어들게 되었고 그 흐름에 떠밀려 어디론지 끝간데 모르게 표류하게 되었다.

허나 상훈은 그 생활에 차츰 끌려들어갔다. 그 전에는 인정이나 의리에 끌려 서슴없이 주머니의 돈을 터놓았지만 지금에 와서는 인정이나 의리에 앞서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의 수자를 회계해보고 저울질해보게 되었다.

전에는 초인종으로 시기를 불러들이기가 뭣해서 손수 그의 방으로 찾아가기까지 해서 회사 사무원들속에 《신임사장》에 대한 뒤소문이 자자하게 했다면 지금은 쏘파에 몸을 깊숙이 묻고 틱틱으로 불러들이거나 내보내는것도 자연스러운것으로 여기게 되었다.

생소했던 생활에 익숙되어가고 자리가 잡혀감에 따라 그대신 그가 간직했던 추억 많고 정다운 생활들이 멀어져갔고 퇴색되어가는 풍경화처럼 희미해져갔다.

돈은 인간관계에서도 커다란 변화를 일으켰다.

상훈은 한푼의 돈이라도 손에 쥐기 위해 고향사람들이나 다름없는 노동자들의 월급봉투를 잘라내는데도 서슴치 않았다.

그대신 자기가 증오했고 배척했던 인간들과 저도 모르게 가까와졌고 새로운 《정리》를 맺지 않으면 안되었다.

결국 인정과 의리로 융합된 진실은 날아가버리고 기만과 권모술수로 가득찬 허위만이 공중루각처럼 덩실하니 남게 되었다.

상훈은 변화된 자기의 이러한 생활에 놀랄 때가 많았다.

어린날의 리상훈은 사치와 번덕을 모르는 순박한 소년이었다.

구멍 뚫린 엽전 한개가 생겨도 소꿉친구들과 함께 가게에 나가 깨엿가락이나 과줄을 사서 함께 나눠먹었고 청룡천가에서 《고추》를 내놓은 발가송이몸으로 덩굴며 자란 자기였다.

맨발바람으로 온종일 수수발을 싸다니며 캄포라지를 따먹거나 혹은 입이 새까매지도록 수수감부기를 따먹는것을 이 세상 더없는 재미로 여기던 자기였다.

그러던 자기가 언제부터 통사정을 하는 노동자를 공장에서 내쫓아 하루아침에 실업자로 만들어놓고도 눈섭 하나 까딱하지 않는 《랭정한 인간》이 되었으며 육조물의 미세한 온도차이를 놓고도 하인에게 짜증을 부리고 인도 특산료리인 《케자리》나 《세계의 아름다운 맛》이라고 일러오는 철갑상어알로 만든 《카비아르》를 놓고도 군내가 난다고 투정을 부리는 번덕쟁이가 됐는가!

상훈은 잃어진 어제날의 생활을 되찾아보려고 애썼으나 그거야말로 쥐가 고양이 목에 굴레를 씌워보려고 하는것만치나 어리석고 헛된 것이었다.

경사진 언덕밑으로 내달리는 자동차를 멈춰세우기 어려운것처럼 한번 발을 들이면 그길로 상훈은 가속화되어 떠밀려왔다.

만약 이제라도 자기가 그러한 생활을 급전적으로 바꾸기라도 한다면 안해의 말마따나 《변태적인 미치광이》로 사람들한테 인정받을것은 뻔했다.

(이게 다 운명이야... 운명이거든. 그러니 이 운명의 <구세줄>에 자기를 매워놓고 사는수밖에... 하긴 객관에 비친 나라는 존재는 부러울 정도로 행복한 인간인지도 모른다. 어쨌든 이 세상 사람들은 이 희한한 <구세줄>을 손에 쥐여보자구 속이구 싸우구 죽이기까지 하지 않는가... 그러니 나에겐 그들이 욕망하고 추구하는 <구세줄>이 쥐여져있는셈이다... 이거야말로 정말 우연한 행복이다... 시내가에 었드려 물을 먹다가 큼직한 금덩이를 얻었다고 할가...)

그러자 정손의 생각이 또다시 불끈 솟구쳤다.

(자기 위주의 이런 <향락제일주의>가 행복이라면 그 친구는 무엇때문에 죽었다단말인가? 혈육도 아닌 남을 위해서말이다... 제 생각만 했다면 그는 얼마든지 살수 있었다... 그렇다면 그에겐 남을 위해 그처럼 자기를 희생시키는것이 행복이었던말인가?)

상훈은 자가당착의 논리에 빠졌다.

맑은 시내물밑의 조약돌처럼 반드름해보이면서도 안개를 두른 끝짜기처럼 어렵곤했다.

접동! 접동!

또다시 뒤산 골짜기에서 울어대는 접동새소리가 유정하게 들려왔다.

상훈은 접동새소리에 귀를 기울이다가 깊은 잠에 폴아떨어졌다.

...

《꼬끼오-》 어디선가 들려오는 새벽닭의 울음소리에 그는 깨어났다.

기지개를 우쭐 켜며 일어서던 그는 깜짝 놀랐다. 방안의 풍경이 너무나 낯설어보였던것이다.

우선 저쪽 맞은편 벽에 걸려있어야 할 그림이 없다. 그 그림은 상훈이 가장 사랑하는것인데 네테를란드사람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 《불효자식 돌아오다》였다.

모진 풍상끝에 거지꼴이 되어 집으로 돌아와 눈먼 아버지의 품에 안겨 자책의 눈물을 흘리는 아들이 어찌면 어머니와 헤어진 자기의 처지와 비슷하여 그 그림을 걸어놓고 하루에도 몇번씩 들여다보곤했던것이다.

그런데 웅당 있어야 할 그림은 없고 그자리에는 피나무로 만든 이불장과 양복장들이 놓여있었다,

그뿐이 아니다.

몸을 굽어보니 자기는 침대가 아니라 구들방에 누워있었는데 자기가 깔고있는것은 아직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듯싶은 다색단포단이었고 덮은것은 하르르한 모포였다.

(여기가 어딜까?)

상훈은 자수를 놓은 새하얀 문보가 드리워져있는 창문을 바라보았다.

희뽕한 새벽빛속에 잠짓을 털은 새들이 빨래줄이며 돌배나무가지에 앉아 요란스레 우짖고있었다.

한참만에야 그는 어제오후 고향방문차로 어머니한테 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기는 어제밤 어머니를 기다리다가 그대로 군잠에 들은것 같은데 누가 이처럼 옷도 벗겨 이불위에 눕히고 덮어주었던말인가.

그만치 정신없이 잤다는게 막 놀랄지경이다.

정말 꿈 한번 꾸지 않고 자지 않았는가.

이상한 일이다.

심장질환과 신경두통으로 항상 두억시니같은 피물한테 쫓기우고 아비규환의 혼잡속에서 고통을 겪다가 버럭 고향을 치며 깨어나군하던 자기가 이처럼 땀에 폭 절을 정도로 단잠을 자다니... 그것도 엮어가도 모르게말이다.

어디선가 그릇가지를 조심히 옮기는 소리가 가볍게 들려왔다.

상훈은 부엌으로 통하는 정지문을 열었다.

뜻밖에 어머니가 작은 손기계같은것으로 가루를 붓고있었다.

《어머니 무얼 하세요?》

그제야 어머니는 상훈을 알아본듯 하던 일을 멈추었다.

《왜 더 자지 않구...》

《무슨 잠이 그리 많아 지금까지 자겠어요.》

《원 애두... 아이뎌 밤새껏 돌아치다가는 해가 오를 때까지 자곤했단다.》

어머니는 웃음을 머금고 상훈을 바라보았다.

희스한 머리칼이 흘러내린 이마전에 땀발이 흥건히 내배여있었다.

《좀 쉬세요. 내 마저 붓을테니.》

상훈은 어머니가 쥐였던 수동분쇄기의 손잡이를 거머쥐었다.

어머니는 순순히 넘겨주었다.

상훈은 손잡이를 돌리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나팔처럼 생긴 주둥이로 찹쌀을 도간 도간 떠넣었다.

《그런데 찹쌀가루로는 무얼 하자고 그러세요?》

《설기떡을 하려고 한다. <편의분조>에서 바꾸어도 주지만 내 손으로 해먹이고싶어서...》

상훈은 가슴이 찌르르해졌다.

설기떡은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중의 하나였다. 생일날이면 어머니는 어떻게 변통해서라도 설기떡만을 꼭꼭 해주곤하였다.

손잡이를 재게 돌릴수록 구멍이 송송 난 밑으로 찹쌀가루가 보슬보슬 떨어진다.

《누가 만들었는지 정말 잘 만들었는데요.》

상훈은 하도 신통해서 감탄을 했다. 하긴 제 손으로 이렇게 일손을 놀려보기도 몇십년만에 처음이다.

《그게 농장 수리분조에 다니는 봉손이가 만든거란다. 제일먼저 만든것을 우리 집에 가져다 왔지. 그녀석이 얼마나 기계를 잘 만들어내는지 농장기사가 보고서 허를 내들렸단다.》

《그래요?》 상훈은 빙그레 웃었다.

어제저녁 오장서의 집에 갔을 때 인사를 꾸벅하던 몸집이 쇠덩이처럼 단단한 봉손의 모습이 떠올랐다.

무슨 총회인가를 한다면 나갔는데 오장서의 말을 들으면 리사로청위원장이란다.

정손이와는 생김생김이 영 판판다르게 생겼다.

《네가 오기전까지는 집에 와서 늘 살다싶이 하겠단다. 뭐 색시를 얻은 다음에는 여기에 아예 틀구 앉겠단나... 원 너석두... 어찌나 성큼성큼하고 부접이 좋은지...》

《그래요?!》 상훈은 껄껄 웃었다.

하지만 목구멍으로는 뜨거운것이 피여올라 가카스로 삼켰다.

《정말 고마운 사람들이다... 모두들 날 돌봐주느라구 고생들 했지... 그 사람들만 아니었다면 이 에민 땅속으로 들어간지가 옛날일게다.》

《...》

《내 그래서 죽자하구 일한다. 누에두 치구, 짬이 있으면 유치원이나 탁아소에 가서 푸성귀도 다듬어

주기두 하구... 그래두 뭔가 모자라는것만 같구나... 인젠 됐다! 네가 왔으니 마음이 별스레 든든한게.》

어머니는 주름을 펴며 흐뭇이 웃었다.

그럴수록 상훈의 마음은 더욱 불안했다.

그러니 어머니는 자기가 아예 여기에 눌러앉을 것으로 믿고있는 모양이었다. 안해와 딸까지 데려다가말이다.

문득 자기와 함께 오겠다고 애를 먹이던 안해와 대학에 다니는 딸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때 자기는 가족들에게 고향에 가서 어머니를 혹 모셔올수도 있다고 하지 않았던가...

어쨌든 모든 일이 생각보담 수월치 않으리라는 불안이 가슴을 돌덩이처럼 무겁게 눌렀다.

3

상훈은 어머니, 광혁이와 함께 아버지의 산소를 찾아가기 위하여 동구밖을 나섰다.

상훈은 일매지게 쭉 뻗어간 벌판을 탐스럽게 바라보았다. 모든 포전이 기계화를 할수 있게 규격포전으로 정리되었는데 그 가운데로 트랙터들이 약통을 달고 다니며 농약을 뿌려주고있었다.

밭동기애다 제초기를 몇개씩이나 달고 그우에 운전공이 년땀 타서는 물스키처럼 신이 나게 달린다. 보는 사람의 손발목이 막 근질거릴 정도로 기분을 한껏 돋구었다.

수리화는 또 얼마나 잘됐는가!

사실 이 앞벌은 땅이 넓운데다 뒤에는 청룡산이 가로놓여있어서 바람풍세가 없고 기온이 온후하여 농사짓기에 그저 그만이다. 그런데 강줄기라곤 청룡강 하나뿐이어서 논 먹일 물이 어방없이 모자라군했다. 그래서 전전전까지는 물싸움때문에 동네가 조용할 날이 없고 술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았다. 광혁이 아버지도 면장네 눈에 들어가는 물을 밤새 한번 돌려대었다가 읍경찰서에 불들려가서 매맞아 죽었다.

하지만 지금은 배수로마다 물이 출렁출렁 차넘치고 물을 흠뻑 머금은 벼포기들이 하나와 같이 검푸르게 독을 쓰며 자라고있었다.

《자네들이 농사하는걸 보면 캐나다의 로렌시아나 미국의 서남부 농장주들이 왔다가 울고 가겠네. 정말 기가 막히게 농사를 하는구만!》

상훈이 신바람이 나서 즐겁게 말했다.

《허허허... 그따위들과 대하겠나! 농사를 하는데서두 조선사람의 본때를 보여주어야지. 우리 마을이 이제 가까운 시일내에 세계적인 최첨단으로 도약하게 될걸세!》

《원 욕심두...》 상훈은 껄껄 웃었다.

《우리가 뭇때문에 남들한테 뒤져서 살겠나. 살아두 남보다 몇갑절 월등하게 살아야지. 우리가 조상들한테 유산으로 물려받은건 연자방아와 보습밖에 없네. 그야말로 모진 가난속에서 쓰디쓴 설음만을 깨물며 살아왔지... 하지만 우리 시대에 와서야

뭇때문에 그런 가난뱅이타령만 하겠나?! 우린 지난날 남들한테 손가락질을 받으며 못살은 봉창을 몇백배로 하자는거네. 이걸 결코 욕망이나 공상이 아니라 몇해후에 펼쳐지게 될 이 땅의 현실일세!》

해빛에 그슬려서 질그릇같은 광혁의 얼굴에는 무게를 가늠할수 없는 만만한 투지와 역센 신념이 맥맥히 흐르고있었다.

그는 벌써 장난만 세차던 어제날의 소꿉친구가 아니었다.

그때의 인정미있는 눈빛과 수더분한 얼굴은 여전했지만 그에게는 무엇인가 꺾을수 없고 누를수 없는 싱싱한 탄력과 함께 신념이 있는 인간에게서만 찾아볼수 있는 긍지와 자부심을 읽게 되는것이였다.

일행은 소나무가 짙 들어선 산골짜기길을 따라 산마루로 올라갔다.

아버지의 산소는 청룡이 하늘로 오를 때 생겼다는 《룡자리절벽》 우의 산마루에 있었던것이다. 한참 올라가니 소나무가 병풍처럼 둘러선 양지바른곳에 봉분이 하나 나졌다.

《아니 이거야 아버지의 산소가 아니지 않나요?》

상훈은 너무도 낯선 봉분앞에 이르자 대변에 놀라 눈이 화등잔만해졌다.

성묘가 비할바없이 크고 그 풍치 또한 거연하기 짝이 없어 얼핏 보기에도 부자집묘가 분명하였던것이다.

《원 애두, 어쩌면 자식이란게 묘자리마저 다 잊었느냐?》

어머니가 핀잔 비슷이 상훈을 나무랐다.

《묘자리는 틀림없는것 같은데...》 상훈은 더욱 의혹이 짙은 눈길로 어머니와 봉분을 번갈아 보았다. 자기가 어떻게 아버지의 묘를 잊을것인가. 해마다 한식이나 추석때가 되면 어머니와 함께 찾아와 합장절을 세번하며 아버지의 《명복》을 빌던 상훈이였다. 오지그릇종지에 괴워놓은 향불냄새가 어찌나 서글픈 마음을 더해주던지... 그때 자기는 소영댕이자리만한 이 묘안에 아버지의 《명혼》이란게 있긴 있으며 자기가 부어주는 술을 정말 달게 드실가 하고 엉뚱한 생각까지 하지 않았던가.

정말 그때의 아버지묘는 죽은 어린애의 묘처럼 당실하고 제음식을 올려놓을 상돌조차 변변히 없으리만큼 초췌했다. 그런데 눈앞에 있는 묘는 봉분도 탐탁하거니와 금잔디를 촘촘히 해입히고 향나무까지 한그루 떠다 심어놓은게 산소의 풍치가 한결은 은하고 정가로왔다.

거기애다가 비석과 돌상까지 아담하게 세운걸 보니 마치 효성스러운 제자들이 은사의 분묘를 받드는것만치나 극진하고 뜻이 깊은것이였다.

상훈은 이처럼 훌륭한 묘가 자기 아버지의 묘라고는 도무지 믿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비석에는 분

명 《리지군》이라는 아버지의 이름과 《상제 리상훈》이라고 새겨넣지 않았는가.

《정전후에 장서아버님이랑 이 리당비서랑 봉분도 더 없구 떼장두 새로 입혔단다… 한식이나 추석이 되면 여기 올라와 벌초두 해주구 네대신 술두 붓구… 아들이 시퍼렇게 살았으면 뭘하느냐… 제구실을 해야 자식이지.》

어머니의 마지막말은 분명 자기에 대한 원망의 지구심이 깔린 소리였다.

죄스러웠다. 자기를 대신하여 어머니와 아버지의 묘까지 돌봐준 고향사람들에게 백번이라도 옳더라 큰절을 올리고싶었다.

《아버지, 이 못난 아들을 용서해주세요…》 그는 봉분우에 와락 쓰러져 울음을 터뜨렸다. 초연한 봉분의 잔디풀이 자기가 어릴적에 만지작거리던 아버지의 구레나룻처럼 살풋이 느껴져 그는 봉분을 쓰다듬고 또 쓰다듬었다.

아버지는 왜놈의 토목공사장에 끌려갔다가 밀차에 깔려 돌아가셨다.

불쌍한 아버지였다.

상훈은 자식된 도리를 다하지 못한 죄책감에 머리를 들수가 없었다.

《광혁이! 정말 고맙네…》 산에서 내려오며 상훈은 눈물이 그렁한 얼굴로 진정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결국 상제는 자기가 아니라 광혁이와 같은 고향사람들이었던것이다.

상훈은 이 순간 광혁이앞에 무엇이라고 사죄했으면 좋을지 몰라 그저 황송한 심정으로 바라보았다.

《원 별스레두 군다! 자네면 안그랬겠나?》

광혁은 상훈의 어깨를 쥐어박으며 결결 웃었다.

상훈은 부끄러워 그를 마주볼수가 없었다. 사실대로 말하면 자기는 고향사람들은 너무나 잊고있었다. 자기위주의 향락속에 빠져 모든걸 잊고 배반까지 했다.

박정희의 파쑈정치에 불만을 품고 카나다로 망명할 때까지만 해도 그의 가슴속에는 정의의 채색한 의분이나 의리를 내걸은 량심의 찌꺼기가 다소나마 간직되어있었다.

하지만 그후부터는 모든걸 잊어버렸다.

악취를 풍기는 오수속에서 허울도 났도 오염되어있던것이다.

그런데 고향마을에 와서 진실한 인정과 의리에 비친 자기의 초췌한 물골을 보는 순간 어쩐지 부끄럽고 죄송스러워만지는것이였다.

《자넨 그걸 신세라고 생각할는지 모르겠지만 우린 그렇게 생각하지 않네. 한집안 식구간에 은혜요, 신세요 하고 운운한다는 자체가 고리타분한 일이 아니겠나.》

광혁이 정겨운 눈길로 상훈을 바라보며 하는 말이었다.

그의 이 말은 상훈을 더욱더 크나큰 자책에 빠지게 했다.

상훈은 이 순간에야 어머니를 모셔가는 문제가 자기 가정 하나에 국한한 문제가 아니라 이처럼 고마운 사람들, 전체 고향사람들과 관련된 문제이며 이것은 자신이 마음대로 결정할수 없는 그런 엄청난 문제라는 예감이 어렴풋하게나마 드는것이였다. 생각에 잠겨 걷는 두사람앞으로 달음박질쳐오는 늑은이가 있었다.

《날 모르겠나? 이사람 !》 로친은 이고있던 그릇등숙을 내려놓고 상훈의 손을 와락 잡았다.

《아니 <국수집>어머니 !》 상훈은 허파부가 늘 자랑하던 코언저리의 《복김》을 보고서야 《국수집》을 알아보았다.

《국수집》은 여전했다.

70 고령의 늑은이인데도 잔주름이 그닥 많지 않고 혈색이 좋아서 젊은 시절의 너털풍이 그냥 남아있는듯싶었다. 몸 역시 굵은데가 없이 정정한데 실박한 몸집은 왕성한 기력을 그대로 담고있었다.

《손주딸이 앓는다더니 어떻게 됐나요?》

《괜찮네. 아침에 리병원에 또 들렀다 오는 길이니. 사실 그 애때문에 자네가 왔다는걸 알면서두…》

《어머니, 마을늑은이들의 말을 들으면 손주딸애의 태기가 둘이라는데요…》 광혁이가 《국수집》에게 묻는 소리였다.

《웬걸 나한테 그런 복이 차례지겠노… 우리 가문에 <아들발>이 좁아 딸만 낳으니 듣기 좋으라고 해보는 소리지.》

《그런데 저건 뭘니까?》 상훈은 바위우에 올려놓은 그릇등숙들을 가리키며 물었다.

《우리 리당비서한테 물어보게나. 자네한테 한턱내는 모양일세.》 《국수집》은 광혁에게 눈을 끔뻑이며 흐물흐물 웃었다.

《자, 가서 국수추렴이나 합세. 자네야 서양음식치고 못먹어본 음식이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 조선국수를 당할 음식이야 있을텐가 !》

광혁은 상훈의 손을 잡아끌었다.

상훈은 뜨거운것을 삼키며 그가 이끄는대로 따라걸었다.

아지를 무섭게 친 논란은 바닥이 들여다보이지 않았다. 논둑에 나와 알몸을 드러내고 해바라기를 하고있던 개구리들이 인기척에 놀라 네다리를 쭉펴고 논물속에 침범침범 뛰어들었다.

《자, 어서들 나와서 결놀이냐 한그릇씩 합시다레 !》

저만치 앞서간 《국수집》이 제초기를 운전하는 사람들에게 기세좋게 소리쳤다.

얼마후 논 한가운데서 일하던 사람들이 줄렁줄렁 나왔는데 최뚝에서는 오장서가 풀을 베고있었다.

《할아버지도 계셨군요. 그만두시라는데 왜 이리 십니까?!》

광혁은 오장서를 보며 가볍게 나무랬다.

《내 그래서 리당비서를 범보다 더 무서워하니 ! 죽으라는 소리보다 나가라는 소리가 더 서러운걸세. 제발 날 제쳐놓지 말아주게… 리당비서두 내 나이에 이르면 이 산귀신의 심사가 리해될거네.》

요지부동의 성미를 어찌지 못하겠는듯 광혁은 그저 빙글빙글 웃기만 했다.

《선생님, 처음 뵈었습니다. 류성팔이라구 하우…》

상훈은 수더분하게 생긴 한 중년남자의 인사를 받았다.

얼굴이며 팔다리가 해빛에 보기 좋게 타고 힘살이 터질듯이 팽팽한게 무척 다부지고 강기가 느껴지는 사나이였다.

《여보게 7 분조장 ! 자네 무슨 인사하는 본새가 그따위냐? 한쪽으로는 피올리구 다른 한쪽으로는 해라를 쓰구…》

대통에 성냥을 그어대던 오장서가 인사하는 모양을 건너다보더니 혀를 끌끌 찼다.

《허허… 서울랑반들한테 인사하기 싫어서 강아지를 차고다니며 인사를 대신시켰다는 봉이 김선달이보다야 낫습지요. 내 오늘 별스레 허가 뻗뻗한게… 아 우리와 한고향내기인데 뭐랍니다. 난 상훈형님, 하고 부르겠수다…》

그바람에 모여섰던 사람들이 배를 그러쥐고 웃었다.

상훈이도 웃음을 참지 못하고 꺾쩍 웃었다.

에두름이 없이 생각나는대로 통통 내뿜는 그의 말에 한순간 당황하기도 하였지만 그 진실한 마음이 오히려 눈물겹도록 뜨겁게 안겨오는것이였다.

《에구 잡담만 할테유? 자, 쟁고기꾸미에 입에 찹찰 붙는 메밀국수요! 하늘나라 신선두 한번 맛을 보고는 땅에 내려와 살겠다고 했다는 일등진미라! 모두들 허리띠를 푸시구 량껏 드시소 !》

《국수집》이 수선을 떨며 벌떡사발에다가 말이 넘치게 사래를 얹고 국수물을 부어 사람들에게 권했다.

상훈도 한대접 받아들었는데 쟁고기로 꾸미를 하고 그 국물로 고명을 한 메밀국수는 연자주빛이 자르르 도는게 보기에다 먹음직스러웠다.

상훈은 천천히 수저를 놀려 먹기 시작하였다.

반득반득하면서도 질기고 시원한 맛과 감칠맛, 향긋하면서도 얼얼한 양념맛, 거기다가 세상좋은 기름진 쟁고기로 꾸미를 한 국수맛은 진짜 《달나라신선》이 내려올 정도로 기가 막히다. 정말 오래간만에 먹어보는 국수였다. 세상에 좋다는 음식은 다 먹어봤지만 우리 국수처럼 사람의 입을 바짝 땀이 나는 그런 음식은 그 어느 나라에도 없었다.

더우기 고향사람들이랑 한집안식구처럼 오붓이 앉아 먹으니 별스레 마음이 탁 띄우는것 같고 웃음집이 자꾸만 흔들흔들하는게 감개무량하기 그지없다.

《여보게, 자네 때문에 술가지를 걸어놓은게 뭐냐?》

대접을 천천히 비운 오장서가 능청스레 웃으며 《국수집》에게 묻는 소리였다.

《에그머니나 ! 어느새 그걸 다…》 것처럼 기세 뜬뜬하던 《국수집》은 어찌나 창피한지 쥐구멍에라도 들어갈듯했다.

《술가지를 걸어놓다니요?!》

옆에 앉았던 광혁이가 영문을 몰라 눈이 둥그래서 물었다.

《에그! 사실은 저… 이번에 꼭 아들손자를 봤으면 해서… 옛날에 그런 풍습이 있었지… 내 이거 고치자구 했다가두…》

《국수집》은 겁이 나는듯 말소리를 낮추며 어롱어롱 말했다.

《그게 다 미신일세! 내 이 허연머리로 장담하네만 분명 아들 쌍둥이 태기일세. 벌써 다른 사람들과 달라… 내 말이 틀리거든 동갑이로 치게! 호호호…》

《원 아주버님두, 그랬으면 여복이나 좋겠나요. 그렇게만 되면 내 이 청룡리들판이 들썩하게 돈돌라리춤을 추겠수다요!》

그바람에 웃음판이 또 장쾌하니 터졌다.

서늘한 소슬바람에 푸른 벼포기들이 파도치듯 설레었다. 만물이 가까와오는 벼인지라 벼대 한대가 총대같이 굵고 짙은 모래베개가 앉았는데 당장이라도 물줄개가 오를것만 같이 소담스러웠다.

뜸북 ! 뜸북 !

물을 쫓는 뜸부기소리가 상훈의 가슴을 파고들며 유정스레 들려왔다.

《여하튼 농사가 잘돼야 우리두 나라앞에 땀땀하지 않겠나?!》

대통을 물고 시퍼렇게 뻗어간 논벌을 바라보고 있던 오장서가 불쑥 하는 말이였다.

《그러게말입니다. 어제 수령님께서 농사일때문에 청산리를 또 찾으시였습니다…》 역시 생각에 잠겨 논벌을 바라보던 광혁이가 말을 받았다.

《나두 들었네… 그게 다 우리 농민들이 제도리를 못해서 그러는걸세… 년세가 많으신 우리 수령님께서 여직 논밭머리에서 살으시게 하다니 이게 어디 될말인가?! 그만큼 고생을 하시게 한것만두 죄송스러운데… 모두들 정신을 차려야 하네!》

오장서의 노여움이 섞인 말은 그대로 사람들의 가슴속에 절절히 스며들었다.

상훈은 커다란 감동에 젖은 눈길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무엇인가 거대한 세계를 받아안은듯 벅찬 환희가 솟구치는것이였다.

수령과 대중간에 얼마나 진실한 혈육의 정이 흐르는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상훈은 사회구조의 밑바탕에 이처럼 참담하고 숭고한 생활적 신념과 의리가 굽이쳐흐르는것을 보지도 듣지도 못하였다. 생사운명을 같이 한다는것은 생각할수도 없거니와 또 그러한 사회는 존재할수도 없다고 상훈은 생각했다.

니체는 모든 사물의 존재의 본질은 다른것보다 강하고 압도하며 이기기 위한데 있는것이라고 했다, 인간생활도 다름바 있겠는가.

《생존경쟁》이라는 약육강식의 혈투속에 하나의 《피라미트》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것이 사회인것으로 상훈은 알고있었다. 이긴자는 진자의 등을 밟고 가장 힘센자가 우위에 오르는 그 《피라미트》의 기초에는 《이김의 법칙》이 응용되고있는것이 그가 살아온 세계였다. 《천궁》과 잇닿은 《피라미트》 꼭대기로 올라가는 힘은 곧 돈이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그 모든것을 배제하여 보다 더 인간화된 세계가 존재하는것이였다.

수령은 인민을 사랑하고 인민은 수령을 존경하고 믿고 따른다. 거기에는 그 어떤 사심도 없고 강요도 없으며 맹목적인 추종도 없다.

상훈은 그 모든것을 목격할수록 놀랍기도 하고 자기의 범속한 식견으로는 도대체 이해되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는것이였다.

4

이날밤 노래소리가 또다시 들려왔다.

오늘은 손풍금소리까지 합쳐졌다.

애절한 음향으로 끊임없이 같은 노래를 반복하는 그 소리에 끌려 상훈은 밖으로 나갔다.

상훈은 노래소리에 귀기울이며 그 뜻을 가려보려고 애썼다. 교묘한 달빛이 운무처럼 한별 쪽 깔렸다.

달빛은 이 세상의 삼라만상을 신비하고 은은한 보자기속에 감싸안고 조용히 자장가를 불러주는듯했다.

산골짜기는 으스스한 그림자속에 고즈넉히 누워있었고 달빛에 반사된 청룡강물은 얼음관처럼 번쩍거렸다. 노래는 강변버들숲에서 울려오고있었다.

외로이 떠가는 운명의 쪽배
키없이 노없이 가는곳 어디냐
풍랑에 시달려 고달픈 마음
나라없어 서러워라 아 내 인생아

그 노래를 귀담아듣는 순간 상훈의 심장은 마당질하듯 뛰었다.

이게 무슨 노래냐?! 단순히 인생을 슬퍼하고 막다른 지경에 빠진 자기를 구원해줄것을 바라는 부르짖음이 아니라 나라없는 설움을 개탄하는 노래가 아닌가...

어쩌면 은연중 듣게 된 저 노래가 이리도 가슴 뿌리를 세차게 흔드는지 몰랐다.

《어때 아직 안되겠지?》 문득 노래소리가 끊어지며 뜻밖에 녀자의 청고운 목소리가 어둠속에서 들려왔다.

《아직 뭔가 좀-》 이렇게 주눅히 대답하는것은 남자의 목소리였다.

《아무래도 난 안될것 같아. 일등은 고사하고 <텔레비죤무대>에 나가서 괜히 망신을 하면...》 녀자쪽에서 실망이 짙은 목소리로 하는 말이였다.

《무슨 소릴... 아무일에서나 신심이 중요하거든...사로청총회에서 결의하구두 그런 소릴 해? 동문 어떤 일이 있어도 일등을 해야 해! 이건 단순히 일등이나 꼴등이나 하는 문제가 아니라 리당비서아저씨의 말처럼 우리 고향마을의 명예와 관련된 중대한 문제란말이야!...》

애간장이 마르는듯 남자쪽은 안타까운 목소리로 설복시키려들었다.

《호-그렇긴 한데 자꾸 떨리는걸 어떡해...》

《그래서 내가 곁에서 손풍금반주를 하지 않아. 나만 봐두 한결 마음이 놓일걸.》

《피-》

《피가 뭐야? 절 위해서 내가 얼마나 속을 썩인 다구... 정말 맹충이네...》

《누가 뭐 자기더러 두엄무질 만들렀나? 자꾸 썩이구 있구.》

《차 이런... 우린 왜 이처럼 만나기만 하면 수탉처럼 씹하기만 하는걸까? 남들은 처녀총각이 만나면 오손도손하고 세상 재미있어 보이던데!》

《어마나! 저와 내가 뭐가 된다구...》

《왜, 우린 뭐가 되면 안되나? 하하하... 그건 그렇지. 문젠 감정이야. 동무노래엔 이국타향에서 조국을 피타게 그리워하는 부르짖음과 몸부림이 생동하지 못한것이 큰 탈이거든... 이걸 꼭 해결해야 해.》

《참 <배나무집> 할머니네 집에 온 해외동포를 보았어?》

《음... 우리 만형이랑 소꿉친구래... 어제 우리 집에도 왔었어.》

그제야 상훈은 지금 말하는 청년이 어제저녁 자기에게 인사를 꾸벅하던 오장서의 막내손자 봉손이라는것을 알았다. 그보다도 상훈은 그들의 대화속에 자기에 대한 이야기가 엉뚱하니 실리는지라 귀를 바짝 강구었다.

《그 해외동포는 이런 감정을 더 잘 알테지?》

《그럼 이국살이에 고생을 더 많이 했을테니까...》

《피, 고생은 무슨 고생, 돈많은 은행가라더라!》

《돈 많으면 고생을 안하는가? 난 그가 불쌍해보이고 동정이 가더라.》

《어마나! 무어가 불쌍해? 호의호식할텐데...》

《차 이런 사상적 병집이 단단히 들었군. 내 이런 동무를… 은정이, 사람이란 인간적으로 행복해야 하는거야! 그래 은정인 인제라도 누가 돈을 들킵 안겨주면서 다른 나라에 가서 살라면 살텐가?》

《그게 무슨 소리야?!》

《하하하… 그것 보라구, 못살거든. 감히 생각이 나 할수 있겠어? 절 이날이때까지 먹여주구 입혀주구 사람을 만들어준 사람들과 어떻게 떨어져 살아? 혁명동지를 위해서라면 피와 살도 서슴없이 나누고 죽음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행복한 대가정을 떠난 삶이란 뭐겠어? 그거야말로 인생중에 가장 큰 불행이고 비극이지. 그러니 그 해외동포라는 사람한테는 우리가 누리는 그런 참다운 행복이 없으니 불쌍한거지 뭐야. 마치 굶은 닭알처럼 빈껍데기만 동실하니 남은셈이거든, 어때 은정이, 내 말이 틀려?》

《누가 틀린다나?!… 동문 확실히 나보다 나아… 그에 비하면 난…》

《차 이런, 너무 비행기를 태우지 말라구. 이젠 내 혼자서 꼼꼼히 생각해본거야… 난 이렇게두 생각해보았어. 만약 내가 적진속으로 뛰어들다가 화점이 나타나서 그걸 몸으로 막구 죽는대두 한스러울게 없다구말이야. 오히려 난 고향사람들의 녀원대로 값높은 죽음을 택했으니 행복할거야. 정손형두 그때문에 생명을 바친게 아니겠어?! 난 아직도 정손형이 나를 불렀었구 <봉손아, 사람은 의리를 귀중히 여길줄 알아야 한단다. 네 이만큼 자랐으면 자기가 어떻게 커났는가 생각해볼줄도 알구 그 은덕에 보답할 궁리도 해야 하지 않겠느냐?>하구 엄하게 타이르던 말이 잊혀지지 않아… 그때는 그저 잔소리로만 심드렁하니 들었는데 형이 희생된뒤 지금 되새겨보면 내가 진짜 철이 없었거덩 …》

상훈은 발길을 돌려 천천히 걸어갔다. 이 순간 자기가 지금껏 옳다고 믿어왔던 리성의 탕개가 맥없이 끊어지며 모든 론리가 혼탕되는 감을 느꼈다.

(그러니 저들에겐 내가 더없이 불쌍하고 동정까지 받을 존재로 여겨진단말이지… 그래도 난 지금까지 저 사람들보다는 어느 정도 더 행복하다고 자부해오지 않았던가… 그런데 한개 수리공에 지나지 않는 평범한 청년한테 동정을 받다니…)

이거야말로 자기의 사고관을 완전히 뒤집는 청천벽력과 같은것이였다.

몬트리올에서 상훈은 금융계의 중견이었을뿐 아니라 힘의 권좌였다.

사람들은 그를 선망의 눈길로 바라보았고 어디가나 각근히 돌봐주고 친숙하려고 애썼다.

각종 연회, 생일파티, 《지성인》들의 야유회, 마담들의 산놀이 등 어디가나 따로 마련된 그의 좌석이 있었고 거기서는 응당 상훈이 주인의 역할을 놀았다. 그만큼 상훈은 행복을 겸비한 권력의 표징이었고 사람들의 찬란의 대상이었던것이다.

그런데 상훈은 한 평범한 청년한테서 보기 좋게 얻어맞았다. 그것은 비단 봉손이 하나의 심정만 아니요, 고향사람들 전체의 심정이라고 해야 옳을 것이였다. 그렇다면 자기가 지금껏 믿어왔고 욕망하고 추구하고 자부한 그 모든것은 무엇이었던말인가?! 그것이 과연 행복이란말인가. 그 모든것이 행복이 아니라면 어머니를 모셔가는 일 역시 늙으신 어머니에게 효성과 기쁨, 만족을 가져다주는것으로 되는게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로 불효와 슬픔, 고통만을 가져다주는 일로 될것이였다.

상훈은 자기가 지령해오던 기둥을 뽑아버리고 싶지 않았다. 그는 믿고싶었고 부인하고싶었고 항변하고싶었다. 그걸 정신적 지주로 믿고 그런 《생활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어디 자기뿐인가…

그러나 봉손이나 고향사람들의 말은 론박할 여지도 없는 정당한 말이였다. 어쨌든 서로 다른 생활신념은 판이한 두 세계의 인간을 만들어놓지 않았는가.

상훈자신이 믿고있던 신념은 속되고 저렬하고 령기화된 인간 즉 자기를 만들어왔다면 공화국복반부사람들이 믿고있는 신념은 오장서나 정손이, 광혁이, 허과부와 같은 진짜배기인간들을 만들어놓았다.

인간적인 척도에서 고향사람들에게는 진보를 가져왔다면 자기에게는 퇴보를 가져왔다. 결국 자기에게는 봉손이의 말따마나 인간적인 행복이 없는 것이였다.

그렇게 생각해보니 지난날 자기에 대한 못사람들의 《극진한 환대》 그것은 일개 인간, 즉 상훈자신을 위한 환대가 아니였다.

돈에 대한 환대였다.

이미 자기라는 존재는 황금의 빛에 사위여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도 않을뿐아니라 죽어서 땅속에 들어간지도 옛날인것이다.

그러자 상훈은 허무한 생각에 눈물이 왈칵 나갔다. 그는 온몸의 기력이 다 빠져버린듯 매시시한 느낌이 들어 펄쩍 주저앉았다.

거기는 달빛이 잘 비쳐들지 않는 으스스한 골짜기였다.

5

다음날 상훈은 고향사람들이 일하는 앞벌로 나갔다. 어쩐지 그들과 같이 땀을 흘리며 웃고 떠드는 그 화목한 정숙에 흠뻑 빠지고싶었던것이다. 광혁이랑 오장서랑 극력 말렸으나 상훈은 제초기에 올라앉았다. 아직 서툴었지만 그래도 신바람이 났다.

로동의 기쁨이란 얼마나 큰것인가!

종아리를 가볍게 스치는 벼포기의 간지러움과 제초기날에 갈리워 물갈기가 확실히 일어날 때마다 바람결에 선뜩 닿는 시원한 물보라, 저만치 앞에서 혼비백산해 달아나는 개구리들의 물장구소리... 상훈은 상쾌함에 젖어 꺄꺄 웃었다.

그런데 이때였다.

《리당비서 거기에 있나?》

누군가 큰길가에서 광혁을 다급히 찾았다.

뜻밖에도 《국수집》이었다.

《아니, 왜 그러십니까?》 저쪽에서 제초기를 운전하던 광혁이가 놀라서 되물었다. 상훈이며 오장서며 일하던 사람들도 눈이 둥그래서 《국수집》을 바라보았다.

《국수집》은 어찌나 불안에 사로잡혔는지 몸은 와들와들 떠는게 제정신이 아니었다.

《이사람아! 일났네! 산모가 아들 세쌍둥이를 낳았다누만...》

《국수집》의 가까이로 급히 다가간 광혁에게 울먹울먹한 소리로 하는 말이였다.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다. 세쌍둥이를 낳았나니 ...

《아니 그게 정말입니까?! 그럼 우리 청룡리의 대경사가 아니웬까?》

광혁이 벌써부터 입귀를 찢며 벅글거렸다.

《경사를 앞에 두고 네 생명이 다 죽나부네. 산모가 오늘래일 하는 모양인가배... 이 일을 어찌면 좋나...》

《알겠시다. ... 》

광혁은 《국수집》의 잔푸념에 벌써 모든 일을 직감한듯하였다.

그는 웃웃도 입지 않고 리병원으로 뚝다 뛰어갔다. 논판에 서있던 사람들도 약속이나 한듯 일손을 놓고 마을쪽으로 뛰어갔다.

상훈은 오장서와 함께 《국수집》을 부축하여 가지고 마을로 들어갔다.

리병원마당에는 어느새 소식을 알았는지 동네 조무래기들까지 하얗게 모여있었는데 모두들 근심스러운 얼굴을 하고 두선두선 이야기를 나누고있었다.

세아이중에서 첫째는 어렵지 않게 순산했는데 둘째와 셋째가 태를 감고있어서 배를 찢다느니, 산모는 아무것도 보지도 듣지도 못하고 꼼짝 못하고 누워있다느니 하며 어디서 주어들은 이야기를 조심스레 나누는것이였다. 모두들 내색은 안하지만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혀있었는데 그래도 《국수집》이 오자 안색을 달리하고 가볍게 위로해주고 안심을 주려고 애쓰는것이였다.

그러다가 그 모든것이 한날 객적은 소리에 불과하다는것을 깨달은듯 긴 목을 빼고 발돋움까지 해가며 전화를 걸러 들어간 광혁이 나오길 애타게 기다리는것이였다.

상훈의 심정도 마찬가지였다. 그는 심증필구 《국수집》의 손주딸이 잘못될것이라고 지레짐작했다. 아이들은 말할것도 없고...

자기가 살고있던 세상에서는 세쌍둥이를 사람으로 보지도 앓거니와 살수도 없는것으로 치부하고있었던것이다. 더우기 순산이라도 했다면 몰라라...

그 운명은 벌써 결정한거나 다름없었다.

마침내 광혁이가 흥분된 얼굴로 뛰쳐나왔다.

《웁니다! 와요! 직승기가...》

그가 어찌나 헤뭇버치는지 마당에 서있던 사람들은 눈과 귀를 잃은 사람들처럼 어리벉벉해 쳐다보기만했다.

무엇이 온단말인가?! 생똥스레 직승기는 웬 직승기고? ...

끓어넘는 두부가마 다루듯 덤벼치던 광혁은 그제야 자기를 깨달았는지 열절게 웃으며 모여선 사람들을 둘러보는것이였다.

《방금 군당책임비서동지로부터 전화가 왔는데 우리 청룡리에서 세쌍둥이가 태어났다는 보고를 받으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대단히 만족해하셨습니다. ...》

그의 크고 순한 눈가에는 이슬같은것이 번쩍이였다.

《아니, 그럼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벌써 이 소식을 들으시였단말인가?!》

오장서가 감격에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예, 소식을 들으시였을뿐아니라 산모가 중태에 빠졌다는것까지 아시고 어떤 일이 있어도 산모와

애들을 살려낼데 대한 간곡한 과업을 평양산원에 주시였습니다.

그리고 긴급한 후송을 위해 직승기까지 보내주시는 조치를 취해주시었답니다...》

그의 말이 떨어지기도전에 어디선가 웅글은 동음소리가 들려왔다.

《직승기다!》

누군가 소리치자 사람들의 눈길이 일제히 소리가 나는 북쪽으로 쏠려였다.

해빛에 몸체를 번쩍이며 직승기가 날아오고있었다.

《만세!》

폭풍과 같은 만세소리가 터졌다.

《만세에-》

《만세에-에-》

동네 어른, 아이 할것없이 직승기를 따라가며 만세를 부르고 환성을 내질렀다.

뛰다가 넘어지고 신발이 벗어지고 물참봉이 되고 갇히고 찢기고 부딪치는것도 모르고 웨치고 웃고 울면서 직승기와 함께 달리기내기라도 하는듯 그냥 뛰어가는것이였다.

《만세에-에-에-》

상훈은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또 흘렸다.

아, 이 땅!

이 땅은 얼마나 행복한 땅이냐!

수령, 당, 대중이 하나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를 이루고 생사운명을 같이 하는 나라!

이것이 바로 내 조국이고 내 고향인것이다.

상훈은 이 순간에야 비로소 참다운 조국과 값높은 행복의 진가를 알게 된듯싶었다.

자기가 지금까지 욕망하고 추구하고 누리고 자부한 모든것, 그것은 행복이 아니였다.

자기는 황금의 권좌에 올라있었으나 거기에는 인간 상훈이가 아니라 동물화된 그 허물만이 있었을뿐이였다.

그러고보면 자기는 약육강식의 생존법칙과 황금만능의 생존공리가 치정관계를 맺고 낳은 동물사회의 사생아였다.

개개 황금목걸이를 걸고 비단버선을 신었다고 해서 행복하다고 할것인가!

그러한 저속한 《생활관》을 정신적 지주로 삼아온 자기 역시 인간이 아니였고 그러한 변태물들이 범람하는 사회 또한 인간사회가 아니였다.

《동물화》는 끊임없이 촉진되어 조락과 멸망, 부패한 퇴적물을 끊임없이 산생시키는것이였다.

거기에서 풍기는 악취 또한 사람의 정신을 좀먹고 병들게 하였다,

자기는 지금까지 이런것을 행복의 정수로 삼고 살아온것이다.

그래서 결국 어머니에게서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을 빼앗고 이 귀중한 조국을 배반하려고까지 하지 않았던가!

자기는 렘브란트의 그림에서 나오는 아들보다 더 불효막심하고 배은망덕한 놈이였다.

그 그림에서 나오는 불효자식은 눈먼 아버지의 뜻을 배반했었지만 자기는 한없이 귀중한 조국을 배반하려고 했던것이다.

그는 끊임없는 자책속에 몸부림쳤다.

《애야...》

뒤에서 누군가 다심히 찾았다.

돌아보니 뜻밖에도 어머니가 서있었다.

어머니의 주름진 눈가에도 눈물이 질벅하게 고여있었다.

《어머니!》

상훈은 분화구처럼 터져오르는 자책감을 누를길없어 쓰러지듯 어머니에게 안기였다.

《어머니! 절 용서...해주세요, 사실 이번길에 어머니 모셔가자구...혹... 이런 지상락원이 우리 조상의 땅에 있는줄 모르구...》

상훈은 목이 꺾 막혀버렸다.

《원 자식두... 가진 어디루 간단말이냐?》

어머니는 상훈의 등을 어루만지며 타이르듯 나직하니 말하는것이였다.

《첫눈에 너의 눈치를 알아챘다만 네 눈으루 직접 보면서 고향마을에 며칠 있으면 절루 개심할것 같아 내색을 안했다. 이제 또 며칠 지내보면 네입으루 스스로 이 땅을 떠나선 못살겠다는 말이 나올게다. 암 못살구말구!》

《차라리 그 첫날에 어머니가 이 못난자식을 종아리가 끊어져라고 때려죽였 그랬어요.》

《원, 나중엔 못하는 소리가 없구나. 난 너의 어머니가 아니냐. 담고생하다가 제품에 안긴 자식한테 매를 드는 어머니가 있다더냐?》

이윽고 상훈은 고향마을을 새삼스레 둘러보았다. 그럴수록 이 땅은 자기가 어릴 때 물고 놓지 않던 어머니의 젖가슴처럼 더욱 정답게만 안겨오는것이였다.

막 장 길 외 1편

석광희

하루에도 그 몇번
오가는 이 길
발밑에 밟히는것이
그저 흙이고 버럭이라면
내 걸음 레사로이 옮길수도 있으리

그렇더라 백번이면 백번
무심히 디디지 않았노라
무더운 여름날 땀을 훔치며
서리찬 새벽에 입김을 날리며
수없이 오고간 이 길

일과의 첫걸음을 여기서 시작하는
탄광지배인동무는
걸음마다 어떤 일욕심을 안고 갔는가
언제보나 큼직한 걸음을 걷는
탄광당비서동무는
무엇을 생각하며 이 길을 갔는지

물어보자 길이어
오랜 개발자인 갱장
어찌하여 자주 목청을 높였더냐
단발머리 도로소대 처녀들
눈보라 기승을 부리는 밤
이 길에 머리수건 정차게 날렸더냐

어느 자옥엔들 깃들지 않았으랴
고심과 탐구
환희와 흥분
락심과 주저대신
새 결심과 새 분발을

오로지 석탄
당이 바라는 그 석탄을
저마다의 가슴에 안고
오고간 간절한 생각이
층층 쌓이고 덧쌓이어 다져진 막장길

헐치 않았노라
눈오나 비오나 이 길을 걸으며
하많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안고 걸기가

아, 수도에서 멀리 떨어져있어도
당중앙위원회의 정문에 잇닿은
이 길우에 서있는 소조원
주인된 마음이 아니라면
백년을 산대도 나그네길로 걸을길
매일 매 시각
새로운 마음으로 걸어가며 정든길이어

내 잠시 생각에 잠겼는데

아름답게 피는 노을우에
고운 꿈을 엮을 때다
채굴장 가득히 그림자를 덮은
대형굴착기도 잠시 숨돌리는
탄전의 저녁

-저 박토산을
단번에 처리할 방법은 없는가?
석탄내 싱그러운 바람
하도 서늘해
온종일 해별에 단 석탄덩이 깔고앉아
내 눈을 감고 잠시 생각에 잠겼는데

문득 들려오는 처녀의 목소리

-어마나
소조원동무 잠에 취했구나
(저것은 분명 영금동무다
노래 없이는 하루도 못산다는...)

-쉬, 정말 자는줄 아느냐
무엇인가 또 생각중일거다
(어허 저 목소린
매사에 다심한 아바이다)

저마끔의 목소리 여겨 들으며
 나도 모르게 미소가 떠올랐는가
 또다시 소곤거리는 소리
 -저것봐 웃는다 애
 그 무슨 꿈이라도 꾸는가보지

-하기는 몰라 저 박토산을 처리할
 무슨 묘안이라도 떠올랐는지

서로의 가슴에서

한시도 떠나지 않는 박토산
 서로의 마음속 진정을 주며
 하나의 뜻으로 사는 나날
 어찌 그들이 내 마음을 모르랴

슬며시 눈을 뜨고 바라보니
 하늘과 땅이 온통 한빛으로 물드네
 탄전에 비껴내리는 저녁노을
 아, 래일도 날씨는 개이리
 래일도 생활은 아름다우리

멀지 않아요

리일섭

나는 물었네
 올해도 만풍년든
 나무리벌 찾아가는 취재길
 변모된 농촌풍경에 넋을 잃고
 리당위원회로 가는 길을 물었네

멀지 않다고
 저기 포전길을 에돌아
 조금만 더 가면 된다고
 벼단을 안고 땀뻗던 농장원들
 구면인듯 친절히 웃으며 말했네

나는 잤네
 그들이 가리키는 길로
 그들이 낮동안 가을한 벼를 싣고
 포전길 달리는 트랙트르행렬을 보며
 들끓는 풍년벌의 전경을 새겨보며

그런데 길을 헛갈린듯
 좀처럼 끝나지 않는 포전길
 깔깔대며 몰려가던 지원자처녀들도
 깎듯이 손들어 가리켰네
 잘못 오지 않았다고, 이제 멀지 않다고

어느덧 포전길도 끝나고
 하늘이 들리도록 솟아나는 로적가리
 아득한 벌 끝까지 메아리쳐가며
 가락맞춰 울리는 탈곡기소리
 당위원회로 가는 길은 가까와진듯

농촌지원에서 일등을 했다고
 오늘도 춤노래 선물 안고
 포전으로 간다는 붉은 넥타이들

저 산굽이 돌면 보인다고, 인젠 다 왔다고
 앞서가며 스스럼없이 하는 그 대답

허나 어이 알았으랴
 이제야 절반길을 왔음을
 그 어디를 바라보아도
 만풍년으로 이야기도 흥겹고
 기쁨도 웃음도 피어나는 이 길

마침내 찾아온 리당위원회
 만나야 할 사람들은 다 벌에 나갔고
 비여있는 사무실 열려있는 문앞에서
 나는 그때에야
 마음속에 깊이 되새겨보았네

길을 물어보면
 멀지 않다고, 멀지 않다고
 웃으며 다정하게 가르쳐주던
 그 농장원, 그 지원자, 그 소년단원
 그들의 레사로운 말에 깃든 참 뜻을

아, 어찌 멀수 있었으랴
 이렇게 늘쌍 방을 비여두고
 농민들과 함께 눈비도 맞고
 지원자들과 함께 땀도 흘리며
 풍년을 가꿔가는 당일군들

그렇다 멀지 않더라
 자애깊은 어머니당은
 농장원들 마음속에
 지원자들 로동속에
 소년단원들의 즐거운 노래속에
 언제나 함께 있었더라
 영원히 함께 있으리라

작가의 문체

오영환

(제 11 회)

작가의 관찰력과 문체

앞에서 한 중년시인의 관찰과 습작이 느낌과 주장으로 일관된 즉흥시로 씌여진것을 보았다.

이러한 관찰과 습작은 서정적 묘사방식을 터득하게 한다. 시인은 생활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쌓을 뿐아니라 그 생활이 안고있는 정서를 개척해나가야 한다.

생활이 안고있는 정서를 개척해나가자면 사람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여러가지 감정 즉 기쁨과 슬픔, 사랑과 증오, 존경과 멸시, 긍지와 허무, 희망과 낙심, 명랑과 우울 등 각이한 감정가운데서 자기 시대의 주도적 감정에 숙련되어야 한다.

시대와 현실이 부단히 변화발전하는것처럼 생활과 인간의 감정도 끊임없이 변화발전한다. 거기에서 주도적인 감정을 포착하고 그에 숙련하는것은 시인에게 있어서 특별한 의의를 가지게 된다.

시대와 현실의 주도적 감정을 포착하고 그에 숙련되어나가면 인간의 감정을 희노애락으로 구별하던 기성관념에서 벗어나게 된다.

기쁨과 노여움, 슬픔과 즐거움만으로는 우리 시대의 주도적 감정을 특징지을수 없다. 흥모와 레찬의 감정, 자각과 념원의 감정, 긍지와 자부심의 감정, 신념과 의지의 감정을 떠나서 우리 시대의 주도적 감정을 어떻게 특징지을수 있겠는가.

인간의 감정을 희노애락으로 구별해본것은 인민대중을 력사의 주체로, 인간을 자주적인 존재로 본 관점이 아니였다. 시대와 현실은 언제나 계급적 성격을 띠는것만큼 순수한 인간의 순수한 감정은 주도적 감정으로 될수 없다.

시인들이 시대와 현실의 주도적 감정을 포착하고 그에 숙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여기로부터 흘러나온다.

앞에서 본 관찰과 습작자료를 상기하면서 그 생활이 안고있는 감정을 구별해보자.

《백두산에 오르다》는 자각과 의지의 감정, 흥모와 레찬의 감정이다.

《순천석회질소비료공장에서》는 자랑과 긍지의 감정이다.

《빨럭불가담나라 만세》는 긍지와 자부심의 감정, 신념과 의지의 감정이다.

《문》은 자각의 감정이다.

《밤갈매기》는 사랑과 자랑의 감정이다.

《산골의 피아노소리》는 행복과 자부의 감정이 다.

《용광로가 바라보이는 바다가에서》는 자랑과 레찬의 감정이다.

《12월》은 행복과 자랑의 감정이다.

《평양산원》은 감사와 레찬의 감정이다.

이러한 폭넓은 관찰과 부단한 습작을 통해서만 시인은 자기 시대 인민들의 주도적인 감정을 포착하게 되고 따라서 그에 숙련되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관찰과 습작을 느낌과 주장으로 일관시키고 그것을 즉흥시화한 시인의 경험은 매우 교훈적이다.

이것이 가치있는 경험으로 되는것은 우선 느낌과 주장을 축적해나가는 과정에 예술가적 자질의 첫 징표로 되는 남다른 관찰력을 시인의 특성에 맞게 갖추어나간다는데 있다.

시는 주정의 문학이다. 그에 따라 시인은 사고방식과 표현방식에서 소설가와 구별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어야 시문체의 특성과 함께 자기 문체의 특성도 동시에 살려나갈수 있다.

다음 그것이 가치있는 경험으로 되는것은 남다른 느낌과 자기다운 주장을 끊임없이 축적해나가는 과정에 일생동안 왕성하게 창작할수 있는 무진장한 작품예비창고를 마련하게 된다는데 있다.

관찰자료에서 본바와 같이 거기에는 앞으로 그 매개 제목이 작품화될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있거나 거의 완성에 가까운것들이라는것을 알수 있다.

이러한 관찰과 습작을 무진장하게 한 시인은 의심할바 없이 일생동안 작품을 왕성하게 창작하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끊임없는 관찰과 부단한 습작은 일생동안 왕성한 창작을 하기 위한 투쟁이기도 하다.

여기서 젊은 시절에 진행한 풍부한 관찰과 습작자료가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젊은 시절의 예민한 감수성과 넘치는 정열을 보존하고있기때문이다.

젊은 시절의 예민한 감수성과 넘치는 정열을 무진장하게 보존축적한 작가는 생애의 말년까지 창작의 왕성기를 이어나갈수 있다.

문학의 길에 들어선 초시기부터 그 말년에 이르기까지 창작의 왕성기로 장식할수 있다면 그것은 얼마나 리상적인가.

창작의 왕성기는 인간과 그 생활에 대한 예민한 감수성, 넘치는 정열과 창작실천에서 쌓아진 풍부

한 예술적 경험, 높은 숙련이 일치할 때 비로소 온다. 그런데 젊은 시절에 부족했건은 예술적경험과 숙련이며 로년기에 부족했건은 예민한 감수성과 넘치는 정열이다.

이 모순을 풀어주는 비결이 바로 끊임없는 관찰과 부단한 습작에 있다. 인간과 그 생활에 대한 끊임없는 관찰과 부단한 습작은 젊은 시절에 일찌기 풍부한 예술적 경험과 숙련을 안겨주며 로년기에는 전과 다름없는 예민한 감수성과 넘치는 정열을 보존해준다.

그러나 작가마다 다 이 리치를 깨닫고 실천에 옮기는것은 아니다. 작가마다 창작의 왕성기가 각이하게 주어지는 리유가 여기에 있다.

다시말하면 작가마다 창작의 왕성기가 각이하게 주어지는것은 관찰과 습작자료의 질과 량에 관계된다. 여기서 질은 예술적 효과를 말하며 량은 포괄범위를 의미한다.

예술적 효과가 있고 포괄범위가 넓은 관찰자료만이 참말로 가치있는것이다. 그 가치의 여하에 의하여 매개 작가의 창작적 왕성기가 긴가 짧은가 하는것이 결정된다. 즉 문학의 청년기에 한번 반짝이고 사라지는 작가가 있게 되는가 하면 문학의 중년기에 아니면 로년기에 두서너번 번쩍이고 묻혀버리는 작가가 있게 되며 그런가 하면 일생을 창작의 왕성기로 장식하는 작가가 있게 되는것이다.

편집자는 백두산을 답사하면서 친숙해진 중년 시인에게 어휘수첩도 보여줄것을 요구하였다. 이 시인이 어휘수첩을 어떻게 리용하고있는가 하는것이 관심사로 되지 않을수 없었다. 《관찰자료집》을 창조적으로 리용하고있는것으로 미루어보아 어휘수첩도 그렇게 하고있으리라는 기대를 가지게 되었다.

자기에게 그 어떤 기대를 걸고있는 사람앞에서 누구나 마음이 후해지는 법이다.

원래 활달한 시인은 주저하는 기색도 없이 량수책상에서 두개의 수첩을 꺼내주었다. 그 하나는 전쟁시기에 흔히 보던 낡은 수첩이였고 다른 하나는 두터운 새 수첩이었다.

시인은 분명 자기의 어휘수첩을 번지고있는 편집자의 반응정도를 알아내려고 주의깊게 바라보았을것이다. 흥심을 가지는가 못가지는가 하는데 따라 이 두개의 어휘수첩에 깃들어있는 자기의 노력을 리해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을 분간할수 있었기 때문이다.

어휘수첩을 번지고있는 편집자의 표정과 자세는 어떠하였던가, 가볍게 흥심을 내비치는 표정은 아니였다. 그렇다고 아무런 반응도 없는 부동자세는 더욱 아니였다. 그저 알릴듯말듯 고개를 끄덕이며 어휘수첩의 세계에 끌려들어가고있었다.

이 중년시인의 《어휘수첩》 역시 가치있는 경험을 안고있었다.

이 시인에게 있어서 《관찰자료집》이 생활에로의 끊임없는 려행이라면 《어휘수첩》은 독서에로의 끝없는 려행이었다.

《어휘수첩》을 보는 과정에 첫눈에 띈것은 시행으로 씌여진것이였다. 시행속에서 새 어휘를 익히고 시행속에서 표현수법을 파악하며 시행속에서 생활철리와 자연리치를 터득해나갔다는것을 알수 있었다.

그것은 동시에 시행의 밀도와 다양한 구조를 조성해보는 훈련이기도 하였다. 한것은 그것들이 시들에서 뽑은것이 아니라 소설들에서 뽑은 단어와 단문을 시행화한것이기때문이다. 이것은 매개 시행들에 시인자신의 작업이 가해졌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실지 《어휘수첩》의 몇장을 들어보자. 팔호안의 설명은 편집자가 단것이다.

- 시간은 광선의 속도로 달아나누나
(자연리치를 수식법으로 표현한것)
- 한마디의 말이라도 심장에서 퍼올리라
(생활철리를 숨은비유법으로 표현한것)
- 해는 저도 진리의 화불은 꺼지지 않는다
(대조법으로 표현한것)
- 피로 쓴 글은 소경도 읽는 법
(생활철리를 숨은비유법으로 표현한것)
- 누구나 가재미눈으로 보는 사람
(숨은비유법으로 표현한것)
- 함께 울어주어야 그 무슨 소용
(생활철리를 표현한것)
- 투쟁속에서 생겨나는 새로운 인품
(생활철리를 표현한것)
- 물떨기치는 소란한 바다
(새 단어를 익힌것)
- 산같은 배포가 밍상이여서
(직접비유법으로 표현한것)
- 등에 한짐씩 골박아지고
(새 단어를 익힌것)
- 도끼눈질이나 안하고 갔어도
(숨은비유법으로 표현한것)
- 인간문제풀이에 만능의 방정식은 없다.
(생활철리를 숨은비유법으로 표현한것)
- 고삐도 채고 채찍도 휘둘러라
(숨은비유법으로 표현한것)
- 첫 고통은 첫사랑처럼 반복되지 않는 법
(생활철리를 직접비유법으로 표현한것)
- 어떤 타격을 받아도 그날로 일어서라
(생활철리를 표현한것)
- 귀기울이라 심장이 일깨워주는 말에
(자리바꿈법으로 표현한것)
- 자기 본위는 자살이더라
(생활철리를 표현한것)
- 더러운 몸에 향수내는 좋다

- (야유법으로 표현한것)
- 매력, 도취, 랑만으로 충만된 시절
(떨거법으로 표현한것)
- 사랑은 줄수록 자라는 물건
(생활철리를 표현한것)
- 어른이 인형을 갖고 놀고있는셈
(숨은비유법으로 표현한것)
- 무게없는 꽃가루같이 몸은 가볍고
(직접비유법으로 표현한것)
- 골수에 배긴 감정은 검질긴것
(생활철리를 표현한것)
- 공상의 뒤통을 불살라버렸네
(숨은비유법으로 표현한것)
- 알아라, 너에게 끝없는 임무가 있음을!
(자리바꿈법으로 표현한것)

보는바와 같이 이상의 매개 시행들은 단순한 어휘의 수집만이 아니다.

소설작품에서 만난 다양하고 풍부한 생활철리와 자연리치를 터득하고 그 표현수법들을 파악하면서 시문체로 바꾸어나갔다. 이것은 자기가 처음으로 알게 된것, 자기가 새롭게 깨닫게 된것을 자기의 것으로 차곡차곡 쌓아나간것으로 된다.

이렇게 하는 시인의 목적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자신의 내면세계를 풍부히 하고 높은 숙련을 쌓아는데 있다.

내면세계가 풍부하고 높은 숙련을 쌓은 시인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의 하나는 즉흥적인 작업이다. 즉흥적인 작업에서 성공률이 많은 시인보다 더 행복한 시인은 없다. 창작적 기분에 쉽게 휘말려들고 가치있는 충동을 표현하는데서 막히는데 없는 시인이라면 무엇을 더 바라겠는가.

비싼 대가를 치르더라도 시인은 반드시 이 견지에 올라서야 한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시에서 사상은 정서를 통해서 흘러나와야 한다. 시형상의 힘은 사람들을 정서적으로 공감시키는데 있는것이다.》 (《영화예술론》, 322 페이지)

이 명제는 시형상의 힘이 어디에 있는가를 밝혀주고있다.

정서를 통해서 흘러나온 사상은 서정이다. 시형상의 힘이 바로 서정에 있다.

서정은 외부적인 생활의 전달에서 생겨나는것이 아니라 거기서 받은 내부적인 느낌과 주장에서 생겨나는것이다.

여기로부터 시인이 생활을 얼마나 깊이 느끼고 얼마나 높은 사상을 주장하는가 하는 문제가 중요하게 나선다.

이미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느낌은 남다르고 주장은 자기다와야 한다. 뿐만아니라 느낌은 깊고 주장은 높아야 한다.

깊은 느낌속에 독특한 정서가 있고 높은 주장속에 가치있는 사상이 있다. 이것을 하나로 융합시킨것이 서정이다.

느낌이 깊고 주장이 높으면 서정은 풍만해지고 반대로 느낌이 얇고 주장이 낮으면 서정은 빈약해진다.

그러면 시작품에서 서정은 어떻게 표현되는가? 서정적 주인공의 열정(빠포스)으로 표현된다.

구체적인 생활계기에서 일어난 충동속의 사상적지향, 이것이 시작품속에 굽어치는 열정이다. 느낌과 주장으로 일관되면 될수록, 느낌이 남다르고 주장이 자기다우면 자기다울수록, 느낌이 깊고 주장이 높으면 높을수록 열정은 더욱 강렬해진다.

열정이 강렬한가 강렬하지 못한가 하는데 따라 서정적 주인공의 성격이 결정된다. 성격은 구체적인 사상감정이 발현되는 기본분야이다.

이렇게 놓고보면 서정, 열정, 성격은 한피줄을 물고나온 3 형제와 같다. 여기서 한피줄이란 느낌과 주장이다. 느낌이 얼마나 새로운것인가, 주장이 얼마나 가치있는것인가에 의하여 작품의 우열이 갈라져나오게 된다.

뿐만아니라 느낌이 얼마나 새로운가, 주장이 얼마나 가치있는가에 의하여 문체의 특성도 갈라져나오게 된다.

이러한 리해를 가지고 다시 시인 최승철의 다른 작품을 분석해보자.

서울의 어스름한 골목길에서
미제 헌병놈이 총을 쏘았다
마지막 뼈라를 붙이던 소년
치명상 입고 담장밑에 쓰러졌다

피는 쏟아져 땅을 적시는데
살인귀를 물리친 거리의 남너로소
팔을 벌리고 허둥지둥 모여든다
불빛 서린 눈동자로 소년을 부르며...

애타는 마음들이 일으켰는가
소년은 머리를 치여들었다!
장미가 타는듯 피흘리는 가슴에
불길처럼 뼈라를 펼쳐들었다

아직은 나비도 든 일 없는 꽃봉오리
비 개인 날엔 무지개 타고 올라
눈부신 해를 안겠다던 소년
꿈에서만 학교에 다니던 소년이
숨지면서도 붉은 마음으로
높이 추켜든 《조국통일호소문》 !

허나 흐르는 피우에
시간의 초침은 밋을줄 몰라
소년의 머리는 무겁게 수그러졌다
거리는 분노에 얼어붙는데
누군지 터지는 울음 삼키며
어머니처럼 그를 안아들었다

순간, 구름갈피에 해살이 타는듯
소년의 얼굴엔 밝은 빛이 어린다
흐려지던 눈에, 말라가던 입술에
한떨기 꽃같은 미소가 피어났다!

경찰들은 두눈이 휘둥그레
총구를 휘두르며 밀쳐나온다
허나 겹겹한 사람들의 담벽
미소를 지켜 막아섰거니,
어찌 소년을 원쑤에게 내어줬으랴

꺼질줄 모르는 불꽃같은 미소여
평양행 차창에 기대앉아
해빛 찬란한 황금벌판의
아름다운 노래를 듣는것이나
오매에도 그리던 수령님 품에 안겨
사랑의 바다에 돛을 올린것이나 !

아, 싸움에서 행복을 찾는 소년,
삶의 길을 더듬어 찾는 이 미소엔
허리 끊긴 조국의 온 겨레를 부르는
울부짖는 폭풍같은 웨침이 있거니,

형제여,
이름없는 고아가 미소짓고 두고간
살아못본 그 삶의 긴 공백에
우리의 끝없는 사랑을 채워주자!
영원히 하나인 조선을 안겨주자!

이것은 서정시 《미소》의 전문이다.

여기서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느낌이고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은 주장이다.

이 작품에서 느낌은 숨진 고아의 얼굴에 떠오른 미소를 기어이 통일의 날을 보려는 의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것은 의심할바 없이 새로운 감정이다.

이 작품에서 주장은 그 미소에서 폭풍같은 웨침을 들으며 소년이 살아못본 삶의 긴 공백을 영원히 하나인 조선으로 채워주자고 호소한것이다. 이것 역시 의심할바 없이 가치있는 사상이다.

보는바와 같이 새로운 감정은 가치있는 사상을 낳았다. 새로운 감정속에 살아있는 가치있는 사상, 이것이 서정이고 열정이며 성격이다.

이 작품에서 일관하게 표현된 서정과 열정, 성격은 통일을 갈망하는 우리 시대의 념원과 의지의 감정 그리고 이 주도적인 감정속에 살아있는 우리 인민의 고상한 사상을 안고있다. 그 감성이 얼마나 남다른 깊이를 가지고있고 그 사상이 얼마나 자기다운 높이를 가지고있는가. 사람들을 정서적으로 공감시키는 시형상의 힘이 바로 이런것이다.

서정시 《미소》가 사람들을 공감시키는것은 결국 풍만한 서정과 강렬한 열정, 전형적인 성격이다.

모든 형태의 문학작품창작이 그러한것처럼 시 작품창작에서도 궁극적인 목표는 서정적 주인공의 전형적 성격을 창조하는데 있다.

일반화와 개성화의 통일속에서 이루어진 서정적 주인공의 성격이 뚜렷한 시작품에는 문체의 일반성과 개성도 나타나게 된다.

여기서 문체의 일반성이란 시문체의 특성을 말하며 문체의 개성이란 시문체안에서 살아난 개인의 특성을 의미한다.

이것은 서정적 주인공의 행동방식과 사고방식, 표현방식이 시인의 문체와 일치한다는것을 말하여 준다. 그러므로 시인은 말재간을 배우기전에 성격을 배양해야 한다.

그러자면 인간과 그 생활에 대한 폭넓고 깊이있는 관찰과 끊임없는 습작을 통하여 남다른 느낌과 자기다운 주장을 키워나가야 한다.

이 길밖에 다른 길은 없다.

시에는 느낌과 주장밖에 다른것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 그것처럼 성격이 없는 사람은 시인대렬에 들어설 자리가 없다.

(다음호에 계속)

소중한 마음

김명익

생활에는 무릇 하고싶은 말이 너무 많을 때에 오히려 말문이 막히는 경우가 더러 있다. 얼마전에도 나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되었다. 그것은 애국심에 대한 내용으로 짧은 글을 써보내달라는 편집부의 청탁을 받았을 때였다. 애국심! 정녕 이 한마디 말 속에는 얼마나 깊고 숭고한 뜻이 담겨져있는 것인가.

출장지에서 있었던 일이다.

그때 평양에 머무르고있던 나는 지남산 기슭에서 함께 자란 고향친구의 집을 찍 여러해만에 방문하게 되었다. 그들 부부는 다같이 나와 한고장 태생인데 만나본지도 물론 오랫동안이와 문수거리로 새 집을 받고 이사를 했더니 집구경도 하고 그간의 회포도 나누고싶었다.

승강기를 타고 눈깜박할 사이에 12층 4호실앞에 이르니 방문은 방ışı이 열리었는데 전실이며 부엌이며 모두 불이 꺼져있었다. 퇴근시간도 이숙한데 혹시 전기장치가 고장난것이나 아닐가?

다행히도 전실건너 어느 한 방에서 가늘게 불빛이 새어나왔다. 사르륵 사르륵, 경쾌한 재봉기소리... 초인종이 울리자 방문이 열른 열리며 몸이 좋은 중년의 부인이 나왔다.

친구의 안해였다.

그는 남편에게서 나의 방문예고를 받았노라면서 다과를 내놓고 앞치마를 두르며 부엌으로 나갔다. 그러자 한순간에 부엌에 전등불이 환히 켜졌다. 그러고보니 전등은 어느 하나도 고장이 없었다.

방안에는 텔레비존이며 랩동기... 없는것이 없었다. 그런데 방안 한쪽벽에 놓여있는 재봉기가 은근히 나의 눈길을 끌었다. 한것은 일감들이라는것이 모두 쪼박천들이였는데 어찌나 작은것들인지 그대로는 무을수 없어 커다란 종이우에 가위밥들을 풀로 붙여가며 두겹세겹 누비였다. 그렇게 누벼서 만든것이 깔개방석처럼 수북이 무져있었다.

(무엇을 만들가?)

잠시후 나는 세수를 하려고 방문을 나섰다. 세면장의 전등불은 꺼져있었다. 나는 스위치를 찾아 불을 켰다.

더운물에 세수를 하고나니 기분이 상쾌하였다.

텔레비존을 보며 앉아있는데 현관문이 열리며 법석 떠들어대는 소리가 들렸다. 청높은 처녀의 웃음소리.

《이기가 와요. ... 그러구 저 앤 우리 순희랍니다.》

순희는 그들의 외동딸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친구의 딸이 놀란 소리를 지르는것이였다.

《어마나 이게 웬 일이에요. 전등불? 저 수도물 소리? ...》

나는 친구의 딸이 왜 그리도 놀라와하는지 인차 알지를 못하면서 그들을 마중하러 전실로 나갔다. 그런데 뒤따라 나온 친구의 안해가 미안한 표정을 짓는것이였다.

《오 ...그만 내가 깜박 잊었었구나. ...》

순희는 여전히 악의없이 입을 비죽거리며 세면장에 들어가 수도물을 막고 전등을 켰다.

《음, 어머니 그러면서두 내가 어찌다 실수를 하면...》

《호. 그러게 내가 잘못했다고 비판을 하지 않나.》

내가 지남산의 송아지동무와 얼싸안고 인사를 나눈것은 그다음이였다. 물론 친구의 딸과도 인사를 했다.

《여보게, 약속해놓고 이렇게 늦어지다니...》

나는 마치 전등불과 수도물에 대한 나의 실책이 늦어진 친구의 탓인듯 게면쩍게 말했다.

《정말 미안하네.》

친구는 그저 머리를 긁적거렸다.

《아저씨, 우린 매일 퇴근후에 건설장을 들려오 군한답니다.》

딸의 말에 친구는 더 속일것이 없다는듯 두팔을 벌리며 웃었다.

《글쎄 저걸 보라구. 저렇게 매일 장갑을 만들어 놓으니 우린 그걸 광복거리 건설장에 전해주고는 이젠 일까지 한판 하고온다네.》

그의 안해는 올해만해도 수천켈레의 장갑을 쪼박천으로 만들었으며 자기와 딸은 하루도 빠짐없이 광복거리 건설장에 로력을 바쳐온다는것이였다.

《아, 그랬구만!》

뜨거운 그 무엇이 나의 가슴을 쿵하고 울리였다. 한와트의 전기, 한방울의 물, 한쪼박의 천이라도 아끼며 여가시간에는 충성의 애국로동을 바쳐가는 이들의 깨끗한 마음들! 그것이야말로 오늘의 이 행복, 이 영광을 안겨준 당과 조국에 대한 고마움을 잊지 않고 살며 일하는 사람들의 주어진 마음이 아니겠는가.

나는 오래간만에 만난 친구의 집에서 소중한 마음을 새롭게 받아안으며 그때문에 더더욱 화목하고 행복한 그들의 가정에 대한 부러움을 금할수 없었다.

소원

김래경

훈풍이 불어오고 신록이 우거져 갖가지 꽃들이 피어날 때면 고향산천과 혈육들이 그리워 잠못 이룰 때가 있다.

42년전 내가 고향을 떠날 때도 꽃피는 계절이었고 사랑하는 마을처녀가 동백꽃을 꺾어 안겨주면서 동구밖에서 부른 노래도 꽃노래였다.

꽃이 피고 못새들이 날아에는 초여름은 사람들에게 끝없는 삶의 희열을 안겨주고 깊은 서정에 잠기게 하지만 나에겐 고향의 그 향기, 진한 노래선물이 떠오르곤한다. 꽃피는 계절만이 아니다. 분초를 아껴가면서 교수사업에 한몫 잠글 때나 웅장화려하게 일떠서는 청춘거리와 광복거리를 거닐 때조차도 깊은 감동과 함께 고향 제주도에 두고 온 혈육들과 이곳을 같이 와볼수 없고 살수 없는 안타까움과 서운한 마음이 가슴을 후비며 못건디게 한다.

나의 간절한 소망은 한가족이 모여앉아 단 하루라도 단란하게 살아봤으면 하는것이다. 이것은 나뿐만아니라 우리모두의 절박한 념원이며 인간의 초보적인 요구이다.

60 평생 가족들이 한데 모여 한시도 함께 살아보지 못한 나에게 있어서 여한이 있다면 그것은 조국의 분열을 하루빨리 끝장내고 고향을 밝아보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통일보다 더 귀중한것은 없으며 조국을 통일하는것보다 더 절박한 과업은 없습니다.》

일제식민지통치하에 20년간 노예살이를 강요당했고 해방후 20여년간 자본주의사회에서 전전하면서 가지가지의 설움을 뼈저리게 체험한후 조국의 품에 안겨 참된 인간의 삶을 향유하는 나에게 있어서 그늘진것이 있다면 조국통일이 이룩되지 못하여 겪게 된 잊을수도 지울수도 없는 피눈물나는 추억들이다.

1960년초였다. 고향 제주도에서 조카딸이 나를 찾아 일본으로 건너오다가 일본경찰에 잡혔다는 불길한 소식을 듣고 어느 항구도시로 달려갔다. 그런데 내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벌써 조카딸이 배에 실려 떠나려는 찰나였다. 배멀미와 굶주림에 시달릴대로 시달린 16살난 조카딸은 나의 품에 와락 안겨 흐느껴울었다.

《삼촌! 왜 우리들은 함께 살지 못하고 헤어져야 하나요?》

나와 조카딸과의 상봉은 2시간도 되나마나하였다.

배고동소리와 함께 남녘땅으로 끌려가는 조카딸의 가공한 모습을 바라보는 나의 눈에서는 서리발같은 분노가 번개쳤다.

《우리를 갈라놓게 한것은 미제때문이다.》 이 말을 열번, 백번 웨치며 저녁노을이 비긴 부두가를 오래동안 거닐면서도 인차 발길을 돌릴수가 없었다.

나는 이때 분열된 조국의 비극이 매 사람에게 얼마나 큰 고통과 불행을 가져다주는가를 온몸으로 체험하였다.

이것뿐만아니다. 헤어져 40여년, 혈육간에 만나보기는 고사하고 생사여부도 알수 없으니 이 또한 얼마나 비통한 일이나?

몇년전 일이다.

조국을 방문한 친척을 만나러 창광산서관으로 달리는 내 발걸음은 나는듯 기쁘기만 하였다. 그런데 친척되는분은 그간 서리고 영건 회포도 나누기 전에 호주머니에서 편지와 사진을 꺼냈다. 그것은 10여년전에 고향에 계시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다는 누이의 편지와 어머니의 무덤을 찍은 사진이었다. 사진을 진 나의 손은 떨리고 심장은 터질것만 같았다.

이때 어떻게 창광산서관을 벗어났는지를 나는 모른다. 함박눈이 흠날리는 평양거리를 정처없이 걸으면서 소리없이 울었다.

...

대동강유보도 눈무지에 풀썩 앉아
비석을 세운 어머니의 묘를 바라보느라면
눈물만이 하염없이 솟음쳐흘러
사진우에 방울방울 고였어라

눈물은 달빛에 어려 얼음이 되고
보풀인 편지는 바람에 날리는데
사진우에 달빛만이 눈부시게 쏟아져내려라

달아! 달아! 밝은 달아 빛을 감추라
바람아! 광풍아!
불어불어 분열의 장벽을 무너뜨리라
사나운 눈보라여!
《청와대》를 들부시고 양키놈을 얼쿠라

자식을 애타게 그리는
이 나라 어머니를 대신하여
어머니를 애타게 그리는
이 나라 아들딸을 대신하여

이상의 시는 어머니의 무덤을 찍은 사진과 편지를 받아안고 치솟는 비분을 억제하지 못하여 쓴 시 《눈오는 겨울밤에》의 한부분이다.

사람들은 행복해지고 나이를 먹을수록 고향이 그리고 부모형제들이 더욱 그리워지는것이다. 그러기에 조국통일을 갈망하면서 그날을 위해서 사회주의건설에 남보다 더 많은 구슬땀을 흘리기도 한다. 그러기에 해빛밝은 고층 살림집 창문을 열 때면 이런 집에서 부모들을 모시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을가 하는 생각이 또다시 머리를 쳐들며 마음을 괴롭게 한다.

날이 가고 세월이 흐를수록 고향에 대한 생각은 기억속에서 점점 사라지고 지워지는것이 아니라 더욱 그리고 가까운곳으로 안거움은 생지옥으로 변한 남녘의 고향땅에 부모형제들이 의지가없이 무권리속에 살아가고있기때문이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은 단순히 향수의 감정에 물젖은 값죽은 감상주의의 발로가 아니다.

나에게는 또 하나 해야 할 이야기가 있다.

고향의 이웃집에 살면서 함께 잔뼈가 굵고 일본에 건너가 같이 살다가 귀국한 조성환이라는 분이 있었다. 그는 자본주의사회에서 얻은 장기질환을 조국의 품에 안겨 치료받은 후 생의 말년을 보람있게 보내었다. 그런데 림종할 때 그의 손에는 편지 한장이 쥐여있었다. 편지 결봉의 주소란에는 가닿을수 없는 남녘의 고향이름이 씌여져있었고 떨리는 손으로 안간힘을 다하여 쓴 글자는 글자획이 비뚤어져 알아보기 힘들었지만 《어머니 이 아들을 만날 때까지 역세계 살아야 합니다.》라는 글자만은 똑똑히 알수 있었다.

그는 심장이 멎는 순간까지 훌훌단신으로 미제와 괴뢰들의 학정아래 《빨갱이로파》로 몰리우면서 외롭게 산, 아니 생사조차 모르는 어머니를 잊을수가 없었던것이다.

내가 고향을 떠난지도 어언간 반세기가 가까와온다.

어머니의 60 돌 생일날에 드리자고 비단천으로 지은 치마저고리가 30 여년이 지난 오늘에도 고향에 가닿지 못하고 옷장속에 그대로 보관되어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자식이 지은 옷 한벌 입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말았다.

조국의 분단은 부모들의 간절한 소원도 자식들의 소박한 효성도 아랑곳없이 짓뭇개며 사람들에게 가슴을 허비는 상처만을 남겨놓았다.

그러나 슬픔은 투쟁으로 이겨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자주적 조국통일 방침을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나의 모든 것을 바치는것-이것이 민족분단의 비극을 끝장내는 길이다.

오늘 남조선의 청년학생들이 조국통일을 한사코 반대하는 미제와 로태우역도를 요정내기 위하여 투쟁하며 통일을 목매여 부르짖는것은 너무나 옹당한 일이다.

미제와 그 주구들은 40 여년동안 우리 인민들의 가슴에 덧쌓인 증오와 활화산같이 타오르는 하나의 념원, 조국통일의 열망을 억누르지 못할것이며 피맺힌 저주와 규탄 속에, 보복의 불길속에 영영 매장되고말것이다.

속담풀이

△ 정직한 사람의 자식은 굵어죽지 않는다.

△ 손은 갈수록 좋고 비는 올수록 좋다.

사람이 정직하면 남의 사랑을 받고 동정을 얻게 됨을 교훈적으로 이르는 말.

물건은 부지런히 손질할수록 좋아지고 비는 올수록 농사에 좋다는 뜻으로 이르던 말.

△ 아는체하지 말고 모르는체하지 말라

△ 정신을 가다듬으면 바위라도 뚫는다.

사람은 언제나 겸손하고 솔직해야 함을 이르는 말.

하ذا고 결심만 하면 못해낼 일이 없음을 비겨이르는 말.

△ 열번 잘하고 한번 실수를 말라

△ 입에 떨어지는 사과를 기다리다.

아무리 일을 잘했더라도 한번 실수를 하면 보람이 없다는 뜻으로 언제나 실수가 없도록 일해나가야 한다는것을 이르는 말.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좋은 성과만 바라는 그릇된 태도를 이르는 말.

형상 수단과 수법의 활용에 대한 작가의 개성적 특성문제

백영철

형상 수단과 수법을 자기류로 파악하고 자기의 작가적 체질에 맞게 능란하고 자유롭게 구사하는 것은 자기류의 투를 가지고 독자적인 예술의 세계를 확신성있게 개척해나가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독창적인 형상을 창조하려면 형상 수단과 수법, 기교도 비반복적으로 살려써야 한다. 형상 수단과 수법, 기교를 독특하게 리용할줄 알아야 작품의 사상을 독창적으로 밝혀낼수 있다.》

형상 수단과 수법의 능란하고 자유로운 구사는 작품의 사상을 독창적으로 밝혀내며 소설문학의 다채로운 개화발전을 위한 근본요구의 하나로 된다.

새롭고 특색있는 예술적 형상창조과정은 형상 수단과 수법의 개성적인 탐구리용과 밀접히 련관되어있다. 다양한 형상수법을 자기류로 파악하고 그것을 창발적으로 활용할수록 그 수법에 의하여 창조되는 예술적 형상은 그만큼 참신하고 특색있는 것으로 된다.

일반적으로 형상수법이라고 할 때 그것은 예술 창작에서 활용되는 구체적인 형상구성과 묘사의 방법으로서 여기에는 작품의 구성상 수법과 인간과 그 생활을 구체적이며 생동한 화폭으로 그려내기 위한 묘사수법들이 모두 포괄된다.

형상수법을 어떻게 쓰는가 하는 것은 작품의 형태에 따라 일련의 특성을 가지게 된다.

영화와 연극 예술인 경우에는 극을 조직하고 전개하기 위한 미학적 요구에 따라 구성상 수법이 위주로 다양하게 쓰인다면 시문학인 경우에는 작가의 내부적 체험을 서정적으로 격조높이 노래하기 위한 시어의 선택과 시련의 조직, 운률조성 등을 위한 여러가지 형상수법들이 쓰인다.

그러나 소설에서는 작가의 예술적 기교, 창작적 솜씨가 구성수법과 함께 묘사수법을 통하여 표현된다. 구성수법과 함께 묘사수법을 활용하는 여기에 소설의 형태상 특성이 있다.

소설가들이 묘사문학으로서의 소설의 형태상 특성에 맞게 창작에서 묘사수법을 다양하고 생신하게 하는데 창작적 관심을 돌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소설창작에서 묘사수법을 다양하고 생신하게 하는 것은 소설이 묘사대상으로 하는 인간생활이 다양하고 풍부하며 현실에 있는 모든 사물과 현상 또한 구체적인 존재이라는 사정과 관련된다.

인간생활은 끊임없이 창조되고 발전하며 같은 시간의 궤도를 따라 흘러가지만 어제의 생활과 오늘의 생활이 다르고 동일한 시각에 벌어지는 생활도 각양각색이다. 또한 사람마다 체험하는 생활내용 역시 그 질과 폭, 깊이가 서로 다르다.

현실적으로 인간생활은 매우 복잡하게 엉켜있다.

인간생활이 이처럼 다양하고 복잡할뿐 아니라 현실에 있는 모든 사물과 현상 또한 자기의 고유한 본성을 가지고있는 구체적인 존재들이다.

세상에는 똑같은 사물이나 현상이 있을수 없다. 그것들은 제각기 자기의 고유한 존재방식과 내적인 운동법칙을 가지고있으며 그것으로 하여 다른 사물이나 현상과 구별되는 질적 규정성을 가진다.

현실생활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며 현실에 있는 모든 사물과 현상들이 구체적인 존재이라는 현실적 조건은 소설가들이 인간생활을 독창적으로 탐구파악할뿐 아니라 탐구된것을 자기류로 특색있게 형상할것을 요구한다.

소설가에게는 개성적인 안목과 판단에 기초하여 현실생활을 파악하며 파악된 생활을 독특한 솜씨, 예술적 기교로 구현해내는 기량이 있어야 한다.

소설가가 작품에 내세운 형상과제를 독특하게 풀어내는 솜씨를 가지는 것은 창작적 개성을 지닌 작가로 되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창작적 개성이 뚜렷한 작가로 된다는것, 이것은 자기의 독특한 솜씨와 고유한 투를 가진 작가로 된다는것을 말한다. 작가가 생활을 독창적으로 보고 받아들이는데만 그치고 그것을 재현하는데서 자기의 독특한 솜씨, 자기식의 특성을 살리지 못한다면 개성이 뚜렷한 작가라고 말할수 없다.

작가의 창작적 개성은 현실에 대한 독창적인 탐구와 형상의 두 측면에서 다 같이 나타날 때 참다운것으로 될수 있다. 작가는 형상수법을 자유자재로 활용하면서 형상을 특색있게 보여주는 독특한 솜씨가 있어야 다른 작가와 자기를 구별지을수 있다. 형상을 특색있게 보여주는 고유한 솜씨와 투는 형상수법을 자기의것으로 만들고 그것을 자기의 의도와 체질에 맞게 활용하는 과정에 형성된다.

생활을 독창적으로 탐구파악하며 그것을 특색있는 형상으로 구현하는 솜씨와 고유한 투를 가진 작가만이 창작과정에 자기의 개성을 뚜렷이 보여줄수 있다.

형상 수단과 수법을 다양하고 생신하게 하기 위하여는 전형화의 원칙을 견지하는 조건에서 그 방법은 자유롭게 하는것이 중요하다.

사회주의적 사실주의문학에서 생활의 진실한 반영은 전형화를 통하여 실현되며 전형화를 깊이있게 하여야 생활의 본질과 그 발전의 합법칙성을 진실하게 반영하고 작품의 높은 사상예술성을 보장할 수 있다. 형상수법을 다양하고 생신하게 하는 목적은 어디까지나 인간생활을 전형화하고 전형적성격을 창조함으로써 사실주의적 묘사의 생동성과 진실성을 보장하자는데 있다.

소설창작에서 형상수법을 다양하고 생신하게 하는 문제는 또한 작가들이 그 수법에 정통하고 그것을 독특하게 리용하는 솜씨와 분리시켜 생각할수 없다.

작가가 제아무리 형상수법을 다양하고 생신하게 하려고 해도 그 방법에 정통하지 못하면 그것을 옮겨 활용할수 없다.

작가는 형상수법에 정통하고있을 때에만 그것을 자기의 의도에 맞게 자유분방하게 리용할수 있으며 그 과정에 자기식의 투, 개성적인 필법을 확립할수 있다. 형상수법에 작용하는 작가의 개성이란 본질에 있어서 이 공동의 무기를 리용하는데서 발휘되는 창발성이다. 그러므로 이 작가와 저 작가에게 전혀 다른 그 어떤 형상수법이 있는것처럼 그릇되게 해석하거나 소설창작에서 창작적 개성을 구현할데 대한 요구를 이런 견지에서 실현하려는것은 부질없는 일로 된다.

예술적 형상창조를 위한 형상수법은 헤아릴수 없이 다양하다.

작가들은 헤아릴수 없이 다양한 형상수법에 정통하며 그것을 비반복적으로 살려쓰는 능수가 되어야 한다.

천세봉은 생활묘사와 성격창조에서 여러가지 형상 수단과 수법을 적절히 선택하고 능숙하게 활용함으로써 묘사문학으로서의 소설의 형태상 특성을 잘 살린 작가라고 말할수 있다.

대조적인 인물들의 성격대비를 통하여 그 특징을 뚜렷이 보여준것은 그 대표적인 실례이다.

장편소설 《대하는 흐른다》(제 1 부)에서 강형진과 최일벽, 배덕현과 김장로, 배명준과 장인표의 대조적인 성격묘사를 상기해보아도 충분하다.

소설에서는 궁부정인물들사이에서뿐아니라 부정인물들사이에도 이러한 수법이 능숙하게 적용되고있는데 배덕수의 꼬나불들인 배치순과 배덕술의 대조적인 성격묘사를 그 예로 들수 있다.

이 소설에서 작가는 생김 모습이 신통히도 메뚜기같은 배치순과 두꺼비같은 배덕술의 초상을 그리면서 배덕술이 두꺼비같이 무겁다면 배치순은 메뚜기같이 잘 뛰고 약삭바르다고 강조하고있다.

또한 작가는 인물들의 초상을 그리면서 그것을 자연현상에 비유하거나 별명을 붙이고있는데 그것

은 성격의 특징을 드러내는데서 적극적인 기능을 수행하고있다.

가령 《백호》(원범)가 흰수염을 앞가슴까지 드리우고 농민들의 피땀을 무제한하게 짜내어 호의호식하는 배덕수의 략탈성을 상징한다면 《꽁지달짝 할미새》는 나비수염이 신경질적으로 쳐들린 김장로의 경망하고 요사스러운 사람됨을 생동하게 드러내며 《맑스수염》, 《최광주》, 《최벼락》은 행세식 맑스주의자, 반당종파분자인 최일벽의 더러운 과거와 좌경기회주의적 망동을 형상적으로 표현하고있다.

이처럼 별명은 주로 부정인물들에게 붙어있는데 그것은 풍자와 야유의 색깔을 띠고 그들의 부정적인 성격적 특징을 예리하게 드러내는데 효과적으로 이바지하고있다.

이러한 부정인물들과는 달리 긍정인물들의 경우에는 강형진, 마영기, 한덕남, 배덕현 등에서 보는것처럼 의젓한 몸차림과 진취적이며 당당한 행동이 웅심깊은 내면세계와 조화로운 결합속에 그려짐으로써 형상의 조형적인 생동성과 친근감을 안겨준다.

작품에서는 조선바지저고리를 집어던지고 보안서정복차림에 둥근 모자를 쓴 한덕남의 초상과 행동묘사를 보더라도 그렇다.

작품에서 한덕남의 둥근 모자와 정복은 각이한 생활적 계기들에서 생동하게 그려짐으로써 그의 급격한 성격발전을 개성적인 생동성을 가지고 보여주는데 이바지하고있다.

윤세중도 역시 인물의 성격을 묘사함에 있어서 자기의 특징을 살린 작가라고 말할수 있다.

윤세중은 성격묘사를 함에 있어서 많은 경우 등장인물들의 대화와 행동묘사를 통하여 그 시대 인간들의 주도적인 사상감정을 그려내는 수법에 의거하군하였다.

그의 소설작품들에는 무엇보다먼저 등장인물들의 주도적인 사상감정을 드러내는데 어울리는 뜻이 깊고 알기 쉬운 대화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있다.

장편소설 《시련속에서》의 김유상과 유갑석이 제철소복구정리작업을 진행할 때 시한탄을 해체하려 위험구역으로 들어서면서 남긴 대화는 그 뚜렷한 실례로 된다.

《<가만두게. 누가 치우든지 조선사람이 치울거네. 죽지 않으면 살아내겠지. 일을 중단시킬수는 없어.>

유상은 젊은이를 향하여 저벅저벅 걸어갔다.

<불발탄입니다. 녹이 좀 끼였습니다. 어린애 다루듯하면 문제 없습니다. 책임자동무, 넘려마시고 조용히 들어만 주십시오, 제거해본 경험 있습니다.>》

보는바와 같이 김유상과 유갑석의 대화속에는 그의 성격적 특질이 생동하게 반영되어있다. 김유상의 말이 오직 그에게만 고유한 고지식한 성격과

그의 적극적이며 혁명적인 특징을 뚜렷이 나타낸다면 유감적의 말속에는 그 어떤 위급한 정황에서도 한결음도 물러서지 않고 침착하게 일을 해제질 줄 아는 제대군인 청년노동자의 영웅적 기백이 깃들어 있다.

석유키도 다양한 예술적 수단과 수법을 자기류로 파악하고 그것들을 자기의 작가적 체질에 맞게 능란하고 자유롭게 구사하고있는 작가의 한사람이다.

작가가 묘사대상을 특징화하고 개성화하는데서 자기의 체질에 맞게 활용하고있는 수법은 예술적 강조와 과장이다.

예술적 강조와 과장은 형상을 부각시키는 힘있는 수단이며 예술적 협상자체의 요구이다. 예술적 형상은 본질에 있어서 예술적으로 강조된 생활이며 력점이 찍혀지고 진하게 채색된 성격이다.

작가 석유키의 경우 예술적 강조와 과장은 작품에 묘사되는 거의 모든 대상에 미치고있다.

특히 작가는 부정인물의 성격을 개성화하는데서 해학, 야유, 풍자, 조소 등의 다양한 수법을 능란하게 리용하는것이 특징적이다.

작가는 부정인물들을 형상하는데서 비꼬는데가 있다.

작가는 부정인물들을 여유있고 능란하게 비꼬면서 부정적인 성격들을 개성화하는데서 독특한 솜씨를 보임으로써 그 전형화의 높은 수준을 보장하고있다.

장편소설 《무성하는 해바라기들》(제 1 부)에 등장하는 부정인물들의 경우만 보더라도 그렇다.

커다란 머리에 쭈대발처럼 뒤펅킨 머리칼을 뒤로 추어넘기며 신문기자 배운중이 동료기자였던 주태화를 두고 씨벌이는 말, 부두역에서 기차를 연착시켰다고 노발대발한 일제침략군 련대장 가와사끼놈이 기차를 연착시킨자가 옛상전 노무라놈이었음을 알자 갑자기 일변하여 굶신거리는 장면, 일제수비대의 선발대인 애송이 중대장 아끼시마놈이 한개 중대를 이끌고 백리허숲속을 질러가다가 이리때에 뜯기워 처참한 꼴이 되는 장면 등은 얼마나 조소적이며 풍자적인가.

작가는 또한 대상을 특징화하고 개성화하는데서 비유의 수법도 능란하게 활용하고있다.

비유는 대상의 본질을 뚜렷하게 드러내는데 이바지하는 중요한 형상수단이다.

석유키는 비유의 수법이 가지고있는 모든 예술적 가능성들을 최대한으로 발양시키면서 자기의 개성적 특성을 살리고있다.

《무성하는 해바라기들》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를 애타게 갈망하는 유철의 심정을 거치른 파도속에서 등대의 불빛을 찾는 배고동소리로 비유하고 이를 반복묘사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를 바라는 유철의 심리적 모태감을 더욱 심화시킨것은 그 대표적 실례이다.

이 모든것은 석유키가 형상 수단과 수법들을 독자적으로 파악하고 능숙하게 활용하며 인간과 생활을 개성화함으로써 독자적인 예술의 세계를 확신성있게 개척해나가고있다는것을 실증해준다.

작가 김규엽도 인간과 생활을 조형적으로, 립체적으로 그리고있는것으로 하여 다른 작가와 자기를 구별짓고있다고 말할수 있다.

예술적 묘사에서 조형성과 립체성을 옹계 살려 묘사대상을 조형적으로, 립체적으로 그려내는것은 묘사의 구체성과 생동성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담보의 하나이다.

묘사에서 조형성과 립체성을 살린다는것은 묘사대상을 평면적으로가 아니라 여러 각도에서 립체적으로 보여주며 전체와 부분, 내적인것과 외적인것, 주도적인것과 부차적인것, 성격과 환경, 비례와 균형 등의 조화를 보장함으로써 묘사대상을 현실에서와 같이 조형적으로 자연스럽고 생동하게 그려낸다는것을 의미한다.

《명진은 어머니와 나란히 누웠다. 선들바람이 어디선가 강냉이 잎사귀들을 살그르려며 불어갔다. 이제는 지쳤는지 잠꼬대하듯 노래를 그쳤다가는 또 다시 목신 소리로 울고, 울다가는 그치군하는 풀벌레들의 형클어진 합창소리가 바람에 실려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며 들려왔다. 향긋한 썩냄새를 풍기며 모기불연기가 귀뿌리에서 앵앵거리는 모기들을 몰고 지나갔다.

우리처럼 제 땅 없는 농군들은 모두 그렇게 살아왔다고? 내가 돌아왔으니 천석군 부럽지 않다구...어떻거면 가슴속에 서린 먹구름을 시원하게 씻어내고 희망에 차서 살아본단말인가?...

팔베개를 하고 남북으로 길게 흘러간 은하수를 쳐다보며 그는 한숨을 지었다. 문득 어린 시절 저 은하수를 쳐다보며 푸른 꿈을 키우던 때 일이 떠올랐다.》

이것은 장편소설 《새봄》에 그려진 주인공 명진의 심리묘사의 한 대목이다.

이 묘사가 모기불가에 팔베개를 하고 누워서 땅없이 살아야 하는 자신의 기막힌 처지를 생각하며 끝없는 고뇌와 번민 속에서 모태기는 명진의 심리적 고충을 한쪽의 그림처럼 생생하게 드러내보여 주는것은 인물의 심리적 움직임을 농촌의 여름밤전경에서 특징적인 음향, 색채, 냄새 등과의 유기적인 결합속에서 립체적으로, 조형적으로 그려냈기때문이다.

작가 고병삼도 농촌생활에 대한 개성적인 안목과 자세를 가지고있다.

작가인 경우 농촌생활을 보는 안목은 남다른데가 있으며 그 생활을 받아안고 높뛰는 그의 심장의 박동소리도 각이한 진폭을 가지고 울려온다.

농촌생활에 대한 이 작가의 독특한 안목과 숨결이야말로 인물들의 성격창조에 독특한 의미와 색깔과 음향을 부여하면서 농촌주체의 다른 작품들과

구별되는 독창적인 작품을 창작할수 있게 하는 근본조건으로 된다.

작가는 다양한 형상 수단과 수법을 자기류로 파악하고 또한 그것을 자기의 작가적 체질에 맞게 능란하고 다채롭게 구사함으로써 자기식의 투를 가지고 자기의 독자적인 예술의 세계를 개척해나가고있으며 인물들의 성격을 개성화하는데서도 그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작가는 장편소설 《대지의 아침》(제 1 부)에서 땅의 주인으로서의 새형의 농민의 탄생에 관한 철학적인 종자를 독특한 예술적 일반화의 수법으로 꽃피워 감명깊은 형상세계를 펼치는데 성공하였다.

소설에서 작가는 땅의 주인이 됨으로써 자기 운명의 주인, 나라의 주인으로 된 인간이 발휘하는 거대한 힘, 창조적 힘에 대하여 감명깊게 이야기할수 있었다.

주인공 강대우는 위대한 장군님의 파사로운 손길아래 자주적인 새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고 그 누구도 건드릴수 없는 거대한 힘을 가진 존재로 자라난다.

작가는 자기의 창작을 주인공의 성격창조령역에 집중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랑만적 수법을 대담하게 구사하였다.

소설의 주인공 강대우는 파스한 온돌방, 포근한 담요속에서가 아니라 피눈물에 젖은 밭고랑우에서 태어나 흙냄새를 맡으며 고된 로동속에서 자랐을뿐 아니라 자기 이름 그대로 소와 같이 억센 힘과 완강한 체력을 가진 청년으로 설정되었다. 그러나 이 《거목같은 사나이》는 지난날 땅이 없는 탓으로 자기의 주먹조차 마음놓고 쓸수 없을만큼 짓눌리며 살아왔다.

작가는 강대우의 힘과 슬기가 땅의 주인이 된 그날부터 마음껏 분출되는 모습을 통하여 생활의 주인으로서의 그의 성격적 미와 창조적 힘을 정열적으로 레찬하고있다.

실로 새롭고 특색있는 예술적 형상은 생활을 예술적으로 재현하는 모든 수단과 수법을 자기의것으로 만들고 그것을 자유분방하게 구사할줄 아는 능력을 지닌 작가에 의해서만 창조될수 있다.

작가들은 다양한 형상 수단과 수법에 정통하고 그것을 자유롭고 능란하게 활용함으로써 자기의 창작적 개성을 뚜렷이 살려야 할것이다.

독자편지

내 마음속엔 리가 없는가

잡지 《조선문학》 1988년 6호에는 시 《쌀을 일며》(김선)가 실려 독자들의 심금을 여운있게 울려주었습니다.

시는 이 세상의 모든 어머니들이 때식마다 의연히 하게 되는것, 생활에서 극히 평범한것에서 의의있는 종자를 잡고 사상에술적으로 잘 형상하여 독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고 봅니다. 너무도 수수하고 범상한 현상이 시로서의 독특한 얼굴과 성

격을 가지고 매력에 품었으니 독자들은 이 시앞에서 자못 경탄하며 자기들의 마음을 돌이켜봅니다. 당을 받드는 내 마음엔 리가 없는가...

앞으로 편집부에서는 이 시와 같이 새롭고 참신한 작품들을 더 많이 편집하여주십시오. 우리는 마음에 꼭 드는 시를 보면 새힘이 솟습니다.

조선평양 124호(5-3) 원기학

병사의 《회답시》를 쓰겠습니다

저는 잡지 《조선문학》 1988년 6호에 실린 시초 《인류에게 주는 시》(문동식)를 깊은 감동속에 읽었습니다. 시줄마다가 그대로 복수자의 불타는 증오로 안겨와 한줄 읽고는 저절로 주먹이 불끈 쥐어져 읽고 또다시 읽기를 그 몇번 했는지 모릅니다. 특히 《세월이 가도》는 시행 한줄한줄이 그대로 저의 심장의 피가 용암처럼 부글부글 끓게 하여주었습니다.

왜 안그렇겠습니까.

시에 관통된 내용이 말해주는바와 같이 우리의 신천과 우리 인민은 미제야수들의 살육만행으로 얼마나 가슴아픈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 원수들이 오

늘 또다시 우리 인민뿐아니라 온 인류에게 핵 참화를 들썩울 흉계를 꾸미고있으니 신천이 어찌 그 침략자들에게 값비싼 대가를 치를 총검을 버리고 복수란을 만드는 《버림장》이 아니될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그 《버림장》에서 총창을 버린 병사입니다. 저는 이 시에서 받은 불타는 증오와 복수를 저의 총창끝에 무섭게 채워 꼭 이 시에 병사의 《회답시》를 쓰겠습니다.

조선인민군 군관 김룡철

대양만리 한끝에 가있어도

림유길

사무쳤던 그리움 앞세우고
엄마품에 달려가는 철부지마냥
조국으로
조국으로 항행하는 이 밤

배전을 치는
인디아양의 세찬 파도도
설레이는 이 가슴속 환희를
잠재우지 못하누나

떠나올 때
눈송이 날리던 조국의 가슴에
꽃들이 곱게 피여 반기리
이제야 겨우 말을 뎌 첫 아기
아버지라 부르며 아장아장 마중오리

모든것이 새로우리
기초를 다지던 새 거리에
층높은 새집들이 일어섰다니
떠나올 때 바래주던 나의 동생
대건설장에서 당원이 되었다니
새집으로 옮겼다는 나의 집 창가에
기다리는 눈빛처럼 불빛 밝겠으니

해빛을 안고

별빛을 안고
대양만리 헤쳐오는 이 밤
그리운 마음속에 화폭처럼 펼쳐지는
조국의 모습이여
조국을 떠났던 내 가슴속에
그렇듯 새 생활의 화폭이
언제 이처럼 생생히 새겨진것이나

문득
귀전에 다시 올리는 전파...
돌아오는 배길에 이상이 없는가
사랑으로 올리는 조국의 목소리

몽클, 젖어드는 생각이여
바로 그것이였구나
이 세상 그 어느 먼곳에 가도
내결에 언제나 떠나지 않은것
힘을 주며 지혜를 주며
위훈의 언덕으로 나를 떠밀어준
조국의 사랑,

아, 조국은 언제나
나와 함께 있었구나
대양만리 한끝에 가있어도
조국의 품에 안겨있었구나

탄전의 저녁

리시남

꼬리긴 탄차를 뒤에 달고
깽박에 나섰네
한 교대에 서너발과 때리라는 그 당부
인사말처럼 뒤에 남기며

석탄
석탄을 더 캐내지 못한 아쉬움이
걸음걸음 붙잡는 마음속에
래일엔 막장이 넘치도록 탄을 더 캐리라
새로운 위훈도 다짐하며 걷는 이 저녁

한 교대에 두막장을 말아
기름진 탄발을 털어냈다고
꽃다발 안겨주는 처녀의 눈빛앞에서

가슴도 땃땃이 펴고 휘파람도 휘휘불며
빠기면서 걷는 이 저녁

거인같은 웃음도 호탕히 날리며
모든 사람들앞에
개선장군처럼 얼굴도 빼젓이
발걸음도 활개치며
탄광구내를 벗어나는 이런 저녁이면

온 세상이 다 들도록
노래라도 목청껏 부르고싶어라
그 누구에게든 밤새도록 자랑하고싶어라
저 높은 굴뚝에서 타래치는 연기는
열관리공이 아니라

내가 뽐는것이라고

시름없이 저녁준비 서두르는 너인들의 웃음
아이들의 두볼에 피어나는 고운 웃음
그 모든 행복을 다 비껴안고
하나둘 켜지는 창가의 불빛도
내가 이 손으로 켜는것이라고

깊은 땅속 초소를 지켜
내 안아올리는 석탄에
이런 기쁨과 환희에
날마다 이 가슴 부푸는 긍지가 있어
이대로 그냥 걸어가

다 보고싶어라

철의 기지에 사품치는 쇠물
위훈의 불꽃 날리는 온 나라 발전소
용접의 불비 쏟으며 완공을 서두르는
온 나라 대건설장들을...

아, 탄전의 이런 저녁은
이 하루의 성실한 위훈이 있어
조국이 내앞에 활짝 열어준
행복한 생활의 한복판으로
내 걸어갈수 있다는것을
새롭게 가슴속에 느끼는 때여라

새 계절

김석전

겨울맞이 바쁘구나
어디를 보나
푸르던 금강에도
새 계절이 왔네

봄에도 여름에도
좋은 금강산
가을에 찾아오니
더더욱 아름다워

계곡을 태우며
단풍은 불붙어라
불길을 둘러감아
찬바람 막으려나

물을 보면 물속에
산을 보면 산우에
온통으로 붉게 물든
가을의 금강산

겨울 앞둔 계절이라
아쉽다 말 말자
추위는 가까와도
열정의 금강산

백발 없힌 생을 두고
서글프다 생각 말자
삶의 끝도 불태우면
젊음이 넘치거늘